

■ 목 차 ■

축 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xiii
축 사(전 국어연구소장 · 서울대 명예교수 이기문)	xvi
발간사(국립국어원장 권재일)	xviii

01. 연혁

1. 설립 경위	1
2. 직제와 기능	6
1) 국립국어연구원 직제	6
2) 국립국어원 직제	9
3) 기능의 변천	17
3. 예산과 청사	21
1) 예산	21
2) 상징 도안	22
3) 청사	22
4. 간추린 해적이	25

02. 어문 규범의 관리

1.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정비	33
2. 외래어 표기법 제정	46
3. 로마자 표기법 개정	49
4.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영향 평가	54

5. 표준 화법 정비	56
6. 어문 규범 보급 활동	57
7. 한자 표준화	60
03. 국어사전 편찬	63
1.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63
2.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	68
3.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편찬	73
04. 국어 실태 조사	79
1.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79
2. 신어 조사	83
3.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조사	85
4. 서울 토박이말 실태 조사	88
5. 지역어 조사	89
6. 민족생활어 조사	97
05. 국어 정보화	101
1. 21세기 세종 계획	101
2. 디지털 한글박물관	106
3. 한글 문화유산 디지털화	109

06. 국어 생활 지원	115
1. 우리말 다듬기	115
2. 가나다전화와 온라인 가나다	116
3.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	120
4. 방송·신문·인터넷의 언어 개선	121
5. 교육 언어 개선	122
07. 국어 능력 향상	125
1. 국어소식지 발간을 통한 국어 능력 개발	125
1) 계간지 “새국어생활”	125
2) 월간지 “새국어소식”	130
3)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131
4) “국어 연감” 발간	131
2. 국어문화학교 운영	134
3. 온라인 국어 학습	140
4. 언어 취약 계층 교육	142
5.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147
6. 국어문화원 지원	151

08. 국외 한국어 보급	155
1. 세종학당 운영	155
2.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160
3. 한국어 교원 연수	161
4. 한국어 교재 개발과 보급	165
09. 남북 언어 통합	169
1. 북한어 조사 연구	169
2. 남북 학술회의	171
3. 새터민 언어 교육	172
10. 제도와 국어 발전 계획	175
1. 국어 관련 법령	175
1) 국어기본법 이전	175
2) 국어기본법	175
2. 국어 정책 기구	179
1) 국어심의회	179
2) 국어책임관	186
3. 국어 발전 계획	188
4. 국어 정책 관련 학술 대회	192

부 록	195
1. 국립국어원 해적이	197
2. 국립국어원 현직·전직 직원 일람	207
3.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말터’와 말터 순화어 목록	215
4. 국립국어원 발간물 일람	227

■ 표 목차 ■

[표 1-1] 국립국어연구원 조직도 및 정원표(1991년도)	6
[표 1-2] 국립국어연구원 조직도(1994년도)	9
[표 1-3] 국립국어원 조직도(2004년도)	10
[표 1-4] 국립국어원 조직도(2007년도)	11
[표 1-5] 국립국어원 조직도(2008년도)	22
[표 1-6] 국립국어원 조직도(2009년도)	33
[표 1-7] 국립국어원 정원표(2010년도)	44
[표 1-8] 국립국어원 예산(2010/2011년도)	12
[표 1-9] 국립국어원 청사 현황(2010년도)	33
[표 2-1] 한글맞춤법(1988년)과 한글맞춤법통일안(1933년) 주요 내용 비교	35
[표 2-2] 표준어사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목록 분류	44
[표 2-3] 주요 로마자 표기법 대조표	52
[표 2-4]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의 법적 근거	54
[표 3-1] 주표제어의 다양한 형태	66
[표 3-2] 품사별 표제어 개수	70
[표 3-3] 관용구·속담 개수	70
[표 3-4] 표준국어대사전(1999년)과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2008년)의 전문 분야별 표제어 개수 비교	71
[표 3-5] 온라인 사전(2002년)과 웹사전(2008년)의 기능 비교	72
[표 3-6] 업무 추진 기관별 역할	75

[표 3-7]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제1단계(2010년~2012년) 사업 내용	77
[표 4-1] 국어실태조사 추진 내용	82
[표 4-2] 국어능력검정시험 개관	82
[표 4-3] 지역어 연도별 조사 계획	90
[표 4-4] 북한 지역의 조사 내역	90
[표 4-5]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 내역	91
[표 4-6]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93
[표 4-7]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1집(2005년도 지역어 조사 결과 중 구술 발화)	95
[표 4-8]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2집(2006년도 지역어 조사 결과 중 구술 발화)	96
[표 4-9]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3집(2007년~2008년 지역어 조사 결과 중 구술 발화)	96
[표 4-10] 2007년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목록	98
[표 5-1]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예산	106
[표 5-2] 100대 한글 문화유산	110
[표 6-1] 가나다전화 고빈도 질문	117
[표 6-2] 가나다전화 상담 건수 변화	118
[표 6-3] 가나다전화 연혁 및 실적	118
[표 6-4] 온라인 가나다 연혁 및 실적	119
[표 7-1] “새국어생활” 구성	126

[표 7-2] “새국어생활” 특집 목록	127
[표 7-3] “국어학 연감” 수록 내용	132
[표 7-4] 국어문화학교 과정 개요	135
[표 7-5]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연도별 개최 현황 (1992년~2010년)	139
[표 7-6]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연도별 개최 횟수 추이 (1992년~2010년)	140
[표 7-7] 온라인 강의 개발(2007년~2010년)	142
[표 7-8] 국어문화원 연혁	153
[표 7-9] 전국 17개 국어문화원 현황	153
[표 8-1] 세종학당 사업 추진 단계	157
[표 8-2] 세종학당 설치 현황	158
[표 8-3] 인증 세종학당 지정 현황	159
[표 8-4] 연도별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현황	161
[표 8-5]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재 개발(2008년~2014년)	166
[표 9-1] 남북 언어 연구 목록	170
[표 9-2] 남북 공동 국제 학술회의 개최 현황	171
[표 9-3] 새터민 관련 연구 현황(2005년~2010년)	172
[표 9-4] 새터민 교육 특별 과정	173
[표 10-1] ‘국어기본법’ 주요 내용	177
[표 10-2] ‘국어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179
[표 10-3] 국어심의회 설치 규정 관련 주요 연혁	180
[표 10-4] 국어심의회 변천 내용	180

[표 10-5] 국어심의회 분과별 주요 심의 사항	181
[표 10-6]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	183
[표 10-7] 국어심의회 논의 안건(2005년~2010년)	184
[표 10-8] 국어책임관 활동 연혁	186
[표 10-9] 1999년 국립국어연구원 기능 강화 방안	188
[표 10-10] 2002년 중점 추진 과제	189
[표 10-11] 3대 중점 추진 과제	190
[표 10-12]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191

■ 그림 목차 ■

[그림 1-1] 역대 원장 사진	17
[그림 1-2] 국립국어연구원 현판식	18
[그림 1-3] 국립국어원 상징 도안	22
[그림 1-4] 국립국어원 역대 청사	24
[그림 2-1] 초등만화맞춤법	58
[그림 3-1]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 출판 기념식	67
[그림 3-2]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68
[그림 3-3]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 개정판(2008년)	71
[그림 3-4]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검색 기능	72
[그림 3-5]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업무 추진 체계	74
[그림 3-6]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단계별 추진 절차	77
[그림 4-1] 지역어 조사 질문지 표지와 본문	94
[그림 4-2]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95
[그림 5-1] 21세기 세종계획의 목적과 목표	102
[그림 5-2] 21세기 세종계획 사업 구성도	103
[그림 5-3] 21세기 세종계획 성과 발표회('07. 12. 11.)	103
[그림 5-4] 21세기 세종계획 누리집	104
[그림 5-5] 옛 한글 편지 특별전(2007년)	108
[그림 5-6] 훈민정음	114

[그림 6-1] 공공언어 누리집	121
[그림 7-1] “새국어생활” 역대 표지	130
[그림 7-2] 쉽표, 마침표	131
[그림 7-3] “의학수화”, “정보통신수화”, “일상생활수화(2)”, “한국수화 2” 표지	145
[그림 7-4] ‘점자세상’ 누리집	146
[그림 8-1] 한국어 교육 진흥 계획	155
[그림 10-1] 2008년 국어사랑큰잔치	188
[그림 10-2] 2010년 국립국어원 20주년 기념 언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	193

축 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국립국어원이 첫발을 내디뎠던 1991년 1월도 지금과 같은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와 씨앗이 새로운 봄을 기다리듯이,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발전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이제 어엿한 성년으로 꽃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과 “국립국어원 2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글’로 대표되는 빛나는 언어문화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문화의 바탕에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문화의 기틀을 세우고, 인쇄·출판 문화를 꽃피워 풍요로운 문화의 시대를 열었던 선조들의 미래에 대한 혜안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는 나라를 잃은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선조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역사를 깨닫는 통찰력,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빛나는 언어문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의 언어문화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구성원의 생각과 문화를 아우르는 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의 발달과 가족, 사회 제도의 변화에 따라 부모와 자식 간, 세대와 세대 간의 언어 분화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을 비롯한 매체의 언어 사용이 자라나는 청소

년들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사회의 문화가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언어는 더 이상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집단의 생각, 사회 전체의 지향점을 표현해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세계의 여러 국가가 언어 사용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것의 올바른 사용이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해진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여러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언어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어를 바탕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창조의 힘으로 삶을 풍요롭게 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 정책을 전망하고 논의하는 ‘국제 학술 대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세계 유수의 언어 정책 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이질적인 생각을 하나의 목소리로 담아내는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과 전통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년간 국립국어원에서는 어문 규범 정비, 국어대사전 편찬, 한국어 교육, 공공언어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으로는 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밖으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언어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데 젊음이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를 연결해 주고 갈등과 오해를 풀어주듯이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생각을 품어 주는 언어의 힘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어 발전을 위해 땀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국립국어원이 새로운 언어문화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축 사

전 국어연구소장·서울대 명예교수 이기문

국립국어원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엇그제 일 같은데 벌써 20년이 되었다니, 새삼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립국어원의 창립은 광복 이후의 우리 학계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창립은 이어령 장관의 작품이었습니다. 문화부가 신설되고 어문 정책이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었을 때 마침 이어령 장관이 취임함으로써 국립국어연구원의 창립이 실현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립국어연구원이 문을 연 초기에 저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정해진 청사가 없어 이리저리 이삿짐을 들고 옮겨다닐 때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연구 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정책이 바람직한데도 어느 행정 기관과 같이 운영되는 것을 볼 때에는 답답한 마음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며 연구원 본래의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 온 데는 역대 원장의 노고가 참으로 컸습니다. 오늘날 연구원이 지니고 있는 높은 위상은 안병희 초대 원장을 비롯한 역대 원장들의 엄청난 노고가 빚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처음 창립했을 때에는 아무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을 7년 만에 완간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 연구원들의 노력이 얼마나 컸던가는 얼핏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전은 지금까지 간행된 가장 좋은 국어사전입니다. 그러나 ‘대사전’이

라는 표제는 붙였으나 중사전입니다. 완전한 국어사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상을 말하면 완전한 사전이란 없습니다. 완전해 가까운 사전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전은 5개년, 10개년 계획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문자 그대로 백년대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할 수정 증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모을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구할 수 없으면 새로 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해 가까운 국어사전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 문화의 한 큰 금자탑이 될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어문 정책을 세우고 온 국민의 국어 생활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일도 현대 국어의 체계와 유구한 국어의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의 밑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저는 창립 당시의 ‘국립국어연구원’이 합당한 명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가 없는 명칭은 고갱이가 빠져 버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했지만, 크게 보면, 준비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때 더욱 영광스러운 50주년,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욱 큰 분발이 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발간사

국립국어원장 권재일

국립국어원이 국립 기관으로 문을 연 지 스무 해가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도 스무 살이 되면 약관이라 하여 갓을 씌우고 비로소 어른 대접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른이란 곧 자기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니, 스무 해 생일을 맞는 국립국어원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새기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국립국어원의 개원은 우리 국어 정책사에 큰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몇몇 국어학자나 비상설 심의기구를 통해 결정하던 국어 정책이 권위 있는 전문 기관의 연구를 통해 합리성과 체계성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언어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관의 설립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학계의 바람이 실현된 결과이며, 한편으로는 우리 말과 글을 쓰는 데에 불편이 없게 해 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스무 살 청년으로 성장한 국립국어원의 20년사를 펴내며, 지난 20년간 우리가 이루어온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개원 당시 국립국어원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어문규범의 정비와 보급이었습니다. 개원 직전 국어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규범을 개정 고시하였으나 일반에 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는 언어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개원 첫 사업으로 가나다전화를 개통하고 국어문화학교를 열어

바른 언어생활을 안내하는 일에 힘 쏟았습니다.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언어 차이를 연구하는 한편, 연구원들을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파견하여 북한식 규범을 따르는 재외 동포들에게 새로운 우리말 규범을 보급하였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호칭어·지칭어 등의 언어 예절을 표준화하기 위한 표준화법 제정 사업도 펼쳤습니다. 개원 초기에 이루어졌던 이 모든 사업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한편, 변화하는 언어 상황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는 21세기 세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요즘에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수준을 높이려는 제도 개선은 물론, 표준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언어와 관련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활발히 열어 학계는 물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정의하고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등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진흥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국립국어원이 혼자서 이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 지난 2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터넷의 영향으로 점차 획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보와 경제에 앞선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면서 그 문화적 가치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다양성이 사라지고 몇몇 거대 언어로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언어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우리 언어문화의 보전과 발전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긍지와 자존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을 위한 도

구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담은 소중한 정신의 그릇이기 때문
입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우리 말과 글을 더욱 같고 닦아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은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국어순화와 전문용어
의 표준화 사업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언어 자원을 모우고 다듬어
개방형 국어대사전을 편찬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 언어문화가 활짝 꽃피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어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
도록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어휘들을 되살려 쓰는 정책을 펼 것입니다. 외국
의 언어정책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언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한편, 우리의 앞선 언어정책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언어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로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어와 관련한 모든 현안을
드러내고 학계의 역량을 모두 모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
서 모든 사람들이 말과 글을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쓸 수 있도록
은 힘을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국립국어원이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국민들과 학문적 성과를 통해 국립국어원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신
국어학계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정책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감으로 맡은 일
을 다해 주신 국립국어원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01 연혁

1. 설립 경위

‘말’과 ‘글’은 한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말과 글의 정비와 발전을 위한 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조선 시대 세종 때 최초의 국문 연구 기관인 언문청(諺文廳)을 설립하여 한글 창제 및 사용 규범에 대한 연구를 도모한 것이나, 광무 11년(1907년), 학부(學部) 내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여 국문의 원리 및 내력, 체계 등을 확립하려 한 것은 모두 말과 글의 정비가 당대 언어문화 및 국가 운영의 중요한 문제였음을 잘 보여준다. 국권 침탈의 시기였던 일제 강점기에도 이 같은 의식은 계승되어 국어연구학회(1908년), (1921년 ‘조선어연구회’, 1931년 ‘조선어학회’, 1949년 ‘한글학회’로 개칭), 조선어학연구회(1931년) 등의 민간 단체들이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통일된 어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국가 기구의 필요성이 학계와 대중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한글 전용론과 국한문 혼용론 간의 대립과 같은 역사가 깊은 정책 갈등에서부터 신구 철자법 상용 문제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언어 문제를 총괄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50년대 한글 간소화 파동이나,

1960년대의 문법 파동 등은 국어 문제를 해결하고 조절할 만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공기관의 필요성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1960년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국어연구소 설치에 대한 건의문은 국립국어 연구 기관 설립의 역사적 필연성을 잘 보여 준다. 1962년 국어국문학회 총회에서 문교 당국에 국어 연구 기관 설치 문제를 건의한 것을 필두로 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학자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출되었다. 문교부(지금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어과 편수관이 겨우 2명에 불과했던 당시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고 방송 언어 발음의 불일치,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의 혼란, 상용 한자·표준말·국어 순화 문제, 방언과 지명 조사, 국어대사전 편찬 및 국어 교육 문제 등 산적한 언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상설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소의 필요성을 담은 것이었다.

이 같은 국립국어 기관 설립에 대한 학계 및 언론계의 적극적인 요청에 힘입어 정부가 국어 연구 기관의 설치 의지를 보인 것은 1976년이였다. 문교부에서 국어 순화 운동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할 문교부 직속 상설 연구 자문 기관 설치 계획을 발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행 국어 심의회와 한글전용 연구위원회 등이 있으므로 이를 통폐합 보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총무처(지금의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보임으로써, 정식 국립국어 연구 기관은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나서야 설립될 수 있었다. 비록 국립국어 연구 기관의 설립에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인식의 확대는 국립국어 연구 기관이 설립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국어 연구 기관 설립 계획에 착수한 것은 1983년 문교부에서 학술원 내 국어연구원 설치를 시사한 것에 대해, 우리말 관련 9개 학술 단체가 강연회를 개최하고, 문교부에 정식 건의문을 제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말 관련 9개 단체는 1983년 5월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합동 강연회를 열고 국립국어연구원 설치 건의문을 당국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국립국어 연구 기관 설립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들 단체는 전문적인 어문 연구 및 정책 수립과 집행의 필요성, 선진국들의 어문 연구 기관 설립 사례 등을 근거로 하여 국어 연구원 설치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역설하였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국어 연구 기관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1948년 설립 이래 현재 5개 연구부, 정원 77명에 달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정착한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경우가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또한 이탈리아의 크루스카 한림원(1582년), 영국의 어학회(1842년) 및 스페인(1713년), 러시아(1783년), 독일,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의 국어 연구 기관 설립 및 국어 정리 사업 실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학계의 요구 및 여론에 나타난 열망을 반영하여 1983년 10월, 학술원 안에 비공식 기구인 국어연구소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이를 독립 기구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설립 예산은 1억 4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국어연구소의 기능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1984년 4월, 연구원 4명 및 조사원 6명을 공개 선발했으며,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해영회관에서 1984년 5월 10일, 국어연구소 개소식이 거행되었다. 초대 국어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한 김형규 소장(당시 학술원 원로 회원)은 ‘우리나라 국어 교육 및 국어 정책에 충실한 학문적 뒷받침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게 설립된 국어연구소가 어문 정책의 총괄이라는 무거운 사명을 수행하기에 모든 상황이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국어연구소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 직속 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독립적인 상설 기구가 아닌 학술원 내 비공식 기구로서 설립되었다. 법적으로 개인 단체와 다를 바 없었던 국어연구소는 연구 및 출판 활동에서 여러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정부 당국의 예산 동결로 정부 보조금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고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광복 39년 만에 첫선을 보인 국어연구소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자, 국어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립의 국어 연구 기관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출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은 문교부가 학술원 내 비공식 기구로 설립한 국어연구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통령령 제13163호(1990년 11월 14일)’에 의해 1991년 1월 문화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 문화부가 정부의 독립 부처로 출발한 것은 전 시대적인 문화의 특권화, 귀족화를 배격하고 국민 대다수가 고루 누리는 문화 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 정책의 수립을 알리는 것이었다. 문화부는 과거의 문화공보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어문 및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였다. 교육부의 어문 정책 업무는 문화부로 이관되었고 문화부는 전담 부서로 어문출판국 안에 어문과를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어연구소’도 ‘정부 조직법’의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 1990년 11월 14일)에 따라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소속이 이관되었다. 어문 정책이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된 것은 국어 정책의 지향점이 교육의 차원에서 문화의 차원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가 교육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가 된 것은 국어 정책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문화부의 어문과는 본래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국어 연구나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제한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문화로서의 국어 정책이라는 개념을 정착하고 국어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전문 국어 연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문화부 내부 및 국어학계와 언론계에서 제기되었다. 문화부는 이러한 각계 의견을 검토한 끝에 문화부 어문과나 기존 국어연구소만으로는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 시대의 문화 환경에 걸맞은 어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연구원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당초 문화부는 1991년 1월까지 기존의 국어연구소를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승격하여 차관급 원장과 4부 49명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정책으로 기존의 계획이 축소되어 1과(서무과) 3부(연구1부, 연구2부, 연구3부) 정원 35명을 기준으로 하는 직제가 1990년 11월 확정·발표되었다. 이후 ‘서무과’는 ‘기획관리과’를 거쳐 ‘행정지원과’로 이어졌고 ‘연구1부, 연구2부, 연구3부’는 ‘어문규범연구부, 어문실태연구부, 어문자료연구부’와 ‘언어정책부, 어문실태연구부, 어문진흥부’를 거쳐 지금의 ‘어문연구실, 공공언어지원단, 교육진흥부’로 이어졌다. 그동안 이름과 기능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애초의 기본 골격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수행할 전담 업무로는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표준화 작업, 남북한 언어 통합 방안 모색, 한국어의 국제적 보급, 한글 기계화 추진 등이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국립국어연구원은 1991년 1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청사에서 현판식을 거행함으로써 정식으로 개원하게 되었다. 당시 ‘언어의 표준화’를 비롯한 어문 정책을 생활 문화의 차원에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여령 문화부 장관은 “전통적인 문화를 되살리는 것은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국립국어연구원 초대 안병희 원장 역시 “국민 언어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와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객관적 입장에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어 합리화의 기초 확립과 국민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로써 언어문화 및 어문 정책의 발전이라는 각계의 목소리를 아우르면서 국립 국어 연구 기관이 출발하게 되었다. 비록 계획보다는 작은 규모로 출발하였지만 국립국어연구원의 설립은 언어 문제를 국가가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현실의 언어 문제 해결은 물론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의 차원으로 다루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2. 직제와 기능

1) 국립국어연구원 직제

국립국어연구원의 직제는 ‘대통령령 제13163호(1990년 11월 14일)’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사무과, 연구1부, 연구2부, 연구3부로 편성되었으며 원장과 연구1부장, 연구2부장은 대학의 교수가 겸직하였으며 연구3부장은 별정직 3급상당이 임명되었다.



[표 1-1] 국립국어연구원 조직도 및 정원표(1991년도)

국립국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1991년)	
총 계	35
일반직 계	27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1급상당	1
학예연구관·별정직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3급상당	2
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전산처리사	1
사서	1
행정주사보	1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5

국립국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1991년)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6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6
기능직 계	8
10등급 운전원	1
10등급 사무보조원	7

국립국어연구원직제[시행 1990. 11. 14.]

[대통령령 제13163호, 1990. 11. 14. 제정]

제1조 (설치) 국어 및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국어합리화의 기초를 세움과 아울러 국민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문화부장관 소속하에 국립국어연구원(이하 “국어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원장) ① 국어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문화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 국어연구원에 서무과·연구1부·연구2부 및 연구3부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연구1부장은 학예연구관·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연구2부장 및 연구3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 국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 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 및 시설의 관리·보호
9.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연구1부) 연구1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국어 연구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한글의 기계화·과학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언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4. 정보 자료 수집 및 언어 음성 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제규범의 연구
6.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연구2부) 연구2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언어 및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2. 한글의 역사적 변천 및 방언의 조사·연구
3. 북한어 조사·연구
4.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 연구
5. 신문·방송 언어의 사용에 관한 조사·연구
6. 국어 해외 보급 및 해외 거주자 국어 사용 실태의 조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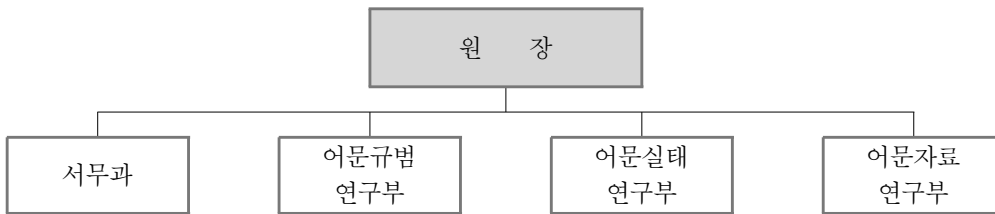
제8조 (연구3부) 연구3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준 국어사전 편찬 및 국어 관련 각종 사전 발간
2. 한자의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3. 각종 연구 목록 발간
4. 국내외 저작물의 번역

제9조 (운영 세칙) 국어연구원의 운영과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부장관이 정한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직제는 1994년에 ‘대통령령 제14249호(1994년 5월 4일)’에 따라 변경되었다. ‘연구1부’가 ‘어문규범연구부’로, ‘연구2부’가 ‘어문실태연구부’로, ‘연구3부’가 ‘어문자료연구부’로 바뀐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부서의 명칭에 역할과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지향점과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2] 국립국어연구원 조직도(1994년도)



2000년 2월 28일에는 대통령령 제16725호에 따라 국립국어연구원장의 자격을 학예연구관 또는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학예연구관으로 변경하였다. 2000년 8월 19일에는 문화관광부령 제42호에 따라 학예연구관 1명의 정원이 줄어들었다. 2002년 6월 5일에는 문화관광부령 제65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북한 언어 연구 인력 2명(학예연구관 또는 별정5급 1명,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 6급 1명)이 증원되었다. 2004년 5월 24일에는 문화관광부령 제94호에 따라 행정주사 1명과 전기서기 1명이 증원되었다.

2) 국립국어원 직제

2004년 11월 11일에 대통령령 18588호에 따라, 국립국어연구원의 직제가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은 ‘국립국어원’으로 개칭되었으며, ‘어문규범연구부·어문실태연구부·어문자료연구부’는 ‘언어정책부·국어생활부·국어진흥부’로 바뀌었다.

‘국립국어원’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목표와 기능 또한 달라졌다. ‘직무’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어의 합리화와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관장한다’는 내용에서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관장한다’로 바뀌었는데 이는 기존의 조사, 연구 기능 외에 정책 개발의 기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별 부서의 기능 또한 ‘언어정책부’는 ‘언어 정책 및 연구 계획의 수립 조정’, ‘국어생활부’는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및 국어 생활 관련 사항’, ‘국어진흥부’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등으로 확장되었다.

[표 1-3] 국립국어원 조직도(2004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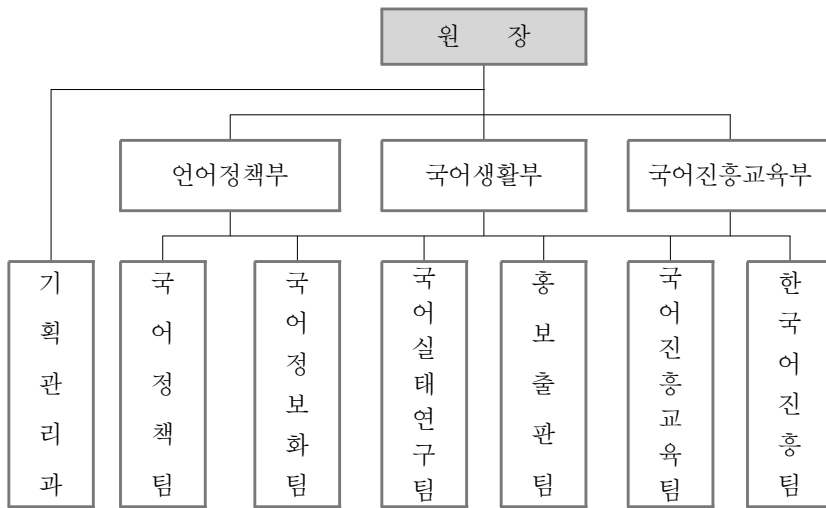


2004년 11월 18일에 문화관광부령 제99호에 따라 ‘서무과’가 ‘기획관리과’로 개편되었다. 이름의 변경 외에도 언어 연구와 정책 사업의 종합 관리 및 홍보 업무가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서기관 1명이 증원되었다. 2005년 8월 16일에 문화관광부령 제122호에 따라 학예연구관 1명과 학예연구사 1명이 증원되었다. 2006년 4월 6일에 문화관광부령 제134호에 따라 학예연구관 1명과 학예연구사 2명이 증원되었다.

2004년 이후로 국립국어원의 직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바뀐 것은 2007년이다. 2007년 5월 2일에 대통령령 제20042호에 따라 국립국어원 직제가 개

정되어 ‘국어진흥부’가 ‘국어교육진흥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2007년 5월 22일에 문화관광부령 제164호에 따라 기존의 부서 밑에 팀을 신설하는 개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언어정책부, 국어생활부, 국어진흥교육부에 각각 ‘국어정책팀·국어정보화팀’, ‘국어실태연구팀·홍보출판팀’, ‘국어진흥교육팀·한국어진흥팀’의 6개 팀이 신설되었다. 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학예연구관 2명과 학예연구사 2명의 연구 인력이 증원되었다. 이때의 직제 개편은 제도적으로는 팀제를 도입하고 내용적으로는 홍보 출판 업무와 한국어 교육 업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서장이 총괄하던 조직을 세부 팀으로 나누어 팀장, 부장, 원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체계로 바꾸었는데 이는 기존에 연구원 개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던 방식에서 팀 위주의 공동 업무 추진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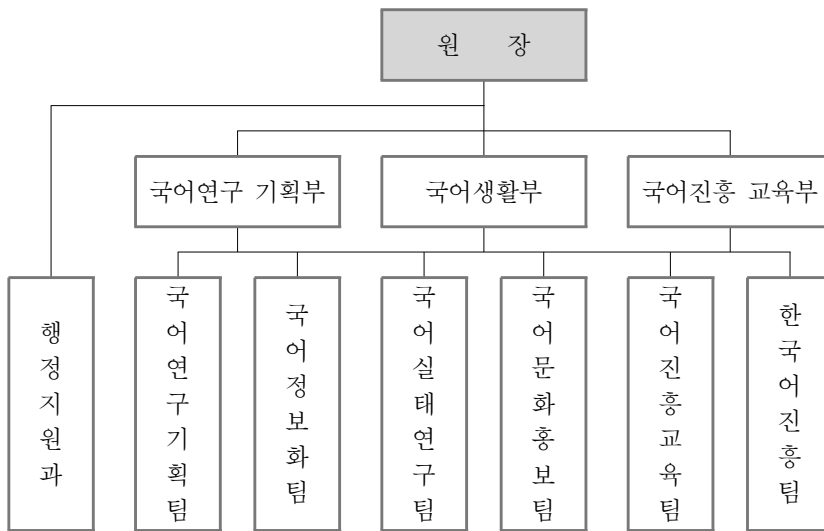
[표 1-4] 국립국어원 조직도(2007년도)



2008년 2월 29일에 대통령령 제20676호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직무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서 ‘정책

개발' 대신 '사업 추진과 연구 활동'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3월 6일에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관리과'는 '행정지원과'로, '언어정책부'는 '국어연구기획부'로, '국어정책팀'은 '국어연구기획팀'으로, '홍보출판팀'은 '국어문화홍보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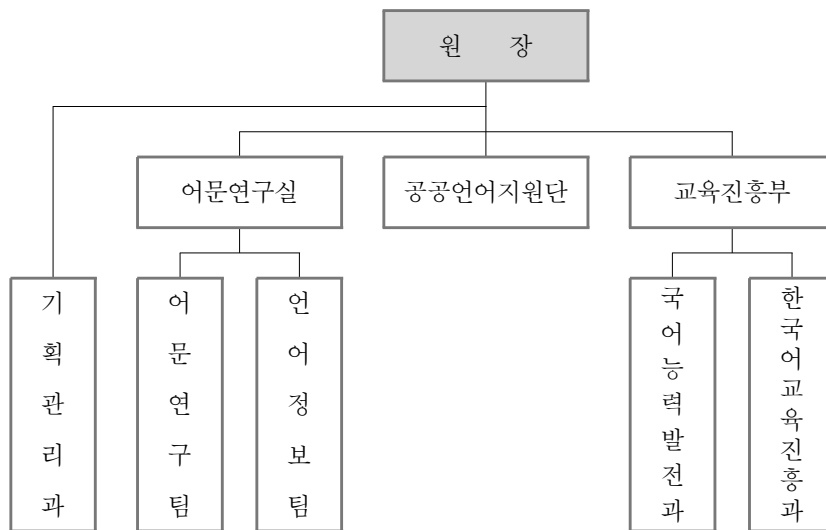
[표 1-5] 국립국어원 조직도(2008년도)



2007년에 이어 2009년에도 비교적 큰 폭의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2009년 4월 17일 대통령령 제21423호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직제가 대폭 개편되어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하는 정책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되돌아갔고 국립국어원장의 자격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변경되었고 공공언어지원단장, 교육진흥부장의 자격 또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연구직 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 조직은 '국어연구기획부'가 '어문연구실'로, '국어생활부'가 '공공언어지원단'으로, '국어진흥교육부'가 '진흥교육부'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2009년 5월 4일에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호에 좀 더 구체화되어 ‘행정지원과’는 ‘기획관리과’로, ‘국어연구기획팀’은 ‘어문연구팀’으로, ‘국어정보화팀’은 ‘언어정보팀’으로 이름과 기능이 변경되었다. 또한 ‘국어진흥교육팀’은 ‘국어능력발전과’로, ‘한국어진흥팀’은 ‘한국어교육진흥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정책 기능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국립국어원 소속의 학예연구관 1명과 학예연구사 3명의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로 이체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정책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환원되면서 발생한 것이지만 국립국어원의 기능 재편과 인사 교류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에 유지되던 3개의 부서가 ‘실, 단, 부’로 재편되고 국어문화홍보팀이 폐지되었으며 4명의 학예연구직 정원이 국어민족문화과로 옮겨가고 국립국어원의 연구 부서에 행정직이 배치됨으로써 학예직과 행정직 간의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2009년 9월부터 한국어교육진흥과장으로 서기관이 임명되고 국어능력발전과에 행정사무관이 배치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에서는 국어 업무의 대부분을 국립국어원 출신 학예연구직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표 1-6] 국립국어원 조직도(2009년도)



2010년 2월 11일에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주사 1명이 증원되었다.

[표 1-7] 국립국어원 정원표(2010년도)

국립국어원 공무원 정원표(2010년)	
총 계	45
일반직 계	3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행정주사	3
전산주사	1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1
공업서기	1
학예연구관	4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학예연구사	4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5
기능직 계	8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
기능10급 방호원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246호, 2010. 6. 30. 일부 개정]

제5장 국립국어원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한다.

제37조(원장)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어문연구실·공공언어지원단 및 교육진흥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 기관 또는 보좌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제39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연구
3.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 자원 구축·관리

4.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5.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 [전문개정 2009.4.17]

제40조(공공언어지원단) ① 공공언어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언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
3.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
4.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

[전문개정 2009.4.17]

제41조(교육진흥부) ① 교육진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진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2.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어 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4.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6.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 개정 2009.4.17]



초대·2대
안병희 원장
(1991. 1. 10. ~
1994. 12. 31.)



3대
송민 원장
(1995. 1. 8. ~
1997. 1. 6.)



4대
이익섭 원장
(1997. 1. 7. ~
1999. 1. 6.)



5대
심재기 원장
(1999. 1. 22. ~
2001. 1. 21.)



6대
남기심 원장
(2001. 1. 22. ~
2006. 1. 21.)



7대
이상규 원장
(2006. 1. 27. ~
2009. 1. 23.)



8대
권재일 원장
(2009. 4. 13. ~)

[그림 1-1] 역대 원장 사진

3) 기능의 변천

국립국어연구원의 창립 이후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관리 기능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사전,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한국어 교육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어 왔다.

초창기인 1990년대에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에 국어연구원의 역량이 집중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을 위해 ‘사전 편찬실’이 설치되었다. 이 당시 사전 편찬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이 국어연구원 인력과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 사업의 비중이 막대했다. 국어사전은 어문

규범을 근간으로 하는 국어연구원의 사업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사전 편찬 과정에서 규범과 관련된 내용이 결정되고 정비되었으며 어문 규범 외에도 북한어, 문법, 방언, 어휘, 국어 정보 처리, 말뭉치 구축과 관련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고 연구 역량이 강화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어문 규범의 준거인 동시에 국어 문화의 총체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국가가 직접 어문 규범의 준거를 제시하여 언어생활을 표준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비교적 일찍이 전자사전의 형태로 개발이 되어 인터넷 웹 사전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전자수첩, 인터넷 포털은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국어사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림 1-2] 국립국어연구원 현판식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안병희 국립국어연구원 초대 원장 1991. 1. 23.

사전 편찬이 끝난 2000년부터 어문 규범, 남북 언어 통합, 국어 정보화, 지역어 보존과 같은 사업이 중심이 된 것은 사전 편찬 과정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사업은 사전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어문 규범의 관리 및 보급, 한민족의 언어 표준화, 남북 언어 통합, 한국어 세계화, 국어 정보화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표준국어대사전”

을 통해 규범이 어느 정도 확립되면서 국어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위한 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언어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언어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언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수요자를 고려하는 국어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국가 수준의 거시적인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국민의 국어 생활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까지 언어 정책 수립과 집행을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대변하는 것이 2004년 11월 11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이었다. ‘연구’라는 단어를 기관명에서 제외한 것은 연구 영역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 방향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국립국어원의 직무를 규정한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기존의 ‘조사 연구 업무’ 위주에서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2004년 11월 30일 그때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수행하던 국어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국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좀 더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정책 연구에서부터 수행 기능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국어 정책의 환경 변화에 따라 그동안 어문 규범과 사전에 집중되었던 정책 과제 또한 변화하게 되어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어 보급이라는 과제가 중심 과제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특히 한국어 보급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한류 열풍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활발하게 진행되어 ‘세종학당’ 사업으로 본격화되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새터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과제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 당시에 국어원은 조직을 세 개의 부서에서 여섯 개의 팀으로 재편하고 홍보 대사를 임명하고 홍보 출판을 강화하는 등, 양적인 팽창의 변화

를 겪게 된다. 2008년에는 “표준국어대사전”이 웹 사전으로 개정되어 발표되었다. 이 무렵에 국립국어원의 직무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서 ‘정책 개발’ 대신 ‘사업 추진과 연구 활동’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국립국어원의 대외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5월에 정책 기능이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국립국어원의 기능과 조직이 개편되었다. 국립국어원은 크게 어문연구실, 공공언어지원단, 교육진흥부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있던 3개 부서의 체제를 이어받은 것이었지만 이전과는 기능상 차이가 있었다. 어문연구실은 국어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언어지원단과 교육진흥부는 사업 수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 조직 개편에서는 공공언어에 대한 지원 강화와 문화체육관광부 민족문화과와의 인적 교류가 중요시되어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직이 민족문화과에서 근무하고 국립국어원에는 기존의 학예연구직이 배치되던 자리에 행정직이 배치되는 순환 근무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현재의 체제는 국립국어원의 직무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구 활동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한 정책 결정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고 국립국어원은 그러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적 체계가 된 것이다. 앞으로도 이 두 가지 영역을 어떻게 조화해 나가느냐가 국립국어원의 방향 설정과 관련된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조직 개편 이후로 추진된 주요한 사업으로는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편찬 사업을 들 수 있다.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은 기존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벗어나 국어 지식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이다. 여기에 한국어 학습을 위한 외국어 사전이 덧붙는데 이 사전은 편찬 방식에서도 일반인 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위키피디아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은 국립국어원이 규범의 관리뿐 아니라 국어와 관련된 지식을 관리하는 주체로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3. 예산과 청사

1) 예산

국립국어원의 예산은 1991년 출발 이후 사업의 확장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는 민간 보조 사업을 포함한 국어 정책 기능을 이관받으면서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다. 그후로도 한국어 교육, 지역어 조사, 국어 실태 조사 등의 신규 사업이 추가되면서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다. 2009년에 민간 보조 사업과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다시 돌아가면서 23억 원 가량의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2010년부터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사업이 시작되면서 예산이 다시 증가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 초창기에는 주로 “표준국어대사전” 사업 예산이 대부분일 정도로 주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어문 규범 정비와 보급, 국어 실태 조사, 지역어 조사, 국어 능력 향상, 한국어 교육, 국어정보화 분야 등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별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되었다. 예산의 구성은 주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외부의 연구 기관 등에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정책 기능을 수행하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민간 보조 사업의 예산도 책정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2010년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7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1-8] 국립국어원 예산(2010/2011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
○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7,385	9,338
- 국어 진흥 연구 및 개발	989	793
- 국어교육 진흥 및 여건 조성	1,470	1,616

구 분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
- 청사 관리 운영	948	965
- 한국어 교원 양성 및 교육 자료 개발	1,466	1,393
- 국어 문화유산 자료 구축	679	571
-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구축	1,833	4,000
○ 국립국어원 정보화	716	680
- 언어 정보 자원 통합 관리	716	680
○ 기본 경비	407	404
○ 인건비	2,362	2,493
합 계	10,870	12,915

2) 상징 도안

2004년 11월 11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국립국어원’으로 기관의 명칭이 바뀌고 정책 기능 강화되는 등 업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관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상징 도안을 개발하였다.



[2002년~2005년]



[2005년~현재]

[그림 1-3] 국립국어원 상징 도안

3) 청사

1991년 1월 23일, 국립국어연구원의 현판식이 열린 곳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24-7(구 덕성여자대학교 별관)’이었다. 국립국어연구원은 운니동 청사에서 일 년 남짓을 지내다가 1992년 3월 18일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

충동 2가 산 14-67(지금의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으로 이전하였다. 장충동 청사는 옛 국악고등학교 건물로, 건물의 구조가 가로로 길고 운동장이 앞에 있었다. 장충동에서는 이 년 정도 있다가 1994년 6월 4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덕수궁 석조전 서관(지금의 덕수궁 미술관)’으로 이전하였다. 덕수궁 석조전 서관에서는 문화재 관리국(지금의 문화재청)과 함께 청사를 사용하였는데 사전편찬실이 위치해 있던 1층은 지상보다 약간 낮아서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못했고 유서가 깊은 건물이었던 만큼 시설이 낡은 편이었다. 청사 이전이 잦았던 것은 국립국어연구원이 독립된 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외부의 여건이 변화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덕수궁 청사에서 지금의 덕수궁 미술관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에 시달리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한국연구재단 청사에 국립국어연구원의 독립 청사를 마련하기로 하였지만 시설 안전 문제로 인해 백지화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강서구 방화동에 독립 청사를 마련하여 2000년 8월 7일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나화로 154’에 이주하였다.

현재의 국립국어원 청사는 총 공사비 18,542백만원의 예산으로 1996년에 착공하여 2000년에 완성하였으며 지하 2층, 지상 7층(대지 1,000평, 연면적 4,502평)의 규모로 국립국어원 외 3개의 기관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지하에는 주차장과 기계실 등이 자리잡고 있고 1층에는 안내실과 강당이 있으며 중간 층에는 국어문화학교 사무실과 강의실 등이 있다. 국립국어원 사무실은 주로 2층에 있으며 3층에는 자료실과 문화학교 강의실이 있다. 6층에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이 있고 7층에는 언어정보팀 사무실과 식당,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옛 청사: 충로구 윤니동 덕성여대 별관: 1991. 1.~1992. 3.



옛 청사: 중구 장충동 옛 국악고등학교: 1992. 3.~1994. 6.



옛 청사: 중구 정동 덕수궁 석조전 서관: 1994. 6.~2000. 8.



국립국어원 현 청사 2000. 8.~



1층에 있는 세종 대왕상

[그림 1-4] 국립국어원 역대 청사

[표 1-9] 국립국어원 청사 현황(2010년도)

구분	입주 기관 및 시설	면적(m ²)
지하2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2,282.44
지하1층	주차장, 송풍기실	1,916.31
1층	강당(160석), 중앙감시실, 당직실, 기사대기실	1,027.86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자료실, 특수자료실	237.51
중1층	세미나실, 문화학교사무실, 문서고	601.53
2층	국립국어원사무실	1,530.27
3층	국립국어원자료실	470.36
	국어문화학교 강의실	16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94.91
4층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530.27
5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530.27
6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01.36
	한국어세계화재단	155.26
	국어생활종합상담실	73.65
7층	국립국어원 사무실, 식당, 체력단련실	1,130.03
옥 탑	물탱크실, 승강기조정실	172.52

4. 간추린 해적이 □

국립국어원의 역사는 1991년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1년 이전의 국어연구소 시기(1984년~1991년), 국립국어연구원 시기(1991년~2004년), 그리고 국립국어원 시기로(2004년~) 나눌 수 있다.

- 1984년
 - 1. 21. 학술원 인문과학부 제2 분과회에서 국어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협의하여 학술원 내에 비공식 기구인 국어연구소 설치
 - 2. 25. 제2 분과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 시안 및 사업 계획안을 작성
 - 3. 3. 학술원 임원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안)을 심의 통과
 - 3. 9. 국어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 3. 16.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국어연구소 규정 통과 및 초대 연구소 소장으로 김형규 학술원 원로 회원을 선임하고 연구소 사업 세부 계획 확정
 - 4. 21. 전임 연구원 4명 및 조사원 6명을 공개 선발
 - 4. 26. 문교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 및 사업비 1억 4,462만 원 보조
 - 5. 10.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해양회관에서 개소

- 1985년
 - 2월 ~ 문교부의 위촉으로 맞춤법 개정안 작성 작업 시작

- 1986년
 - 1. 7. 외래어 표기법을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공표
 - 3. 16. 초대 김형규 소장, 제2대 소장에 취임
 - 5. 30. 외래어 표기법(1986년 1월 7일)의 원칙에 따른 표기를 제시하고, 관용어의 범위와 용례를 정하여 제시한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 인명)” 발간

- 1987년
 - 3. 30. “외래어 표기 용례집(교과용 도서 수정용)” 발간

■ 1988년

- 1. 19.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및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 88-2호) 고시.
- 3. 15. 제2대 김형규 소장 퇴임
- 3. 16. 이기문 교수(서울대), 제3대 소장에 취임
- 8. 30. “외래어 용례집(일반 용어 편)” 발간

■ 1990년

- 1. 3. 정부조직법의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 1990년 1월 3일)에 따라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국어연구소 소속 변경
- 4. 1. 제3대 이기문 소장 퇴임
- 4. 2. 안병희 교수(서울대), 제4대 소장에 취임
- 11. 14. 대통령령 제13163호를 근거로 국립국어연구원 직제(서무과, 연구 1부, 연구 2부, 연구 3부의 기구로 정원은 35명 규모)가 확정
- 12. 31. 제4대 안병희 소장 퇴임
- 12. 31. 국어연구소 해체

■ 1991년

- 1. 10. 안병희 교수(서울대), 초대 국립국어연구원장에 취임
- 1.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24-7(구 덕성여자대학교 별관)에서 개원
- 2. 2.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 전화인 ‘가나다전화’(전화: 02-771-9909) 개통

■ 1992년

- 1. 1.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착수

- 3. 18.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14-67로 이전
- 11. 27. 동구의 5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확정, 고시(문화부 고시 제 1992-31호)

- 1993년
 - 1. 10. 초대 안병희 원장, 제2대 원장에 연임

- 1994년
 - 5. 4. 문화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4249호)에 따라 연구 1, 2, 3부가 각각 어문규범연구부, 어문실태연구부, 어문자료연구부로 명칭이 바뀜
 - 6. 4. 덕수궁 석조전 서관(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으로 이전
 - 12. 31. 제2대 안병희 원장 퇴임

- 1995년
 - 1. 18. 송민 교수(국민대), 제3대 원장에 취임
 - 3. 16. 스웨덴어 등 북구의 3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확정, 고시(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
 - 8. 31. 문화체육부, 일본어 투 생활 용어 702개 순화 확정, 고시

- 1997년
 - 1. 6. 제3대 송민 원장 퇴임
 - 1. 7. 이익섭 교수(서울대), 제4대 원장에 취임
 - 2. 15. 문화체육부, 일본어 투 생활 용어 377개 순화 확정, 고시

- 1999년
 - 1. 6. 제4대 이익섭 원장 퇴임
 - 1. 22. 심재기 교수(서울대), 제5대 원장에 취임
 - 10. 패션 디자인 용어 순화 확정, 고시(문화관광부 고시 제 1999-27호)
 - 10.~11. 표준국어대사전”(상, 중, 하권) 발간

- 2000년
 - 7. 7. 국립국어연구원이 로마자 표기법 개정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고시(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 8. 7. 현재의 청사(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로 이전

- 2001년
 - 1. 21. 제5대 심재기 원장 퇴임
 - 1. 22. 남기심 교수(연세대), 제6대 원장 취임

- 2004년
 - 11. 1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 18588호 2004. 11. 11.)에 의해 국립국어원으로 명칭 변경. 기획관리과, 언어정책부, 국어생활부, 국어진흥부로 구성
 - 11. 30. 문화관광부에서 국어 정책 업무 국립국어원으로 이관. ‘한국어 해외보급 지원’,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특수언어표준화’, ‘한글날 행사’, ‘자연어검색 갈래사전 발간’ 등의 사업 주관

■ 2005년

- 1. 27. 국어기본법 공포(법률 제7368호)
- 8. 국립국어원 상징 도안 제정

■ 2006년

- 1. 25. 제6대 남기심 원장 퇴임
- 1. 27. 이상규 교수(경북대), 제7대 원장에 취임
- 6. 국립국어원 ‘업무 편람’ 작성

■ 2007년

- 1. 11. ‘세종학당’ 설립 계획 발표
- 3. 30. ‘국어 발전 기본 계획’ 발표
- 5. 22. 국립국어원 직제 개정. 언어정책부와 국어생활부, 국어진흥교육부에 각각 국어정책팀·국어정보화팀, 국어실태연구팀·홍보출판팀, 국어진흥교육팀·한국어진흥팀의 6개 팀을 신설

■ 2008년

- 3. 6. ‘기획관리과’는 ‘행정지원과’로, ‘언어정책부’는 ‘국어연구기획부’로, ‘국어정책팀’은 ‘국어연구기획팀’과 ‘국어정보화팀’으로 변경되었으며, ‘국어진흥교육부’는 그대로 유지됨.(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 8. 15. “훈민정음” 한국어·영어 판 발간
- 10. 4. “훈민정음” 중국어 판, 베트남어 판, 몽골어 판 발간
- 10. 8.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 개통

■ 2009년

- 1. 26. 제7대 이상규 원장 퇴임
- 4. 13. 권재일 교수(서울대), 제8대 원장에 취임
- 5. 2. 국어 정책 기능 국립국어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어문연구실, 공공언어지원단, 교육진흥부로 직제 개편
- 5. 28. 표준어 규정 위헌 소송 기각 및 각하 결정
- 6. 24. ‘세종 사업’ 계획 발표
- 11. 4. 점자 학습 누리집 ‘점자 세상’ 개통(국어원 누리집)

■ 2010년

- 1. 27.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구축 시작
- 3. 22. ‘국어생활종합상담실(대표 전화: 1577-9979)’ 개소
- 10. 22. “훈민정음” 러시아어 판 출판 기념회 개최(모스크바)
- 12. 7.~8.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 학술 대회 개최

02 어문 규범의 관리

1.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정비

국립국어원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어문 규범’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1988년에 제정되었다.

1988년의 어문 규정은 이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민간의 규정이었던 것에 비해 국가가 직접 제정에 관여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정된 어문 규정의 연구와 보급을 국립 국어 연구 기관에서 수행하게 된 것은 국어 생활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어문 규범 정비를 위한 노력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1971년, 정부에서는 국어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허웅)를 구성하여 표준말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어조사연구위원회는 실태 조사를 거쳐 2만여 개의 어휘를 선정하고 1977년, ‘제1장 총칙, 제2장 소리의 넘나듦, 제3장 뜻이 같거나 비슷한 말, 제4장 닿소리의 덧남, 줄, 바뀜, 제5장 긴 소리’로 구성된 표준말 사정안을 확정했다. 이 사정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표준말은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1978년 12월 16에 문교부가 발표한 어문 관계 4개 개정 시안은 이후 어문

규정 정비 작업의 기초적인 틀이 되었다. 이 시안에서는 표준어를 “표준말은 현재 서울 지역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의하였으며 널리 쓰이는 두 단어 이상을 복수로 인정하는 ‘복수 표준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안을 이관받은 학술원에서는 1982년 1월에 어문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1984년 8월에 학술원이 마련한 어문 관계 3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 개정안은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을 포함한 것으로 ‘편의성’을 고려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문교부에서는 학계와 언론계 등 국민의 여론을 다시 수렴하기 위해 1985년 2월에 국어연구소에 ‘맞춤법 개정안’의 검토를 위촉하였다.

1985년부터 국어연구소는 이 시안을 검토하여 1987년 4월에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가칭) 개정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1979년에 발표된 국어심의회 안과 1984년에 제출된 학술원 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며, 1986년 7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 시안을 바탕으로 국어연구소는 1987년 9월 최종적인 표준어 사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어대사전”과 “새한글사전”에서 공통된 것 또는 국어심의회 안(1979년)과 국어연구소 안(1987년)의 어휘를 우선 채택하였다. 문교부는 1988년 1월 19일에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88-2호)을 확정 고시하였다. 이 개정안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교과용 도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1989년에, 고등학교는 1990년에, 대학 입시에는 1993년부터 적용되었다. 이로써 약 20년에 걸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한글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전면적인 개정이라 하기보다는 부분적인 보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었지만 언어생활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문자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은 이상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시대와 언어 변화에 따라 필

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복수 표준어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언어생활의 수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언어 현실에 좀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은 비교적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새롭게 ‘표준발음법’이 추가된 것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를 통해 겹받침의 발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외,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의 발음 또한 현실에 가깝도록 조정되었다.

[표 2-1] 한글맞춤법(1988년)과 한글맞춤법통일안(1933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내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통일안
체제	본문 6장 57항 부록(문장부호)	총론, 각론 7장 63항 부록(표준말, 문장부호)
원칙	제1장 총칙	총론
맞춤법	제1항	1.
띄어쓰기	제2항	3.: 토에 대한 언급
외래어 표기	제3항 <외래어 표기법>으로	각론 제60항: 원칙 제시 각론
한글 자모	제2장 자모	제1장 자모
자모	제4항: 수, 순서, 이름 ※사전에 올릴 적의 순서 명시	제1항: 수, 순서 제2항: 이름
소리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2장 성음에 관한 것
된소리	제1절 된소리 제5항: 된소리 환경 구분 구체화	제1절 된소리 제3항: 환경 구분 안함.
구개음화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구개음화 인정	제3절 구개음화 제5항 [붙임1]과 일치
‘ㄷ’ 소리 받침	제3절 ‘ㄷ’ 소리 받침 제7항: 관용의 인정, 유형 구분 안함.	제6항: 관용의 인정, 유형 구분
모음	제4절 모음 제8항: [꺨, 꺼]→‘꺨’ 제9항: [니, 이]→‘니’	제4장 한자어 제36항: ‘꺨’ 제39항: [의, 회]

구분 내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통일안
두음 법칙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ㄴ] 제11항: [ㄹ] 제12항: [ㄴ]	제42항: [ㄴ] 제43항: [ㄹ] 제44항: [ㄴ]
겹쳐 나는 소리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낱말 안에서의 음절의 중복	*
형태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체언과 조사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구별하여 적음	제1절 체언과 토 제7항: 원형을 밝혀 적음
어간과 어미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구별하여 적음 cf. ‘-오’와 ‘-요’ 포함	제2절 어간과 어미 제8항: 구별하여 적음
어미 ‘-아/어’, ‘-요’	제16항: ‘-아’와 ‘-어’의 구별 제17항: 어미 뒤의 ‘-요’	* *
불규칙 용언	제18항: cf.18.4의 ‘ㄱ, ㄴ’가 줄어들 적 보완 ※18.6 단음절 어간 뒤의 ‘-아’만 ‘-와’로, 그 밖에는 모두 ‘-워’	제10항
파생 명사, 파생 부사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이’, ‘-음/ㅁ’, ‘-이/히’ cf.19.4[붙임]	제6절 어원 표시 제12항: ‘-이’, ‘-음’, ‘-이’ 제13항: ‘이’, ‘음’ 이외의 모음
명사+‘-이’	제20항: 부사와 명사로 구분 cf.[붙임]	제14항: 품사 전환 여부로 구분 제15항: ‘-이’ 이외의 접미사
자음 접미사	제21항: 명사와 어간의 경우 구분	제16항: 명사와 어간 경우 구분
피·사동, 강세 접미사	제22항: 접미사의 기능 구분 안함 22.1 ‘다만’ 규정: 어원에서 먼 것	제9, 17, 18, 19, 20항: 유형별로 구분 제25항: 용례 많음
‘-하다, -거리다’	제23항: ‘-하다, -거리다’→‘-이’ 파생 명사 cf.[붙임]‘-하다, -거리다’가 붙지 못하는 것	제21항 2. cf 1은 부사 제22항 유형별로 구분
‘-이다’	제24항: ‘-거리다’→‘-이다’	제24항: ‘-이다’
‘-이/히’	제25항: ‘-이/히’ 부사	제21항 1. cf 2는 명사임
‘-하다, -없다’	제26항: 1. ‘-하다’ 26.2. ‘-없다’	제23항: ‘-하다’만 제27항 [붙임]: ‘-없다’

구분 내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합성·파생어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7항: 합성어, 접두 파생어의 원형 cf.[붙임3]‘이(齒, 虱)→니’	제7절 품사 합성 제28항: [붙임3]의 ‘이(齒, 虱)→니’는 없음
‘ㄹ’ 탈락	제28항: ‘ㄹ’→∅	제29항: ‘ㄹ’→∅
‘ㄹ’→‘ㄷ’	제29항: ‘ㄹ’→‘ㄷ’	*
사이시옷	제30항: 순 우리말 합성어, 순 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 두 음절로 된 한자어(6개만) ㄱ.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제30항: 뒷말의 끝소리가 모음일 때에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 사용
‘ㅂ’, ‘ㅎ’	제31항: ‘ㅂ’이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	제31항
모음 탈락	제5절 준말 제32항: 단어 끝 모음 탈락→앞 음절의 받침	제52장 준말 제52항
모음 축약	제34항: ‘ㅏ, ㅑ’+‘-아/어’, ‘-았/었-’ cf.[붙임1]: ‘애, 예’+‘-어, -었-’ [붙임2]: ‘하여’→‘해’ 제35항: ‘ㅓ, ㅕ’+‘-아/어’, ‘-았/었-’ cf.[붙임1]: ‘놓아’→‘놔’ [붙임2]: ‘외’+‘-어, -었-’ 제36항: ‘ㅣ’+‘-어’→‘ㅟ’ 제37항: ‘ㅏ, ㅑ, ㅓ, ㅕ, -’+‘-이-’ 제38항: ‘ㅏ, ㅓ, ㅕ, -’+‘-이어’ 제39항: ‘잡’, ‘참’ 제40항: ‘하’의 ‘ㅏ’ 탈락→거센 소리로 cf.[붙임1]: ‘ㅎ’을 어간 끝소리로 [붙임2]: ‘하’의 탈락 [붙임3]: 부사의 경우	제56항 2. * * 제56항 2. * * 제56항 4. 제56항 1. ‘-’+‘-이-’ 제56항 3. ‘ㅓ, -’+‘-이어, -이엇’ * 제56항: ‘ㅎ’을 그 자리에 두거나 위 음절의 받침으로 * * 제57항
띄어쓰기	제5장 띄어쓰기	제7장 띄어쓰기
조사	제1절 조사 제41항: ‘명사, 부사’+‘조사’	제61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 포함 cf.‘다만’: 의존 명사 붙여쓰기 허용
의존 명사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띄어 쓴다	*

구분 내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통일안
단위	제43항: 띄어 쓴다 cf. '다만': 붙여 쓰기 허용	제61항: '다만' 제61항 '다만': 띄어쓰기 허용
수	제44항: 만(萬) 단위로	제62항: 십진법에 따라
연결어	제45항: 띄어 쓴다	*
단음절 단어	제46항: 붙여 쓰기 허용	제61항: '다만'
보조 용언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붙여 쓰기 허용	*
성명, 호칭어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쓴다. 호칭어, 관직명: 띄어 쓴다	제63항: 띄어 쓴다
성명 이외	제49항: 붙여 쓰기 허용	제63항: 띄어 쓴다.
전문 용어	제50항: 붙여 쓰기 허용	*
'-이'와 '-히'	제6장 그 밖의 것 제51항: '이'로 발음되는 것만 '-이'로	*cf. 제12항 2. 제14항 1. 제21항 7. 부록 5 참조
본음·속음	제52항: 소리에 따라	제47, 48, 49, 50, 51항
체언과 조사	제33항: 체언과 조사의 축약→준대로 적음	제53항
어미	제53항: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경우와 된소리로 표기하는 경우	보유 첫째: 구분은 따로 하지 않음.
접미사	제54항: 된소리 표기 접미사	*
어휘	제55항: '맞추다, 뺏치다' 제56항: '-더라, -던, -든지'	* 보유 둘째: '-든'으로 통일
동음 이의어	제57항	*
부록	부록: 문장부호	부록: 문장부호
문장부호	규정 보완, 불필요한 부호 삭제	39개 항의 나열

1990년 9월 14일에는 '표준어 규정'의 보완 작업의 일환으로 '표준어 모음(문화부 공고 제36호)'를 발간하였다. 이는 각 사전 간에 보이는 표제어의 발음과 형태의 차이 등을 바로 잡고 국어 생활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었다. 주로 “새 한글사전(한글학회 1965/1986년)”과 “국어대사전(민

중서립, 1982년)”을 검토하였다. ‘표준어 모음’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개정된 규범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준어 사정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규범 가운데는 ‘표준어 모음’에서 비롯한 것이 적지 않을 정도로 실제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할 때 ‘표준어 모음’ 또한 규범을 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폭넓게 활용되었다. ‘표준어 모음’에는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와 해설’을 수록하여 ‘표준어 모음’을 작성한 경위와 기준을 밝히고 있어서 ‘표준어 모음’의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1988년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의 어문 규범이 제정되었음에도 실제 언어생활에서 규범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실제 언어생활의 근거가 되는 국어사전에서는 규범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한글 맞춤법을 비롯한 어문 규범이 원칙과 약간의 예시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단어는 표준어 여부에 대한 사정을 받지 않았던 데 이유가 있었다.

1988년을 기점으로 규범이 개정되었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정비하는 것과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표준어 모음”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표준적인 사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어문 규범의 기준을 제시하여 언어생활의 준거를 확립한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목표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의 규범 제정으로 기틀이 잡힌 어문 규범을 세부적인 면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하면서 동시에 세부적인 규범을 결정해야 했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50만 개가 넘는 표제어 가운데는 기존의 규범에서는 명시되지 않았거나 논의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사항들이 산적해 있었다.

이에 따라 어문 규범을 사전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을 위한 어문 규범 정비 회의(1997. 2.~11.)’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국어사전의 편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규범의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어문 규범을 구체화한다는 면에서 어문 규범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모두 30회 개최된 회의에는 ‘이익섭 국립국어연구원장, 민현식 어문규범연구 부장, 홍재성 교수(서울대), 박양규 교수(성균관대), 서정목 교수(서강대), 채완 교수(동덕여대), 김창섭 교수(이화여대), 최호철 교수(고려대), 안상순 부장(금성출판사)’ 등이 참석하였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문법, 외래어 표기, 발음, 문장 부호’ 등 어문 규범이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그 결과는 사전에 반영되었다. 애초의 목표가 사전의 규범 문제로 시작했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사전에서 문법 형태를 처리하는 방향과 같이 사전 편찬의 세부적인 면까지도 논의가 확대되었다.

일 년간의 회의가 완료된 후에도 이러한 논의는 사전 편찬실을 중심으로 한 규범 관련 회의로 이어져 1998년 한 해 동안 규범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가 보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문 규범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등을 사전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원칙과 설명 방법 등을 찾아낼 수 있었다. 예컨대 전문어는 단어별로 띄어쓰되 붙일 수도 있다는 원칙을 보이는 방법으로 전문어에 ‘^’을 도입하여 ‘자음^동화(子音同化)’와 같이 표시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을 한층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되었으며 규범에 대한 논의가 성숙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규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자연스럽게 어문 규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표준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로 이어졌다. 이에 1997년부터 5년 일정으로 ‘표준어 바로 세우기 작업’을 설정하여 표준어의 원형을 되찾기 위한 조사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발음, 어휘, 문법의 세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서울 토박이말 실태 조사’는 그 첫 번째 작업이었다. 4대째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토박이 3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

는 논란의 소지가 큰 단어 400개를 선정하여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어의 근간인 서울말의 실제 쓰임새와 표준어·표준 발음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국립국어연구원은 응답자를 연령별로 세분화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1999년에 완간된 “표준국어대사전”과 2008년의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 편찬 작업에 반영되었다.

한편, 2001년부터 표준 발음을 정비하고 보급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였다. 이는 발음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표준 발음을 정비함은 물론, 언어별 한국어 발음 학습 교재 개발을 통한 한국어 표준 발음을 보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2001년부터 서울 경기 지역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음 실태 조사가 꾸준히 전개되었다.

2001년에는 401명을 대상으로 170개의 외래어 발음 조사를 실시하여, “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이어 2002년에는 210명을 대상으로 203개의 어휘 발음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준 발음 실태 조사”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2003년에는 350명에게 사전의 발음 형태와 실제 발음 간 괴리를 보이는 어휘 256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표준 발음 규칙과 달리 실제 언어 현실에서는 경음을 많이 사용하며 장음을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학교에서 발음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표준 발음 사전이 2003년 1월에야 비로소 발간될 만큼 표준 발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데에서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국어연구원은 표준어 규정과 실제 발음법에서 생기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중 한 가지 사업이 영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학습 시디(CD)를 제작·배포한 것이었다. 이 시디의 콘텐츠는 한국어 자음과 모음, 소리의 변화, 문장의 종류에 따른 억양 변화를 한국어 화

자의 발음을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받침이 ‘ㄷ, ㄱ, ㅌ, ㄲ’인 단어가 모음 조사와 결합할 때의 발음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1,200명을 대상으로 190개 항목에 대한 발음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I”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이를 통해 단어의 받침에 따른 발음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출신지별로 정리하여 현대 표준어권의 다양한 발음 실태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어 2005년과 2006년에도 조사 목적을 세분화하여 발음 실태 조사가 계속되었고, 언어권별 발음 학습 멀티미디어 제작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2002년에는 ‘문장 부호 세척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지나치게 소략한 문장 부호 규정을 보완하여 국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국어연구원에서는 이미 1996년과 1998년부터 문장 부호 개선안을 논의한 바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문장 부호 규정에 내용을 추가한 ‘문장 부호 세척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언어 현실에서 널리 쓰이는 문장 부호를 도입하는 문제부터 문장 부호 규정의 엄밀성과 명료성 문제, 그리고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문장 부호의 띄어쓰기 문제까지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는 기존의 규정에 세척을 덧붙인 세척안의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002년의 논의는 문장 부호의 공식적인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2010년에 시행된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문화체육관광부)”로 이어져 문장 부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언어 현실에 바탕한 표준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어 생활의 기준이 되는 표준어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표준어사정심의위원회’가 운영되었다. 앞선 1997년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을 위한 어문 규범 정비 회의’가 사전 편찬의 규범 적용에서 규범 전반의 문제까지를 논의하는 것이었다면 이 ‘표준어사정심의위원회’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

시된 규범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즉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누락되었거나 언어 현실이 달라져서 보완이 필요한 것 등을 수집하여 관리함으로써 규범 문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이 일방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던 관성에서 탈피하여, 언중이 적극적으로 언어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표준어사정위원회’는 어문 관련 학자뿐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언론·출판계 인사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이 회의에 참여했던 외부 인사는 아래와 같다.

- 학계: 민현식 교수(서울대), 권재일 교수(서울대), 이호영 교수(서울대), 채완 교수(동덕여대), 이상복 교수(강원대), 신지영 교수(고려대), 강희숙 교수(조선대), 김주필 교수(국민대), 권인한 교수(성균관대), 배주채 교수(가톨릭대)
- 교육 기관: 이인제 본부장(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언론계: 손범규 아나운서(SBS), 여규병 기자(동아일보), 지영서 아나운서(KBS), 강재형 아나운서(MBC), 최재혁 아나운서(MBC), 박현우 아나운서(KBS), 김용수 기자(매일경제), 강영은 아나운서(MBC), 윤영미 아나운서(SBS)
- 사전 전문가: 안상순 부장(금성출판사)

심의 방향 역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표준어사정심의위원회’는 결성 이래, 1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표준어 관련 단어와 표준어의 개념, 새로운 표준어 정책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3년에는 4월, 7월, 11월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표준어 심의가 필요한 100여 단어를 검토하였으며 2004년에도 역시, 4월, 5월, 7월, 10월 4차례에 걸친 표준어 심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

고 2005년부터는 ‘표준 발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발표회도 개최하였다. [발표자: 배주채 교수(가톨릭대), 신지영 교수(고려대)] 특히 기존의 엄격하고 권위적인 표준어 정책에서 벗어나, 표준어가 국어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은 복수 표준어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의 언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국어의 언어적 소통 능력을 확대하는 데 있었다. 정리된 복수 표준어 후보 목록은 2009년에 “표준국어대사전 보완을 위한 어휘 사용 실태 조사”로 이어져서 객관적인 사용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2010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복수 표준어를 확장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간사스럽다’, ‘등물’ 등 35건의 실생활어의 표준어 채택 여부와 ‘택견’, ‘품새’ 등의 한글 표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어문 규범과 언어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표준어사정심의회위원회에서 논의된 목록 분류

1. 음운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1. 자음	
1.1.1. 자음의 변화가 있는 것	군시렁거리다/구시렁거리다, 궁시렁거리다/구시렁거리다, 맹송/맹송/맹송맹송, 어물쩍/어물쩍, 울그락불그락/붉으락푸르락
1.2. 모음	
1.2.1. 모음의 변화가 있는 것	넬름/날름, 노랭이/노랑이, 노릿노릿/노릇노릇, 달콤새콤하다/달콤새큼하다, 땡초/땡추, 맨날/만날, 바둥바둥/바동바동, 복실복실/복슬복슬, 불쌍사납다/불쌍사납다, 빠꼼히/빠끔히, 뽕루통하다/뽕로통하다, 새초롬하다/새치름하다, 아웅다웅/아웅다웅, 오손도손/오순도순, 이크/이키, 파다닥(파드득)/파드닥
1.3. 준말	
1.3.1. 준말 관계	면/무슨, 아무리하다/암만하다, 얼마큼/얼마만큼, 왜냐면/왜냐하면
1.4. 단수 표준어	

1.5. 복수 표준어	
2. 어휘 선택의 확장에 따른 표준어 규정	
2.1. 고어	
2.2. 한자어	
2.2.1. ‘한자어’에서 온 것	거명(擧名)
2.3. ‘비표준어/방언’에서 온 것	
2.3.1. 의미가 달라진 것	나래/날개, 내음/냄새, 눈꼬리/눈초리, 뜨락/뜰, 부비다/비비다, 권/편, 습습하다/심심하다
2.3.2. 어감에 차이가 있는 것	걸리적거리다/거치적거리다, 곱추/뽕추, 꼬적거리다/끼적거리다, 남사스럽다/남우세스럽다(남세스럽다), 사그라들다/사그라지다, 섬찝/섬뜩, 째름하다/째째하다, 어리숙하다/어수룩하다, 잊혀지다/잊히다, 진작에/진작, 진정코/진정
2.3.3. 의미가 다르지 않은 것	곰살맛다/곰살굿다, 귀후비개/귀이개, 꼬리연/꼬빠연, 등물/등목, 탄지/탄죽, 사팔이/사팔뜨기, 실몽치/실몽당이, 갈랫길/갈림길, 널기와집/너와집
2.3.4. 표준어에는 없는 개념	갈웃, 과메기, 피데기, 매생잇국
2.4. 준말	
2.4.1. 준말	
2.5. 순화어	
2.5.1. 순화한 것	나들목, 내려받다/다운로드, 둔치, *참살이
2.6. 전문어	
2.6.1. ‘전문어’와 ‘일반어’의 개념	폼장어(곰장어), 한치, 바닷가재
2.7. 속어	
2.7.1. 속된 말	개기다, 콩치다, 탄짓, 썰렁하다
2.8. 신어	
2.8.1. 기존 개념이 있는 것	거듭나다, 광적(狂的), 기하급수적, 노령화(老齡化)/고령화, 떠내려오다/떠내려가다, 바뀌치다, 바늘, 발빠르다/재빠르다, 버금가다, 복숭아뼈/복사뼈, 붓뚜껑/붓뚜껍, 상용화(常用化), 새아버지, 쓴소리/고언(苦言), 소견서(所見書), 속얇이/속병, 속풀이, 앞다투다/앞서다, 얼굴도장/눈도장, 여유만만하다, 여차저차하다, 요

	상하다/이상하다, 월세방, 입소문, 입점, 자리매김하다, 제맛, 체화(體化), 칩/직, 폭증(暴增), 하나째/첫째, 헛똑똑이
2.8.2. 새로운 개념이 생긴 것	고무밴드, 구립(區立), 교통 카드, 그늘막, 내려받다, 댓글, 뒷좌석, 리콜(recall), 맛탕(마탕), 비밀번호, 실시간, 전화 카드, 쪽방, 충전지, 컵라면, 홈페이지
2.9. 사전	
2.9.1. 사전의 등재 문제	신나다, 일자(日字), -중(重), 집안, 방안, 일반미, 일벌레, 가로채기, 휘청이다, 흑미, 흑염소, 혼잣속, 혐의점, 혀꼬부랑, 향락칠, 빠르기, 합방(合房), 빠르기, 판촉물, 보호대, 특출나다, 통박(통팍), 용가리통뻐, 탈옥범, 탁배기, 칩뜨다(치뜨다)
2.9.2. 사전의 문법 처리 문제	서(조사), 형용사의 동사 활용(맞다/틀리다/상당하다, 건강하세요), 구(舊)[접두/관형사], ‘-거라’불규칙, ‘-느냐/냐’의 교체,
2.9.3. 뜻풀이	부딪치다/부딪히다, 너무, 못하다
2.9.4. 맞춤법	차잔(茶盞)

2. 외래어 표기법 제정 □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에서 차용되어 우리말이 된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방식을 규정한 표기법을 말한다.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말과 음운 구조와 체계가 다른 외국어에서 차용한 외래어의 어형을 통일하여 국어 생활을 표준화하고 편리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1986년 1월 7일 제정·공포된 ‘외래어 표기법’(문교부 고시 제85-11호)을 근간으로 총 21개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이 확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 외래어 표기법 제정 현황

외래어 표기법(1986년 문교부 고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언어와 관련된 표기법
 동구권 5개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1991년 문화부 고시)

- ※ 폴란드어, 체코어, 세르보크로아트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북구권 3개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1995년 문화체육부 고시)
- ※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동남아시아 3개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2004년 문화관광부 고시)
-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타이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2005년 문화관광부 고시)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한 다음 이를 보급하기 위해 설명과 용례를 덧붙인 용례집을 발간하였다.

- 외래어 표기법 관련 발간물

- 외래어 표기 용례집(일반 용어), 국어연구소, 1988
-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 국어연구소, 1988
- 외래어 표기 용례집(동구권 인명·지명), 국립국어연구원, 1993
- 외래어 표기 용례집(북구권 인명·지명), 국립국어연구원, 1995
-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 국립국어연구원, 2002
- 외래어 표기 용례집(인명), 국립국어연구원, 2002
- 동남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 국립국어원, 2004
- 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국립국어원, 2005

그런데 이러한 발간물은 실제로 이용하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최신 정보를 추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기존의 외래어 용례집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한 파일을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2010년 현재, 누리집에 2002년에 발간한 “외

래어 표기 용례집”의 내용을 보완한 ‘일반 용어, 중국 인·지명, 일본 인·지명, 로마자 인·지명’의 파일을 공개하였다.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해서는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 발음의 전사 기호로 오해하여 국어에 없는 외국어 발음을 표시하기 위한 새로운 글자를 제안하는 등의 제안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어 원음에 근거한 중국 지명 표기를 우리 한자음으로 적자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미 제정된 21개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 외에 ‘그리스어, 아랍어, 터키어, 힌디어, 벵골어, 스와힐리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등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의 추가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는 것과 실생활에서 외래어를 이용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외래어 표기법을 실제 언어생활에서 바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래어의 표기를 일관되게 관리할 전문적인 주체가 필요하다. 더욱이 신문, 방송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외국어에 대해 신속하게 일관된 표기를 적용하려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1991년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에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외래어의 표기를 지속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1991년 9월부터 지금까지 14,000여 개의 외국어·외래어의 한글 표기를 결정하였으며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주요 국제 행사가 열릴 때에는 참가국별 선수 명단 등을 결정하여 사전에 언론에 배포하였다. 그동안의 결정 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외래어 표기와 관련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속하게 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 로마자 표기법 개정

1972년 문교부가 발간한 “대한민국 주요 지명 일람표”와 “대한민국지도”는 그간 혼란을 겪고 있던 지명(地名)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심의회 외래어분과위원회가 1959년에 제정했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었지만, ‘대구’를 ‘DAEGU’ 또는 ‘TAEGU’로 쓰는 등 실제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혼동은 상호 간의 정보 교류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문교부는 1978년에 마련한 어문 관계 4개 개정 시안에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을 포함하였다. 이 개정 시안은 표기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현행 표기법이 한글 맞춤법을 그대로 로마자화하도록 했던 것을 완화하여 원어로의 환원성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원칙은 국어 표준 발음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1982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의 통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널리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1982년 10월, 문교부는 1978년에 만들었다가 공포를 유보해 둔 4개 어문 관계 표준안 중 로마자 표기법을 그 해 말에 확정 공포하기로 하였다. 이미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대비하여 로마자 표기법의 표준 시안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다. 이 시안은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문교부 안(전자법)과 매칸 라이샤워 안(표음법)의 장점을 합쳐 만든 절충안이었다. 그리하여 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은 1983년 11월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12월에 문교부령으로 공포, 이듬해인 1984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문교부가 1984년 1월 정식으로 발표한 새로 고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종래의 전자법 대신 우리말의 표준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한 것이었다. 이 표기법은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던 인명 표기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여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도록 했고, 이름 사이에는 짧은 줄표(-)를 넣게 하였다. 또한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의 표기는 국제 관례 및 종래의 관습적 표기를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용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컴퓨터 등을 이용한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한글의 로마자 표기 문제가 다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그때까지 이용되던 1982년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자음의 어깨점(˙)과 모음의 반달표(◌)는 컴퓨터 자판에 없어 입력과 검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수 부호를 생략하거나 무시하고 무원칙한 표기를 남발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같은 ‘ㄱ, ㄷ, ㄴ, ㅈ’을 유성음일 때와 무성음일 때를 구분하여 적도록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칙이었다. 또한 컴퓨터 키보드의 글자판이나 한글 코드가 각 회사의 제품마다 서로 달라 사용자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었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한 간에도 서로 달라 표준 규격 제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였다.

1984년에 정부의 공식적인 표기법으로 공포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반달표와 어깨점 등 특수 기호 때문에 컴퓨터에 쓰기 어려웠고 낯선 기호를 외국인도 알아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립국어연구원은 로마자 표기법의 개정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1996년 12월에는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 관련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타이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같은 시기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과거 주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국내 인명 및 단체의

로마자 표기 사례, 그리고 외국의 한국 지명과 인명에 대한 표기 사례가 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수록되었다.

1997년 2월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11명이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5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어 5월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6월에는 이에 대한 국어심의회 표기법분과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1999년 4월에는 전문 학자 6명으로 구성된 ‘로마자 표기법 개정 소위원회’가 조직되어 모두 11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어 6월에는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었으며, 전문가 283명과 일반인 4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0월 18일에 개정 시안을 확정하고, 11월 19일에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가장 큰 불편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반달표(ˆ), 어깨점(˘) 등의 특수 부호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10개 주요 도시에서 공개 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월에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2월에는 대전, 제주, 춘천, 3월에는 청주, 인천, 울산에서 토론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이어 4월부터 6월까지는 서울에서 직능별·단체별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로마자 표기법 개정 소위원회를 열어 공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4월 22일에 제12차 소위원회가 열렸으며, 4월 28일과 5월 2일에 관련 단체 설명회 및 행정 기관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5월 12일에는 외국인 대상 공개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5월 13일에는 제13차 소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이어 5월 23일에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5월 27일과 6월 3일에 국어심의회 표기법분과위원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확정되어, 문화관광부는 2000년 7월 7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2항에 의해 ‘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0-8호'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고시하였다.

[표 2-3] 주요 로마자 표기법 대조표

표기법	원칙	자음		모음		기타
		ㄱ, ㅋ, ㆁ	ㅈ, ㅊ, ㅉ	ㅏ, ㅓ	ㅗ, ㅛ	
1939년 MR 안	전사	k/g, k', kk	ch/j, ch', tch	ö	ü	구별 부호 사용 자음의 유·무성 구별
1948년 문교부	절충	k/g, kh(k'),gg	ch/j, chh, dch	ö	ü	구별 부호 사용 자음의 유·무성 부분적 구별
1959년 문교부	전자	g, k, gg	j, ch, jj	eo	eu	단모음 표기에 2자 사용
1984년 문교부	전사	k/g, k', kk	ch/j, ch', tch	ö	ü	구별 부호 사용 자음의 유·무성 구별
2000년 문화관광부	전사	g/k, k, kk	j, ch, jj	eo	eu	단모음 표기에 2자 사용 자음을 음운 환경에 따라 구별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한 로마자 표기법 홍보 사업을 전개하였다.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은 우리나라 주요 지명과 문화재명 약 8,000여 항목에 대한 로마자 표기를 수록한 것으로, 행정구역명, 자연지명, 교통 관련 지명, 문화재, 역사 지명 관련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 항목들은 종전의 표기법과 개정된 표기법의 대조표 형식으로 작성하여 독자들이 수정 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월간 “로마자 표기법 소식”을 발간·배포하여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을 홍보하였다.

2001년에는 성씨 로마자 표기에 관한 조사와 회의가 거듭되어, 6월과 8월에 성씨 로마자 표기에 관한 공개 토론회 및 여론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 3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2월에는 국어심의회 표기법분과 회의가 개최되었다.

2002년에는 국내 주요 기관 및 단체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로마자 표기 준수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로마자 표기 홍보 조건표 ‘Korean Romanization’을 제작·배포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정부 각 기관의 영문 누리집을 대상으로 로마자 표기법 준수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

2004년에는 2001년 이후 간행된 해외 홍보용 책자 및 국내외에서 발간된 지도, 백과사전, 한국 안내 책자 등을 대상으로 로마자 표기 준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에 대한 로마자 표기 관련 국어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를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Goguryeo’로 적되 국제 관계상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Koguryo’를 병기할 수 있도록 확정하였다.

한편, 성씨에 대한 로마자 표기가 서로 달라 혼란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9년 6월에는 인명의 로마자 표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0년에 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도로 표지판 등 지명 표기의 표준화는 상당히 진행된 반면, 인명의 경우에는 2001년 1차 시안을 마련할 때, 예외 허용 범위와 관련한 논란으로 논의가 답보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후 2002년을 끝으로 그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다가 2009년에 성씨 로마자 표기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2009. 6. 25.)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성씨 표준 표기안 마련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4.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영향 평가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는 국어기본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어문 규범 영향 평가’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어문 규범 영향 평가’는 2009년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2010년에는 외래어 표기법이 시행되었고 2011년에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한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표 2-4]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의 법적 근거

국어기본법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2008년 10월 20일 일부 개정)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사용의 변화 정도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연령·성·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영향 평가의 목적은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2000년에 만들어진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끼친 영향을 측정하고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나 인지도와 수용도를 점검하여 로마자 표기법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는 발음, 표기와 수용도, 해외 사례 그리고 국내외 적용 사례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발음, 표기와 수용도 조사는 2010년 4~5월 중 외국인 440명(재외 220명 그리고 재한 220명) 그리고 내국인 200명, 총 6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외국인은 11개의 언어별로 구성되었고 내국인은 일반인 40명과 언어 전공자,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평가에서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국내외의 수용 태도와 인식 방법을 조사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부가적으로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거나 개정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추정하고 로마자 표기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외래어 표기법 영향 평가’는 역대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국민(일반인,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주요 선진국과의 규범 운용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규정의 형식, 운용 및 용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 또한 국어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문 규범 영향평가제’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어문 규범은 대부분 1980년대에 정비된 것으로 그동안의 언어 환경과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범 정책의 제도 개선 여부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표준어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2006. 5. 23.)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문 규범에 대한 영향 평가는 앞으로의 규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진행된 ‘외래어 표기법 영향 평가’에서는 외래어 표기 일반 규정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 설문 조사와 1986년 표기법이 고시된 영어,

독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언어에 대한 외래어 표기 규범(규정 및 용례)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주요 국가의 관련 규범 관리 실태 조사 및 비교, 외래어 표기 현황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덧붙여 영향 평가에는 현행 표기 규정의 법적 지위(장관 고시)가 지니는 효율성 조사 및 대안 모색, 외래어 표기법의 명칭 문제, 관용 표기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 범용 외래어 표기법 개발 가능성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는 규범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 효율적인 외래어 표기 정책을 설계하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5. 표준 화법 정비 □

‘표준 화법’이란 ‘언어 예절’로 대표되는 언어 사용의 규범을 말한다. 그동안 ‘표준 화법’의 기준이 된 것은 1992년에 고시된 “표준 화법”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언어와 생활 양식, 사회 제도 등이 적잖게 변화하면서 1992년의 ‘표준 화법’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언어 현실의 변화에 맞춰 표준 화법을 현재의 관점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 화법 정비를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첫 번째 해인 2009년에는 1992년의 “표준 화법”을 바탕으로 기초 연구를 시행하였다. 1992년의 “표준 화법”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표준 화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과 원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해인 2010년에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국 규모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5,000여 명 규모로 실시된 실태 조사를 통해

‘표준 화법’의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번째 해인 2011년에는 2009년~2010년에 실시한 기초 조사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현대의 생활과 가족, 사회 관계에 맞도록 개정한 “표준 화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표준 화법’ 개발을 새롭게 보완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언어 사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는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 어문 규범 보급 활동 □

어문 규범을 널리 보급하려는 노력은 국립국어연구원 출발부터 시작되었다. 그중에 2002년에 시작된 ‘어문 규범의 단계적 개발과 정보화’는 ‘어문 규범’의 내용을 단계별로 구성함으로써 수요자에 맞게 규범을 보급하려는 것으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초등, 중등, 고등과 같은 단계별 규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교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언어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글쓰기 자료(일기, 일반적인 글쓰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초등용 글쓰기 말뭉치를 작성하고 실제적으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규범 교재를 개발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

초등학생을 위한 규범 교재는 초등학생에게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되었는데 만화 교재의 특성상 전문 교육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초등만화맞춤법’ 연속물은 ‘맞춤법·표준어, 띄어쓰기·외래어, 단어’ 편으로 모두 3권이 출간되었다.

- 초등만화맞춤법, 맞춤법과 표준어 편, 2003년 1월

- 초등만화맞춤법, 띄어쓰기와 외래어 편, 2003년 10월
- 초등만화맞춤법, 단어 편, 2004년 3월

‘초등만화맞춤법’ 만화책은 지금까지도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흥미롭게 규범에 접근할 수 있는 책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의 ‘쉽표, 마침표’를 비롯한 소식지에서 내용을 연재하는 등 폭넓게 호응을 받았다.



[그림 2-1] 초등만화맞춤법

한편, 이와는 별도로 1988년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좀 더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서 어휘별로 규범성을 판단하고 관련 조항 등을 명시하여 규범 편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어휘별 규범 해설(2004년)”과 같은 결과물이 제작되어 국립국어원의 규범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에서는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재 개발도 이루어졌는데 학생들의 글쓰기 자료를 분석하여 학생들 스스로 글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어문 규범의 단계적 개발을 위한 초등학생의 글쓰기 분석(2002년)’에서는 초등학생의 글쓰기 자료에 나타나는 표기 차원의 규범 오용 사례를 중심으로 규범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초등학생 글쓰기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2004년)’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직접, 간접으로 초등

학생의 교육 현장에 활용됨으로써 규범과 글쓰기 교육에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전문적인 영역의 표현과 문장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2001년)”,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2002년)”,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2003년)”, “제품 설명서의 문장 실태 연구 1·2(2002년·2003년)”, “안전 설명문의 실태 연구(2004년)” 등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각급 학교 국어과 교과서에서 좋은 글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요건을 점검표처럼 구체화하고 예문과 설명을 곁들인 “좋은 글의 요건(2005년)”이 발간되었다.

이 가운데 법령문과 관련한 국어 개선 연구는 법무부와 업무 협정(2002. 3. 27.)을 맺는 계기가 되었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법제처 주도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법령문의 표기를 한글로 하는 차원을 넘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문화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한글 맞춤법 강좌(2009년)’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면 ‘어문 규범의 단계별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2010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등의 6개 집단을 대상으로 어문 규범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어문 규범을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 집필 지침서’ 1종과 ‘학습 교재 3종(초·중·고급)’을 개발하였다.

‘어문 규범의 단계별 학습을 위한 교재(초·중·고급)’의 각 소단원은 ‘길잡이

-미리 보기-탐구하기-연습하기-참고하기-마무리'로 구성되어 있다. '길잡이'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미리 보기'는 소단원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 중 일부를 간단한 만화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탐구하기'는 소단원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내용이 제시되는 단계로 학습 내용이 탐구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하기'는 앞서 '탐구하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몇 가지의 문제를 통해 확인하는 단계이고 '참고하기'는 앞선 내용과 관련된 참고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소단원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요약된 내용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어문 규범 단계별 교재는 일차적으로는 국립국어원 문화학교의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국어 교과서 등의 어문 규범 관련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7. 한자 표준화 □

한자와 관련된 연구는 초창기에는 한자어, 외래어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방향에서 주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고유의 한자 약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한자의 약체 조사(1991년)”, “동양 삼국의 약체자 비교 연구(1992년)”이 그러한 연구의 결과물이었다. 전자가 국어 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역사적인 국어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연구는 “한자 사용 실태 조사(1990년)”과 “한자,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1993년)”으로 이어졌다. 이들 연구는 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한자어를 분석하여 한자별 용례 등을 제시하고 어휘의 결합 양상을 분석한 것으로 후자의 연구는 “한자 약자 조사 연구(1994년)”, “한자의 자

형 조사1(1996년)”, “한자의 자형 조사2(1997년)”으로 이어졌다.

한자의 자형 조사 연구는 글자 자체의 표준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한·중·일의 한자 표준화 사업에 활용할 기초 연구 과제라는 성격도 띠고 있었다. 한자의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한·중·일의 한자를 표준화하자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 국제한자코드 제안 한자에 대한 연구
- 한자의 이체자 사전 편찬 연구
-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회의 참여
- 한·중 이체자 사전 편찬에 대한 한·중 공동 연구 및 한·일 이체자 사전 편찬에 대한 한·일 공동 연구 추진

03 국어사전 편찬

1.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1991년 2월,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교류와 협력 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2. 13.)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 간의 문화 교류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민족문화공동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남북한 문화 교류는 진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1년 12월 14일, 남한과 북한은 문화 일반, 예술, 어문 출판, 생활 문화, 전통 문화, 종교 등 6개 분과별로 남북 쌍방이 문화예술계 인사 각 1백 명씩 이 참여하여 남북 문화 교류를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 문화 교류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언어 분야의 이질감 해소를 위해 통일에 대비한 “종합국어대사전”을 편찬하기로 하고, 10년에 걸쳐 1만여 쪽 분량의 통일 대사전을 펴낼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3월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2001년 발간을 목표로 하는 “종합국어대사전”(가칭) 편찬 발간 사업을 1992년도 국립국어연구원의 주요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데에는 이러한 국내외의 정세 변화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종합국어대사전”은 남북한에서 쓰이고 있는 낱말의 어원, 출전, 용례, 의미 변천까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적 대사업으로 추진되

었다. 112억의 예산, 200여명에 달하는 박사 과정 수료 이상의 전문 인력이 동원된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사업의 주안점은 ‘상업 출판사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규모의 예산과 광범위한 정예 인력을 동원하여 현재 우리의 국어학 수준과 어문 규범에 걸맞은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다.

편찬 과정은 준비, 집필, 교열 및 교정, 그리고 발간의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준비 단계인 1992년부터 1993년에는 기존 사전을 비롯한 연구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사전 편찬 방침을 확정했다. 1992년 3월 사전 편찬실을 설치하여 모든 연구원들이 표제어, 뜻풀이, 용례, 전문어, 어휘 수집 등의 업무를 분담했으며, 4월에 열린 제1회 사전편찬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고어, 방언, 뜻풀, 용례, 전문어, 어휘 조사 수집, 표제어, 북한어, 해외 동포 언어 등과 관련한 분과 회의를 연 2~3회 개최하였다. 또한 1992년 12월에는 “국어사전에서의 파생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대상 자료 및 어휘 수집에 관한 연구”, “문자열 검색·사전 검색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등 사전 편찬 지침 마련을 위한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1993년 5월에는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계획이 수정되어 기존의 일정을 단축하여 1997년에 발간하는 5개년 계획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국어사전에서의 합성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어 어휘의 분류 목록에 대한 연구”, “15세기 한자어 조사 연구” 등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사전 편찬 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이 1994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사전의 완간 시기가 4년 앞당겨짐에 따라 1994년부터는 사전 편찬 작업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집필 단계인 1994년과 1995년에는 사전 편찬의 첫 단계인 표제어 선정 작업을 완료되었으며 이어서 일반어, 전문어, 북한어, 방언, 옛말, 미등재어, 문법 형태 등의 집필이 시작되었다. 사전 편찬에 활용할 대규모 말뭉치 구축을 위한 용례 자료 입력 작업도 1994년에 착수하여 1996년까지 진행하였다. 1995년 1월에는 민간 출판사와의 “종합국어대사전” 출판 계약을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추천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1996년 9월, ‘두산동아’와 출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1995년 12월에는 사전 명칭을 “표준국어대사전”으로 변경하고 사전 편찬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발간 시기 또한 1997년에서 1999년으로 조정하였다.

1996년에는 교열 단계에 접어들어 19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교열 작업을 진행하였다. 교열 작업은 각 분야별로 집필이 완료된 원고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분리 교열과, 그것이 끝난 원고를 모두 합쳐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교열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교열 작업이 완료되자, 1998년 7월부터는 원고 교정 작업을 진행하여 1999년 6월에 9차례에 걸친 교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 “사전 원고 변환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문자열 검색·사전 검색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등의 사업 결과 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졌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규모뿐 아니라 사전학적으로도 이전의 사전과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주표제어’를 먼저 제시하고 ‘부표제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어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발전¹(發展)[-편][명] ①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 『경제 발전이 국민 의식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②일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됨. 『이야기가 이제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

발전-하다¹[-편--][명] ①⇒발전1①. 『기차가 개통된 뒤로부터는 읍내가 대체로 발전하는 반면에 달내 장터는 차차 쇠잔해 들어 갔다.』 <이기영, 신개지> ② 【...으로】 ⇒발전¹②. 『버릇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괴상한 휴식의 방법으로 발전하여 결국에는 주인공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다.』

《이청준, 소문의 벽》

또한 규범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주표제어를 보면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형태 정보 등이 들어 있다. 주표제어에 아무 기호가 없거나 붙임표만 쓴 경우는 한 단어이므로 띄어 쓰지 않지만 ‘^’을 쓴 것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 있음을 나타내고 가운뎃점을 쓴 것은 언제나 가운뎃점을 넣어서 표기하라는 뜻이다.

[표 3-1] 주표제어의 다양한 형태

표제어	형태 설명
어머니, 학교, 밥공장	아무 기호 없이 붙여 쓴 경우
자존-심, 가로막-히다	표제어 가운데 붙임표를 쓴 경우
-있-, 헛-, -뱅이	표제어 앞뒤에 붙임표를 쓴 경우
금동^미륵보살^반가상	붙여 쓰기 허용 기호만 쓴 경우
앵글로·색슨	가운뎃점만 쓴 경우
과학의 날	아무 기호 없이 띄어 쓴 경우
리가·페레-병	붙임표와 가운뎃점을 함께 쓴 경우
우랄·알타이^어족	가운뎃점과 붙여 쓰기 허용 기호를 함께 쓴 경우
망이·망소의 난	가운뎃점을 쓰면서 띄어 쓴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	붙여 쓰기 허용 기호를 쓰면서 띄어 쓴 경우

규범 정보는 뜻풀이를 통해서도 보여 주는데 비표준어인 경우에는 ‘○○의 잘못’과 같이 뜻풀이하여 규범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알아맞추다[동] ‘알아맞히다’의 잘못.

1999년 한글날인 10월 9일에 “표준국어대사전” 상권 발간 출판기념회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이 사전은 정부에서 직접 편찬한 사전인 만큼 다른 사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며 발간의 의의를 밝혔다. 심재기 국립국어연구원장은 “수정 작업과는 별도로 민간에서 사전 편찬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록 사전 편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어사전 편찬 기반 조성에 힘을 쓸 것을 다짐하였다.



[그림 3-1]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 출판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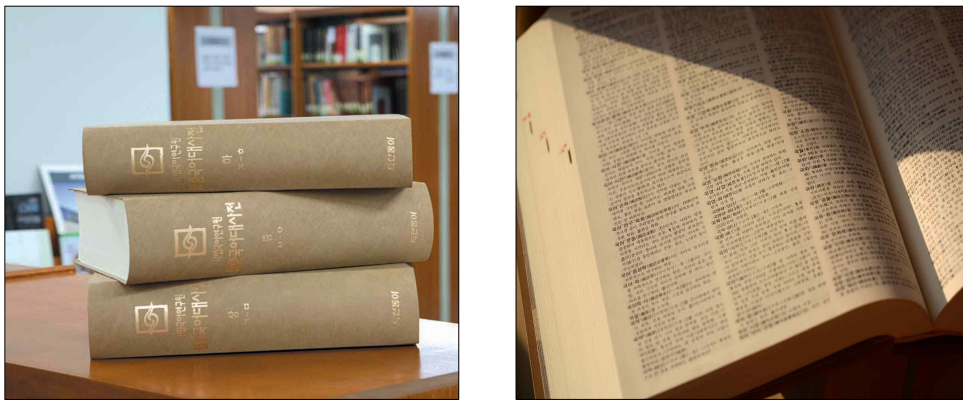
이어 같은 해 11월 30일, 중권과 하권이 발간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이 완간되었다.

이렇게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1999년 8월까지의 최신 정보와 학계의 연구 성과가 망라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상, 중, 하’ 세 권이 한 질로 되어 있으며 총 7,328면에 표준어를 비롯하여 북한어, 방언, 옛말 등 50여 만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일반어 25만 단어, 북한어 7만 단어, 전문어 19만 단어, 방언·옛말 3만 단어) 또한 1만여 점의 천연색 삽화와, 용언 활용 표, 외래어 표기 용례, 학명 목록 등의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는 현행 어문규정을 구체화하고 북한어를 대폭 수용하였으며 예문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단어의 용례를 명확하게 보여준 점은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의도가 잘 반영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은 그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사전 편찬사적으로도 획기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간 출판사나 사립대학 연구소가 아닌 국가 기관에 의해 진행된 작업인 만큼 발간 관련 자료들이 다양한 형태로 일반에 공개되었다. 2000년 8월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백서”와 “표준

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을 발간, 관련 파일을 누리집에 공개한 것이 그 예이다. 사전 편찬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여 사전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후의 사전 편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공개되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전의 전자화를 시도함으로써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2001년도에 종이 사전 형태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오류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이를 시디(CD), ‘훈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전자사전, 대형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사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일반에게 보급한 것은 기존의 다른 사전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2]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2.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 □

사전 발간 직후인 2000년부터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수준에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사전 개정 작업과는 거리가 있었다. 본격적인 사전의 개정 작업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 6월에 “표준국어대사전” 정오표(正誤表)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2006년에는 웹 사전 형태의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을 기획하였다.

개정판을 종이 사전이 아니라 웹 사전의 형태로 제작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요인은 종이 사전의 경우, 재판 인쇄를 하지 않는 한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변화 및 생성을 종이 사전에 반영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종이 형태로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은 총 3권의 방대한 두께와 무게, 유상 판매라는 점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입하여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웹 사전’이었다. 이미 “표준국어대사전”은 2002년부터 온라인 사전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는 종이 사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다양한 검색 기능 등을 포함한 웹 사전의 특징을 충분히 구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6년에 사전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웹 사전의 형식으로 새롭게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웹 사전은 종이 사전에서는 불가능했던 자료의 추가와 갱신이 가능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전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종이 사전은 더 이상 출간하지 않게 되었다.

2008년 10월, 한글날에 맞춰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이 개통되었다. 내용 면에서는 1999년 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누락된 표제어를 보충하고, 그동안 언어 현실에서 널리 정착된 새로운 어휘를 반영하였으며, 외래어의 한글 표기 변경과 관련된 규범을 수정하는 등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다. 또한, 뜻풀이와 용례, 북한어와 관련한 오류의 시정 및 변경 사항 또한 반영되었다. 표제어의 개수도 50여만 항목에서 약간 늘어나 51만여 항목이 선정되었다.

[표 3-2] 품사별 표제어 개수

품사	1999	2008
명사	335,057	331,023
의존 명사	1,061	1,072
대명사	463	474
수사	277	279
동사	68,394	68,757
보조 동사	48	48
형용사	17,361	17,447
보조 형용사	29	29
부사	17,895	18,033
관형사	1,685	1,732
조사	357	360
감탄사	812	874
어미	2,526	2,517
접사	656	674
어근	7,346	7,280
품사 없음	58,509	70,716
합계	512,476	521,315
품사 통용	3,400	3,400
계	509,076	510,268

[표 3-3] 관용구·속담 개수

	1999	2008
관용구	4,574	4,582
속담	9,415	9,603
계	13,989	14,185

[표 3-4] 표준국어대사전(1999년)과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2008년)의 전문 분야별 표제어 개수 비교

분야	1999	2008	분야	1999	2008	분야	1999	2008
가톨릭	1,448	1,470	법률	9,350	9,505	전기	3,003	3,177
건설	6,215	6,387	불교	10,029	10,097	정치	2,119	2,154
경제	8,542	8,689	사회	2,329	2,418	종교	1,012	1,028
고적	2,398	2,415	생물	4,243	3,382	지리	5,961	6,048
공업	3,695	3,897	수공	2,275	2,430	천문	2,095	2,104
광업	3,338	3,268	수산	910	945	철학	2,065	2,074
교육	1,479	1,533	수학	4,127	4,084	출판	1,464	1,488
교통	1,552	1,592	식물	13,127	11,093	컴퓨터	1,500	1,566
군사	4,979	5,037	심리	1,613	1,607	통신	1,077	1,108
기계	2,369	2,492	약학	1,487	1,495	한의	5,077	5,161
기독교	1,173	1,189	언론	558	555	항공	891	920
논리	718	724	언어	4,208	4,254	해양	1,132	1,179
농업	4,732	4,914	역사	20,858	20,990	화학	8,865	10,029
동물	11,695	11,189	연영	1,731	1,779	인명	10,327	10,322
문학	3,788	3,859	예술	1,295	1,338	지명	6,996	7,014
물리	7,905	7,792	운동	4,962	5,057	책명	2,051	2,040
미술	1,516	1,544	음악	6,939	6,915	고유명사	498	511
민속	4,912	5,127	의학	10,501	10,511	합계	229,129	229,514



[그림 3-3]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 개정판(2008년)



[그림 3-4]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검색 기능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검색 기능을 구현하는 명실상부한 전자사전이라는 데 있다. ‘찾기, 따로 보기, 자세히 찾기’ 등 다양한 검색 방식을 설정했고, ‘지정 검색, 다중 검색 기능’과 같이 정교한 검색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단어 뜻만 찾는 식의 단조로운 사전 활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차원 높은 단계의 지식 습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 초판이 ‘규범’의 기준을 확립한 사전이었다고 한다면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은 거기에 덧붙여 본격적인 전자사전의 시대를 연 사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새로 개발된 웹 사전(2008년)과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의 온라인 사전(1999년)의 기능을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표 3-5] 온라인 사전(2002년)과 웹사전(2008년)의 기능 비교

대항목	소항목	2002년	2008년
검색 기능	표제어 찾기	○	○
	아무개 문자(?, *) 활용 찾기	×	○

대항목	소항목	2002년	2008년
	따로 보기 (관용구, 속담, 전문어, 북한어, 방언, 옛말, 고유어)	×	○
	여러 겹 찾기 (검색 조건 중복 적용)	×	○
	품사별 찾기	×	○
	자모별 찾기	×	○
	범위로 찾기	×	○
	자소로 찾기	×	○
사용자 환경	일러두기	○	○
	옛 한글 입력	○	○
	사용자 의견 수렴	×	○
	소형 사전 창 설치(위젯 기능)	×	○
	개방 운영 프로그램 설치(Open API)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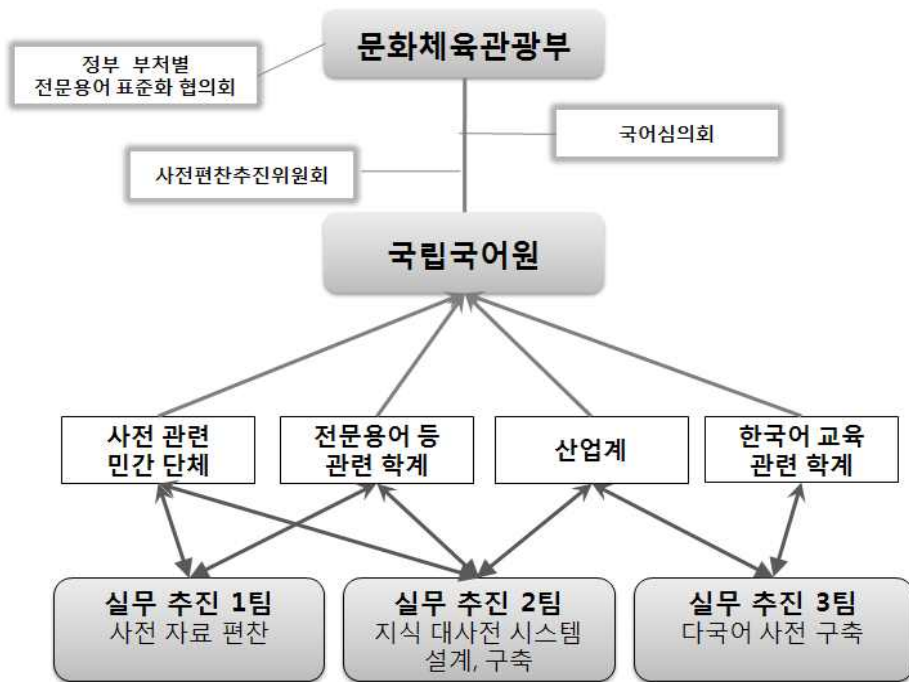
“표준국어대사전”이 전자사전으로 새롭게 탄생함으로써 현재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기에서도 사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의 지식 정보를 망라하는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편찬 □

2010년 1월 27일, 국립국어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신어 등을 대폭 수록한 100만 어휘 규모의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이란, 인터넷 기반의 위키피디아 방식과 같이 인터넷 사용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설계 방식으로 이루어진 전자사전을 말한다. 이 사전의 주안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용어 풀이를 쉽게 수정하고 생활 용어, 방언 등 실생활의 언어 자료를 대폭 확충하여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는 것

이다. 둘째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위키피디아형 사전을 구축함으로써 정보 지식 사회에 걸맞은 언어 지식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한국어기초사전과 한국어 학습용 언어별 한국어-외국어 사전을 구축함으로써 급증하는 한국어 학습 사전의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 지식 문화 전반의 축적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구축 작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업이 필요하다. 이에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구축을 위한 업무 추진 체계 및 기관별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3-5]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업무 추진 체계

[표 3-6] 업무 추진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진행 총괄, 사전편찬추진위원회·국어심의회 운영, 부처 간 협력 사업 추진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부처별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 결과 통보, 자료 협조
국어심의회	단계별 사전 편찬 추진 계획 최종 검토, 자문
사전편찬추진위원회	단계별 사전 편찬 추진 계획 검토, 자문
국립국어원	사업 실무 총괄, 기본 계획 수립,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실무 추진팀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편찬 작업 수행(직접 수행, 용역 등)
민간 단체, 관련 학계	어휘 수집, 분류, 쉬운 풀이 등 관련 작업 진행
산업계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시스템 설계, 구축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구축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1단계(2010~2012년)은 사전 편찬 단계로서 쉬운 풀이와 신어, 방언, 전문어 등의 확충을 위한 한국어 자료 구축 사업, 위키피디아 방식을 참조한 개방형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사업, 그리고 5개 언어의 기초 어휘 5만 항목 선정과 한국어 기초사전 2만 항목 구축 및 다국어 시험 대역 등 3개 부분의 사업이 진행된다.

이 단계의 주요 추진 과제로는 우선 쉬운 풀이 및 보완 자료, 그리고 개방적 실생활 한국어 자료 구축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비체계적인 용어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뜻풀이에 쓰인 어려운 말을 목록화하여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문학 작품 위주의 문어 용례와 실생활의 다양한 용례는 물론, 이미지와 동영상 등 텍스트 중심의 풀이를 보완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도 이루어진다. 또한 그간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축적된 모든 어휘 자료의 수합 및 정리 작업도 진행

한다. 이를 위해 신문·방송 매체에 나타난 신어와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생활어, 외래어 등을 포함한 생활 용어와, 교과서 사용 어휘 등 실제 필요한 어휘를 중심으로 공공 기관 및 학계에서 이미 구축한 전문용어를 정비한다. 그리고 기존에 국립국어원에서 조사, 발간한 방언 사전 등을 활용하는 등 공공 기관 및 지역별로 구축된 방언 어휘 또한 뜻풀이하여 자료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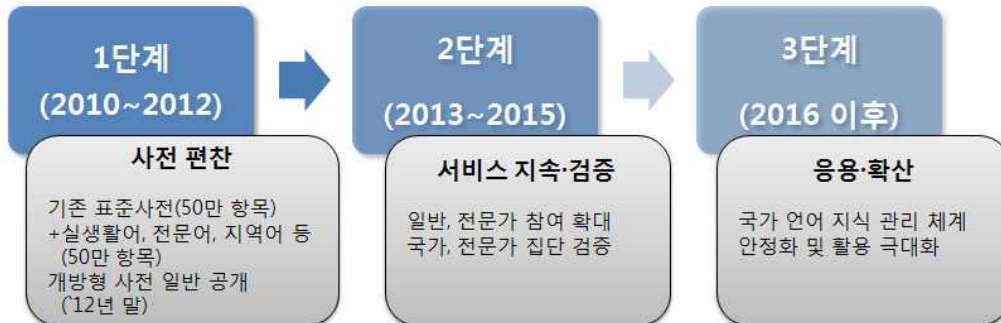
또 다른 추진 과제는 사전 편집 틀 제공 및 구획별(표제어, 뜻풀이, 관련 어휘, 지식정보, 멀티미디어 자료 등) 편집 권한 부여 등 일반인이 쉽게 참여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신뢰도에 따른 표지를 표제어에 부착하도록 하여 검증된 정보와 구축 중인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자와 전문가가 사전 구축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제도 함께 마련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검색 편이를 증진하기 위해 맞춤형 언어 정보 제공 시스템의 개발도 추진된다. 비표준어나 활용형 등 다양한 방식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분야별·수준별 정보 검색 기능과 내려 받기 기능도 구현될 예정이다.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에는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을 위한 한국어 기초사전과 다국어사전을 구축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다국어사전 구축어로 선정된 5개 언어(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타이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마인어))는 민간에서의 사전 구축이 비교적 용이한 영어·일본어·중국어(중국어 제외)를 제외한 것으로, 2008년 외국인 입국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다국어사전 편찬·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국인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현지 인터넷 환경을 감안하여 언어권별로 다국어사전을 편찬하고 검색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개방형 사전이 일반에 공개되는 시기는 2012년 말로 예정되어 있다.

[표 3-7]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제1단계(2010년~2012년) 사업 내용

사업 연도 사업 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1단계 최종
한국어 기초사전 구축	5만 항목 어휘 선정 2만 항목 집필	3만 항목 집필		5만 항목
언어별 사전 구축 (5개 언어)	5개 언어 시범 대역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러시아어, 마인어)	5개 언어 자료 구축	5개 언어 자료 구축	언어별 5만 항목

2단계(2013년~2015년)은 서비스 지속·검증 단계로서, 일반인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생성된 국어 지식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증과 가공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진행될 3단계는 응용·확산 단계로서,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의 안정화 및 활용 극대화에 초점을 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말 자료 집대성
-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 5개 언어 다국어사전 구축
- 구축 자료의 전문가 검증
- 자료 확대와 규범 사전 구축
- 5개 다국어사전 추가 구축
- 관리 체계 활용 극대화
- 민간의 부문 사전 출판 지원
- 10개 다국어사전 추가

[그림 3-6]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단계별 추진 절차

04 국어 실태 조사

1.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

2000년대에 들어 세계화에 따른 외국어 열풍이 확산되면서 모국어 능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렇지만 한글을 해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학생이 존재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당수는 우리말과 글을 쓰는 것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994년에 ‘어문실태연구부’를 설치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어문실태연구부’는 언어 순화 및 화법 표준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신문 및 방송언어 실태, 북한의 언어 실태, 해외 동포의 국어 사용 실태 등 국내외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였다. 국어와 관련된 실태 조사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한 다음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어 정책이 국가에서 제시하는 대로 진행되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객관성과 과학성의 기반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올바른 처치가 가능하듯이 세밀한 실태 파악 후에 국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문실태연구부’는 1990년대의 각종 국어 실태 조사 연구를 실시했고,

2000년대부터는 ‘국어생활부’로 명칭을 바꾸어 ‘국어사용실태조사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를 본격적으로 담당하였다. 2005년에는 국민들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를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였는데 준비 작업으로 2004년에 서울, 대구 지역 9개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미니홈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언어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밖에 국제 결혼 이주 여성 언어생활 실태 조사, 국어 사용 환경 조사,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등도 이루어졌다.

2008년 실시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는 1970년 이후 38년 만에 실시된 것이어서 화제가 되었다. 1966년과 1970년에 통계청이 실시했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결과, 실질 문맹률이 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동안 조사를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무 교육 취학률이 100%에 가까운 선진국의 경우, 문맹 여부보다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서 해석 능력, 즉 문해력에 초점을 맞춘 언어 능력 조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선 2~3월에는 예비조사 단계로서, 성인 500명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문맹 여부 및 문해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5월에는 성인 4,500명과 초등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한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전국의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의 1.7%가 비문해자였으며, 문해력 점수는 평균 63.6점(중학생 77.4점)이고, 문해력 부진 계층은 2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의 상황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이긴 하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0대 이하 대상자 중에는 비문해자가 거의 없는 반면, 70대 이상의 비문해율은 20.2%, 즉 다섯 명 중 한 명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비문해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

는 군 지역의 비문해력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의 문해력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국어 능력의 저하와 공공기관의 서식·문서 자체의 난해함을 들 수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군별 국어 능력 실태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2008년에는 ‘국군 장병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를, 2009년에는 전국 교사 2,000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각 직업군별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를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난해한 서식에 포함된 어문 규범 및 어휘, 표현 차원의 오류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조사는 중앙 정부 부처 및 지방 자치 단체, 병원, 보건소의 서식 1,000여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기관에 개선된 수정안을 배포하여 기존의 공공문서를 정확하고 알기 쉬운 문서로 교체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는 행정안전부의 행정 서식 보완 작업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국어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되었다. 이는 본래 ‘KBS 한국어능력시험’(한국방송공사)과 ‘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두 곳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것으로 2005년부터 국어기본법에 따라 두 시험을 검정시험으로 지정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지원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문해 능력에 대한 연구와 실태 조사를 통해 앞으로 5년마다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국어 정책의 수립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전에 비해 국어 정책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수행해 온 국어 실태 조사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1] 국어실태조사 추진 내용

발행 연도	보고서 제목
2004년	언어 실태 조사 장기 계획
2005년	국어 의식 조사 국어 사용 환경 조사 이주 여성 문화 및 언어 적응 실태 조사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 청소년 언어생활 실태 연구
2006년	새터민 언어 실태 조사 연령별·계층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 일반 호칭어, 지칭어를 중심으로
2007년	영화 및 게임물 언어 사용 실태 외래어 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증장기 계획 수립 외국인 대상 로마자 표기법 발음 조사 결과 분석 외래어 인지도, 이해도, 사용도 및 태도 조사
2008년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국군 장병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통신 언어 실태 조사
2009년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교사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2010년	공공언어 개선 효과 연구 계약서·약관 등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공공언어의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표 4-2] 국어능력검정시험 개관

시험명	KBS 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시행 기관	KBS 한국어진흥원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시험 횟수	2004년부터 실시 2006년~'08년: 연 3회 2009년~: 연 4회	2001년부터 실시 2006년: 연 4회 2007년~: 연 6회

시험명	KBS 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응시 인원	2006년: 23,076명 2007년: 17,903명 2008년: 23,362명 2009년: 21,794명 2010년: 41,213명 5년간 합계: 127,348명	2006년: 12,062명 2007년: 17,815명 2008년: 17,392명 2009년: 19,288명 2010년: 33,288명 5년간 합계: 99,845명
평가 영역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어휘·어법, 창안, 국어 문화 등 분야	듣기·읽기·쓰기, 어휘, 어법, 어문규정 등
문항수	100문항(선다형)	90문항(서술형 10, 선다형 80)
평균 점수 (최근 4년간)	100점 만점에 60.27	200점 만점에 123.22 (백점 환산 시 61.61)
인증 방식	등급제(1~4급, 무급)	등급제(1~5급, 등외)
시험 장소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15개 권역 중등학교 26곳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전국 중등 학교 및 대학교 24곳

2. 신어 조사 □

새로 생긴 말, 그 뜻이 이전과는 달라진 말들을 포함한 ‘신어’는 변화하는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된다. 특히 유행어나 신어에는 당대의 정치,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대중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국립국어원은 1994년부터 국어사전을 보완하고 우리의 언어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신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매년 지속해 왔다.

그 첫 성과는 1994년 12월에 발간된 “신어의 조사 연구”라는 보고서에 집약되어 있다. 이는 1994년에 간행된 신문과 잡지에 사용된 일반 어휘 중에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들을 신어로 보고한 것이었다. 또한 외국어에서 수입된 말과 사전에 수록된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 말들도 수집하였

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지만 정식 단어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신어, 그리고 한자어만으로 된 신어와 외래어로서 신어가 된 경우,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신어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표제어, 인용문, 출전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어 후속 작업으로 1995년에도 “95 신어”가 발간되었다. 이는 ‘신어의 조사 연구’ 작업이 완료된 시점인 1994년 10월 13일부터 1995년 10월 23일까지 진행된 각종 매체들을 대상으로 신어를 조사,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총 1,339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한자어의 원어도 함께 제시하여 단어의 쓰임과 유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6년의 신어 조사 작업은 한국의 현대 시 10,886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어들 가운데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를 조사하여 시대별로 분류한 결과를 “신어의 조사 연구”라는 보고서로 발간했다. 2000년과 2001년에도 각각 신어 2,947개, 2,884개를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각종 방송·언론사, 국공립 도서관, 각 대학 국어 관련 학과 등에 배포했다. 2002년에는 신어 408개를 포함한 신어 2,696개를, 2003년에는 신어 656개를 포함한 신어 2,427개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04년에는 중앙 일간지와 방송 뉴스 및 인터넷을 대상으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수집된 신어를 “2004년 신어”라는 보고서로 발간했다. 여기에는 신어 626개를 포함한 신어 2,241개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수집된 신어에 대한 어원과 뜻풀이도 함께 실었다. 축적된 신어 자료들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2007년에는 2002년 이후 생겨난 새말을 사전 형식으로 정리한 “사전에 없는 말 신조어”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당대의 사회 세태를 반영하는 약 3,500여개의 신어가 수록되었다. 그 이후에도 신어 조사 사업은 국어사전 편찬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조사 □

외래어는 국제화에 따른 문화 교류의 결과로서 우리말을 더 풍부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유의 언어문화를 해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침투한 외래어와 외국어를 조사하여 순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광복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59에는 우리 언어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일본어를 조사하여 우리말로 바로잡았으며, 1962년에는 문교부 산하 한글전용특별심의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70년에는 정부가 각종 민원서류의 한글 전용을 실시했으며, 언론·출판계에 한글 전용을 권장하였다.

“한자·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1980년대)”는 1985년 12월, 국어연구소가 국민의 어문 생활 중 나타나는 한자와 외래어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여 발간한 보고서이다. 한 달치의 신문 6종과 잡지 16종을 대상으로 한자와 외래어를 수집한 결과, 25,840개의 단어 중 한자는 2,758개, 외래어는 5,932개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자별 한자어 모음’에서는 각 한자가 쓰인 단어를 모았고, ‘어두 한자별 한자어 및 출처’에서는 각 한자가 어두에 쓰인 단어 및 그 출처를 밝혔다. 또한 ‘색인’에서는 한자어의 수효를 계산하여 각 한자를 사용 빈도수에 따라 배열하였다.

속편 격인 “한자·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1910~1970년대)”는 1987년 5월에 발간되었다. 이 책은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자·외래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10년 단위로 정리한 것이다. 각 시대별 신문과 잡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437개의 표제 어휘 중 약 3,335개의 어휘가 한자, 1,346개의 어휘가 외래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1년 10월, 국립국어연구원이 실시한 “상호 상품 이름 아파트 명칭 광고 등에 나타난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TV 광고와 상품 이름의 89.5%가 외래어이거나, 외래어와 고유어가 합성된 혼합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2월에는 문화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이 지난 1년간 마련한 7백여 개의 외국어에 대한 국어 순화 방안 1차 확정안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목공, 공예, 미술 등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와 서양 외래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국적 불명의 의사 외국어 등 우리 국어를 해치는 외국어 표현과 이를 순화한 우리말이 제시되어 있다.

1993년 2월에 발간된 “한자·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1991년도)”는 1991년에 간행된 일간 신문 3종과 월간 잡지 5종을 대상으로 고유명사에 나타난 한자 및 외래어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한자의 경우는 고유명사를 인명, 지명, 단체명, 간행물명, 사건명, 건조물명, 상품명으로 나누어 통계 처리하고 어휘의 결합 양상을 살폈다. 또한 이들 자료에 나타난 중국과 일본의 한자를 첨부하였다. 한편, 외래어의 경우는 일반 어휘를 중심으로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기본 외래어 조사 자료집”도 발간되었다. ‘기본 외래어’란 사회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널리 쓰인 외래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라고 한 ‘표준어 규정’의 표준어 사정 원칙 제2항의 실행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이 되었다.

이어 1995년 12월에는 이미 사회에서 생명력을 얻은 것으로 인정받는 외래어를 선별하여 용례로 제시한 “기본 외래어 용례집”을 발간했다. 이를 통해 이미 국어 단어로 정착된 외래어와 그렇지 못한 외국어를 구분할 수 있게 했고, 외국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우리말 대응어를 제시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문화체육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이 추진한 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사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본어 투 생활 용어 사용 실태 조사”가 발간되었다. 이는 1995년과 1996년에 국어심의회 심의 대상이 된 1,427개의 일본어 투 용어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어 투 어휘의 사용 실태를 제시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심의 과정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한편, 1999년부터는 언론에서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매주 16종의 주요 일간지를 대상으로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새국어생활”과 “새국어소식”에 게재하였다. 자주 사용되는 외래어·외국어를 제시하고, 이를 적절히 순화한 우리말 표현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언론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개선팀’을 원내에 별도로 설치했으며, 그 결과물을 매년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2003년에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외래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발간한 자료집을 한 데 묶은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을 펴냈다. 여기에는 행정, 생활, 지하철, 건설, 운동 경기, 농업 등 총 40개 분야에 걸친 2만 1천여 개의 순화 대상 어휘가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를 통해 외래어를 고급 언어나 상위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의 편향된 언어 의식을 바로 잡고, 국어 순화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모색을 시도하였다.

2005년에도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어 투 청산 용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일본어의 사용은 일제 강점기와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학술·전문 분야에서 일본어 사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본어 투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식과 실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편, 2007년에는 “외래어, 외국어 및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를 통해 외래어, 외국어의 사용 실태에 대한 개략적인 의식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영화 및 게임물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에서도 영화와 게임물의 외래어, 외국어 사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4. 서울 토박이말 실태 조사 □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 그러나 이처럼 ‘서울말’이 표준어 규정의 중요한 준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말이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의 대상이 된 경우는 드물었다. 더구나 광복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여러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서울로 유입되면서 서울 토박이말을 사용하는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었고, 그로 인해 서울 토박이말의 화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또한 서울 토박이말과 표준어 간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서울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표준어 규정에서 말하는 서울말의 실체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서울’이라는 공간은 있지만 정작 ‘서울말’은 ‘사어(死語)’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예컨대, 1997년 3월부터 9월까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4대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토박이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어의 근간인 서울말의 실제 쓰임은 표준어 및 표준 발음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다. 조사 대상자 전원이 지하철 2호선 안내 방송에서 ‘선릉’을 ‘설릉’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실제 쓰이는 서울말과 표준어 규정 간의 괴리가 지속된다면 일관된 표준어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다. 표준어 정립을 위한 자료 보존과 연구의 차원에서 서울 토박이말 실태 조사는 시급하고도 긴요한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97년 12월, 국립국어연구원은 사라져 가는 서울 토박이말을 조사한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Ⅰ)”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 실린 자료들은 주로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에서 나고 자라 5대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표준어와 음운 규칙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질문지에 대한 29명의 응답 결과

와 15명이 참여한 1시간 가량의 자연 발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작업을 계속하여 1998년 12월에는 서울말의 어휘와 문법을 조사한 “서울토박이말 자료집(Ⅱ)”이 발간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1. 어휘, 2. 문법, 3. 추가 항목, 4. 항목 색인, 5. 방언형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토박이말 자료집(Ⅰ)”에서 누락되었던 어휘와 문법 분야를 포함하여 음운, 어휘, 문법 등 전 층위에 걸친 서울 토박이말의 실태를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서 1999년에는 기존 사전에서 정의된 표준 어형 420개 항목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작성했고, 2000년에는 이것의 서울 토박이말 어형을 조사하여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Ⅲ)”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기존의 조사 대상이 주로 70~80대의 연령이었던 것에 변화를 주어 40~50대 서울 토박이들의 음운 현상을 조사함으로써 서울말의 세대별 변천 과정을 알 수 있게 하였다. 2001년에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Ⅳ)”이 발간되었다. 이후 2008년에 그동안의 자료를 정리한 “서울 토박이말”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었다.

5. 지역어 조사 □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어는 한국어의 다양한 변종이자 한국어의 역사와 국어 능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인데도 이에 대한 조사가 단순한 기록과 정리의 차원에만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의해 지역어는 더 이상 전승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소멸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및 보존 사업은 이러한 현상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지역 문화와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무형 문화재로서의 지역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출발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립국어원은 2004년부터 소멸 위기에 처한 국내외 권역별 지역어 조사 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까지 총 10년에 걸친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4-3] 지역어 연도별 조사 계획

• 2004년: 지역어 조사 항목 선정, 조사·전사 지침 및 질문지 작성, 국내외 기초 조사
• 2005년~2009년: 국내외 권역별 지역어 조사
• 2010년: 2004년~2009년 사이에 조사된 어휘, 음운, 문법 항목 통합 및 보충 조사
• 2011년~2012년: 추가 조사 및 보완
• 2012년~2013년: 지역어 음성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편, 2003년에 11월에 개최된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2차 남북 국제 학술회의’에서 북측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소장 문영호)와 남측의 국립국어연구원(원장 남기심)이 남북의 지역어를 함께 조사하는 것을 논의한 것을 기점으로 북한 지역의 지역어 조사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 2004년도에 남과 북에서 지역어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북측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는 평안북도 구장군과 향산군, 평안남도 온천군과 용강군, 황해북도 신계군과 곡산군, 강원도 법동군과 안변군 등 8개 지점에 대한 기초 조사를 추진하였다. 북한 지역의 조사는 다음과 같이 9개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 북한 지역의 조사 내역

• 함경북도 명천군 양천리	김희숙(여, 72세)	2006년 조사
• 함경북도 경원군 중영리	김순옥(여, 82세)	2007년 조사

- 함경남도 정평군 남창리 주순련(여, 75세) 2007년 조사
- 함경남도 금야군 풍성리 황택수(여, 78세) 2007년 조사
- 평안북도 선천군 인암리 임재옥(여, 77세) 2006년 조사
- 평안북도 운전군 보석리 전농패(여, 88세) 2006년 조사
- 평안남도 용강군 옥도리 송재역(남, 74세) 2005년 조사
-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이관순(남, 72세) 2006년 조사
- 강원도 통천군 장진리 노은량(여, 75세) 2006년 조사

2004년에는 지역어 조사 방법을 수립하고 조사 항목을 선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국내외 12지점에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경기 용인, 경북 경주, 경남 고성, 전북 완주, 전남 함평, 충남 공주, 강원 삼척, 제주 건입 등 국내 8지점과, 중국 둔화 및 판스,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등 국외 4지점이 포함되었다. 2005년에는 경기 화성, 강원 원주, 경북 상주, 경남 창원, 충북 제천, 충남 대전, 전북 남원, 전남 곡성, 제주 한경 등 국내 9지점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으며, 2006년에는 경기 포천, 강원 양양, 경북 청송, 경남 창녕, 충북 청원, 충남 논산,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제주 서귀포 등 9개 지점을 조사하였다. 지역별 조사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4-5]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 내역

연도	조사 지점	주 제보자
2005	경기 화성시 우정읍 화수3리	박란희(여, 68세)
2005	강원 원주시 소초면 평장2리	서흥운(여, 86세)
2005	충북 제천시 금성면 진리	어영소(남, 75세)
2005	대전 서구 봉곡동 1리	고창재(남, 79세)
2005	전북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최연순(여, 77세)
2005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1구	서재경(남, 80세)

연도	조사 지점	주 제보자
2005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명월(여, 74세)
2005	경남 창원시 동읍 용강리	오차환(남, 83세)
2005	제주 북제주군 한경면 조수리	김성욱(남, 80세)
2006	경기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조종태(남, 76세)
2006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	김동준(남, 83세)
2006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전국순(여, 78세)
2006	충남 논산시 부창동 강산 8리	양소저(여, 77세)
2006	전북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이종성(남, 76세)
2006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김승철(남, 78세)
2006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2리	김진만(남, 75세)
2006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리	성정영(남, 73세)
2006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김석규(남, 77세)
2007	경기 파주시 파주읍 봉암1리	김윤택(남, 77세)
2007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이관우(남, 79세)
2007	충북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이종근(여, 81세)
2007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	서동례(여, 72세)
2007	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이다복(여, 74세)
2007	전남 영광군 백수읍	김귀님(여, 72세)
2007	경북 고령군 덕곡면 원송리	박만수(남, 82세)
2007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	이계남(남, 81세)
2007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오국현(남, 74세)
2008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1리	양재필(남, 84세)
2008	강원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장영행(남, 79세)
2008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2리	임봉호(남, 85세)
2008	충남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노성환(남, 84세)

연도	조사 지점	주 제보자
2008	전북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이병권(남, 78세)
2008	전남 보성군 노동면 명봉리	박성만(남, 77세)
2008	경북 청도군 각북면 지슬리	김경희(남, 74세)
2008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유상삼(남, 84세)
2008	제주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고태원(남, 75세)
2009	경기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	최용규(남, 72세)
2009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리	오영호(남, 82세)
2009	충북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황종연(남, 86세)
2009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리2구	장석민(남, 78세)
2009	전북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유인자(여, 80세)
2009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박옥규(남, 78세)
2009	경북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박학목(남, 79세)
2009	울산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김일경(남, 79세)
2009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변행찬(남, 7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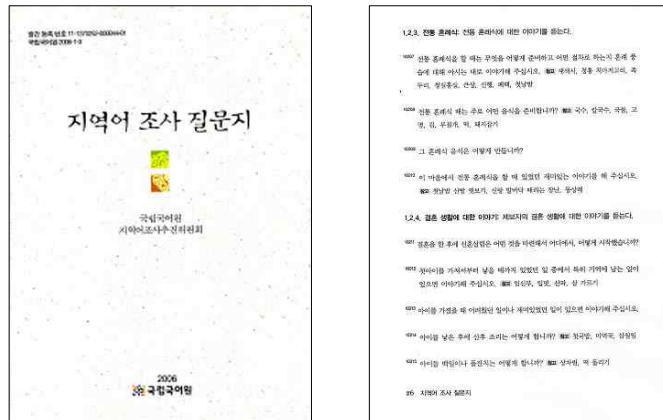
2010년에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의 6개 지점의 어휘, 음운, 문법 통합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표 4-6]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연도	조사 지점	주 제보자
2007	중국 길림성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	박남성(남, 73세)
2007	카자흐스탄 알마티 가가린로	한글라피라(여, 85세)
2008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온고 마을	김알렉산드리아 슈라(여, 88세)
2009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레닌스키 마라타	안타샤(여, 81세)
2009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탈디쿠르간	윤울가(여, 84세)
2009	중국 요령성 동향시	김옥성(여, 83세)
2010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김우애(여, 82세)

국의 지역 조사와 관련하여 2010년에는 ‘훈춘, 알마티 탈디쿠르간, 타슈켄트, 비슈케크’의 어휘, 음운, 문법 통합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2006년에 발간한 “지역어 조사 질문지”(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태학사, 2006)는 이러한 지역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작성한 질문지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 책은 각 지역에서 쓰이는 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가 제보자를 상대로 질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질문의 방식을 통해 어휘, 음운, 문법의 고유 어형뿐만 아니라 문장과 담화 차원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의 조사 항목 선정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며, 네 차례에 걸친 남북 관계 학자들의 협의와 국내 학자들의 학술적 검토를 거쳤다.



[그림 4-1] 지역어 조사 질문지 표지와 본문

“지역어 조사 질문지”는 보다 생생하고 풍부한 구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구술 발화 및 어휘(농경)’ 편으로,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일생 의례, 생업 활동, 의생활, 식생활, 거주 생활, 질병과 민간요법, 세시 풍속과 놀이, 특수 지역 생활의 내용을 다룬다. 제2권과 제3권, 제4권은 ‘어휘’ 편으로 음식, 가옥, 의복, 민속, 인체, 육아, 친족, 동물, 식물, 자연에 대한 질문을 수록했다. 제5권은 ‘음운

· 문법’ 편으로, 대명사, 조사, 종결어미, 연결어미, 주체 존대, 시제, 부정, 사동과 피동, 보조용언, 부사, 관용적 표현에 관한 질문이 담겨 있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내외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태학사) 발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1집 11권, 2집 10권)는 해당 조사 지역의 토박이들이 자연스럽게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2010년 현재, 경기 포천, 경기 화성, 강원 양양, 충북 청원, 충북 제천, 충남 논산, 대전 서구,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전남 곡성, 경북 청송, 경남 창녕,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 호근, 제주 한경 지역 등의 국내 편을 비롯하여 중국 길림성 및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편이 각각 단행본 형태로 발간되어 있다.



[그림 4-2]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표 4-7]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1집(2005년도 지역어 조사 결과 중 구술 발화)

- 1-1 경기 화성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7. 12. 31. 348쪽)
- 2-1 강원 원주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7. 12. 31. 330쪽)
- 3-1 충북 제천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7. 12. 31. 420쪽)
- 4-1 대전 서구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7. 12. 31. 336쪽)
- 5-1 전북 남원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7. 12. 31. 280쪽)
- 6-1 전남 곡성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7. 12. 31. 360쪽)
- 7-1 경북 상주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7. 12. 31. 365쪽)
- 8-1 경남 창원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7. 12. 31. 296쪽)
- 9-1 제주 한경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7. 12. 31. 262쪽)

[표 4-8]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2집(2006년도 지역어 조사 결과 중 구술 발화)

- 1-2 경기 포천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8. 12. 31. 294쪽)
- 2-2 강원 양양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8. 12. 31. 330쪽)
- 3-2 충북 청원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9. 3. 31. 420쪽)
- 4-2 충남 논산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9. 3. 31. 403쪽)
- 5-2 전북 무주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9. 3. 31. 429쪽)
- 6-2 전남 진도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9. 3. 31. 309쪽)
- 7-2 경북 청송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9. 3. 31. 519쪽)
- 8-2 경남 창녕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9. 3. 31. 430쪽)
- 9-2 제주 호근 지역의 언어와 생활(2009. 3. 31. 355쪽)

[표 4-9]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3집(2007년~2008년 지역어 조사 결과 중 구술 발화)

- 1-1 중국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2008. 3. 31. 728쪽)
- 2-1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카자흐스탄 알마티(2008. 3. 31. 763쪽)
- 2-2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2009. 3. 31. 792쪽)

그 외에도 지역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새로운 어휘를 발굴하기 위해 각 지역을 대상으로 방언 경연 대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에는 ‘제주 민속의 해 기념 방언 경연 대회’(5. 27.)를 개최했으며, 2008년에는 ‘전북 민속의 해 기념 방언 경연 대회’(9. 7.), 2009년에는 ‘경북 민속의 해 기념 방언 경연대회’(9. 12.), 2010년에는 ‘충남 민속 문화의 해 기념 방언 경연 대회’(10. 6.)를 개최하였다.

2010년 현재는 국내외 권역별 지역어 조사 자료 통합 및 보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역어 보존 및 정보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국내 권역별 조사뿐만 아니라 국외의 한민족 집단 이주지에 대한 조사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13년까지 지역어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에서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 민족생활어 조사

국어기본법 제2조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어의 보전과 계승은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거나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고유한 생활어나 전통 직업어의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국립국어원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에 걸쳐 기층 생활어 및 직업어를 조사·발굴하는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의 생활 현장 곳곳에서 쓰이는 말의 모습을 관찰·기록하여, 삶과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어휘를 발굴하고 전승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조사된 어휘들은 “표준국어대사전”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분야별로 자료를 축적하여 “민족생활어사전” 편찬 작업에도 이용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구술 자료와 음성 분절 파일 및 전사 파일, 그리고 멀티미디어(사진, 동영상) 자료를 축적하여 국어문화체험관 설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사업에 착수한 첫 해인 2007년에는 전국 6개 권역 26개 지점에서 34개 분야, 71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 작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10권의 보고서로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제보자의 생애 구술 자료와 조사된 어휘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조사 대상물에 대한 세부 명칭이나, 그것의

제작 과정에서 활용되는 용어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수록했으므로 전통 생활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민족생활어의 조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4-10] 2007년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목록

보고서 명	조사 지역	조사 분야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	제주	해녀, 어부, 민속주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2	경북 북부	제례음식, 혼례음식, 향토음식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3	전북 전주	전통 건축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4	경북 영덕, 칠곡, 문경	육지 해녀, 미역채취업, 어부, 옹기장, 대고장, 유기장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경북 성주, 경산	세시풍속, 민속놀이, 짚공예, 소목장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6	전북 부안, 순창	김치, 젓갈, 장아찌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7	강원도, 경기 가평	심마니, 한지장이, 광부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8	경남 김해, 울산, 부산	옹기장, 사기장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9	충남 금산, 대전	금산지역 생활어, 대장장이, 무속인, 단청장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0	전남 담양	참빗장, 족렴장, 부채장, 채상장, 악기장

이어 2008년에는 제주, 경북, 서울·경기, 대구, 경남, 충북, 강원, 경기, 경남, 전남의 10개 지역에서 ‘김치’ 관련 생활 어휘를 비롯한 11개의 생활어 및 공통 주제에 대한 어휘를 조사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떡’과 관련된 생활 어휘를 포함한 전통 생활어 및 직업 생활어 관련 10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10개 지점에서 조사했다. 이어 2010년에는 어촌 기초 어휘 및 어촌 직업 생활어 관련 4개의 주제에 대해 동·서·남해안과 제주도 등 4개 지점에서의 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은 동일 항목에 대한 어휘의 각 지역별 차이를 주제로 하여 조사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언중이 사

용하는 생생하고 다양한 어휘를 발굴하고, 서로 다른 집단별, 직업별, 영역별 생활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어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05 국어 정보화

1. 21세기 세종 계획

현대 사회를 흔히 지식 정보 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국어학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 방법이 활성화되어 자연 언어 처리 및 말뭉치 구축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국어학의 한 분야로 ‘국어 정보화’가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95년 국어심의회에도 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고 1994년 국어 정보 처리 기반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어 1998년부터 “21세기 세종계획”이라는 국어 정보화 중장기사업이 추진되어 국어 정보화 분야가 국어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1세기 세종계획’이란 1998년부터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던 국어 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2004년 직제 개편에 따라 국립국어원이 주관하게 되었다. ‘세종계획’이라는 명칭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우리말과 글을 쉽게 사용하게 되었듯이, 이 사업을 통해 국어 정보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총 15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연간 30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의 세부 목표는 세 가지인데 첫째, 세계 수준의 국어 기초 어휘 자료 구축을 통한 우리말의 정보화, 둘째, 표준화된 전자사전 구축을 통한 우리말의 체계화, 셋째, 한민족 언어 정보화를 통한 우리말의 세계화가 그

것이다. 세종 계획은 ‘발전 단계(1998년~2000년), 성숙 단계(2001년~2003년), 활성화 단계(2004년~2007년)’의 3단계로 나누어 실행되었다.



[그림 5-1] 21세기 세종계획의 목적과 목표

세종 계획은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국어 정보 기반 구축 사업’과 ‘국어 정보화 여건 조성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전자에는 국어 기초 자료 구축, 국어 특수 자료 구축, 전자사전 개발, 한민족 언어 정보화, 전문 용어 정비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문자 코드 표준화, 글꼴 개발 보급 지원, 국어 정보화 인력 양성,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 관리 및 정제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그림 5-2] 21세기 세종계획 사업 구성도



[그림 5-3] 21세기 세종계획 성과 발표회(2007. 12. 11.)

‘국어 정보 기반 구축 사업’에 속한 ‘국어 기초 자료 구축’은 ‘말뭉치’라고 하는 대규모 언어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문학작품, 신문 기사, 교양서적 등 각종 현대 국어 문어 자료를 가리키는 ‘기초 자료’와 구어 자료, 한영 또는 한일 대역 자료, 역사 자료, 북한 및 해외 한국어 자료 등을 가리키는 ‘특수 자료’ 나누어 구축되었다. ‘전자사전’은 다양한 용도의 전산 처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언, 용언, 복합어, 조사 어미’ 등의 전자사전을 개발

하였다. ‘한민족 언어 정보화 분과’에서는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을 구축하고 남북한 언어 변환 프로그램, 남북한 방언 검색 프로그램, 어문 규범 검색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었다. ‘전문 용어 정비’ 급속도로 일반화되고 있는 전문 용어를 정비하고 표준화함으로써 학계는 물론 일반 사회의 언어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어 정보화 여건 조성 사업’에 속한 ‘문자 코드 표준화 연구’에서는 한·중·일 한자 코드 표준화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글꼴 개발 보급 지원’을 통해 한글 글꼴 디자인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일어났다. 또한 국어 정보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국어 정보화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결과물 보급 관리는 1998년부터 시작한 21세기 세종계획의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국어 기초 자료 구축’에서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현대 국어 말뭉치 9,258만 어절, 국어 특수자료 3,288만 어절, 과거 국립국어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의 말뭉치를 후처리한 7,500만 어절 등을 포함해 약 2억 46만 어절의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그림 5-4] 21세기 세종계획 누리집

또한 ‘전자사전 구축’에서는 품사별 하위 사전과 이것들을 통합한 통합 전자사전을 개발하였으며 이 사전은 하위 사전으로 체언 사전·용언 사전·연어 사전·특수어 사전·복합 명사구 사전·부사·관용표현·어근/접사·고유명사 사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 전자사전의 기반으로 기초 사전 45만 항목, 상세 사전 15만 항목을 구축하였다. 세종 전자사전은 사전 정보를 XML 방식으로 표상하여 현 상태 그대로 전산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도 쉽게 변환될 수 있다. 또한 세종 전자사전은 표상되는 각종 정보들이 고유명사, 전문용어, 방언, 북한어, 구어, 음성 사전 등의 위성 사전과 연계되도록 모듈화함으로써 확장성 및 기술적인 유연성을 강화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한민족 언어 정보화’에서는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문 규정’,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방언’, ‘국어 어휘의 역사’, ‘한국 전통문화 어휘’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학회의 용어 심의를 거쳐 한·영 대응 목록 18만 건을 구축했고, 이들 단어에 대해 국어학적인 조어법 분석과 맞춤법·외래어 표기법 등을 검수하였으며 ‘문자 코드 표준화’에서는 ‘옛한글 표준화, 비표준한자 표준화, 한자정보 DB 구축’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1998년부터 10년 동안 추진된 21세기 세종계획은 2007년 12월, ‘21세기 세종계획사업’ 성과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이 사업은 한글 정보화 사업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수준 높은 국어 정보화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과물들은 시디(CD)와 디브이디(DVD)로 제작, 배포되었으며, 21세기 세종계획 누리집(www.sejong.or.kr)을 통해 말뭉치 용례 및 전자사전, 한민족언어정보화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표 5-1]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추진실적	투자액
○ 국어기초자료 구축	- 현대 국어, 역사자료, 북한어 등 다양한 분야의 말뭉치 2억 어절 구축 - 용례추출기,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등 말뭉치 활용 도구 개발	5,174
○ 전자사전 개발	- 체언, 용언, 고유명사 등 약 57만 항목 구축	3,748
○ 한민족 언어 정보화	- 어문규정(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로마자 표기법) 검색시스템 개발 - 남북한 언어 비교사전, 남한 및 북한 방언 검색 시스템, 국어 어휘 역사 검색 시스템 개발 등	1,656
○ 전문용어 정비	- 경제, 물리, 화학, 생물, 의학, 수학 분야 등 전문용어 목록 18만 항목 구축 - 표준화를 위한 전문용어 목록의 국어학적 검토	799
○ 국어정보화 여건조성 (국어정보화 인력 양성, 비표준문자등록지원, 글꼴 개발 보급 지원)	- 국어정보화 아카데미(7회) 개설 - 옛한글 및 한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자코드 표준화 연구 등 - 한글 글꼴 용어사전 편찬, 글꼴 현황 보고서 발간 등	1,583
○ 기타	- 21세기 세종계획 누리집 개발 - 결과물 보급센터 운영 - 단계별 성과 발표회(2회) - 평가 및 감리	1,085
계		14,045

2. 디지털 한글박물관 □

디지털 한글박물관은 한글과 관련된 모든 문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일반 대중이 한글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

적이 있다. 즉, 디지털 한글박물관은 한글을 국가 지식의 핵심 콘텐츠로서 인식하고, 한글 문화유산 정보를 영구적으로 축적하고 한글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디지털 한글박물관의 한글 주소는 ‘한글박물관’, 영문 주소는 ‘www.hangeulmuseum.org’이다.

디지털 한글박물관은 전통적 개념의 박물관에서 벗어나 시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소통 체계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박물관 간의 정보 교류 및 대중과의 소통이 주요한 과제가 되었는데 디지털 한글박물관은 바로 이러한 정보 축적 및 소통 체계를 새롭게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에 사이버 한글박물관(이후 ‘디지털 한글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구축 계획이 시작되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총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글 고문헌을 비롯한 한글 역사 자료와 한글 서예 등의 한글 예술사 자료, 족보·서간과 같은 한글 생활문화사 자료, 교과서 등의 한글 교육사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보존되는데 한글 문화 자료의 수집과 공간은 여러 도서관과 박물관 및 개인 소장가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전체 자료 목록 작성, 소재처 확인, 촬영, 디지털화의 작업을 진행한 결과, 3개년 동안 한글 중요 문헌 약 500여종, 40,000면의 자료들이 디지털 파일로 정리되었다. 그 결과물들은 디지털 한글박물관 내 학술정보관의 고문헌 전용 탐색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제 및 원문 정보도 함께 구축되어 있다.

디지털 한글박물관은 2007년 10월 9일, 정식으로 개관했다. 디지털 한글박물관의 전시관은 ‘역사관’, ‘조형예술관’, ‘교육문예관’, ‘학술정보관’, ‘미래관’의 5개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훈민정음’이 전시되어 있는 ‘역사관’은 한글 창제 발전의 역사를 주제로 한 전시관이다. 한글의 예술성과 문화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형예술관’에는 한글의 제자 원리와 글꼴을 비롯한 한글 조형 예술 및 한글 비석 혹은 간판 등과 같은 한글 생활 문화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한글 교육과 문예 창작을 주제로 한 ‘교육 문예관’에는 한글 규범 및 교육 과정과 국어 교과서 관련 자료,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글이 담긴 한글 문예 작품 등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학술정보관’은 한글 관련 고서 등 소장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제공하는 공간으로, 각종 논문들을 비롯한 국어 연구 자료와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관’은 기계화·정보화·세계화로 압축되는 한글의 미래상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한 전시관으로, 타자기·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한글 문자 발전의 상징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다양한 주제의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여 디지털 한글박물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2006년에는 ‘한글 국보·보물 특별전’이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옛 한글 편지 특별전’, 2008년에는 ‘한글 음식조리서전’, 2009년에는 ‘외국어 학습서전’이 개최되었으며 2010년에는 ‘옛 사전’을 주제로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각 전시회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글 자료의 원문이 번역과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한글 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플래시, 만화 등을 활용하였다.



[그림 5-5] 옛 한글 편지 특별전(2007년)

‘디지털 한글박물관’에서는 2010년 한글날을 맞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어휘력과 맞춤법 능력 등을 향상할 수 있는 우리말 학습용 게임인 ‘도깨비

대왕과 한글 수비대'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게임은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이야기적인 요소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며 모두 5개의 단위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깨비 대왕이 훔쳐간 한글을 한글 수비대가 되찾는 과정에서 '띄어쓰기, 문장 완성, 맞춤법, 단어 선택' 등의 우리말 게임을 반복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면서 우리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 역사를 온 국민과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전시, 교육, 연구의 장으로 '한글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 정문 동쪽에 들어설 '한글박물관'은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글이 쓰여 있거나 한글과 관련된 국내외의 문서, 출판·인쇄물, 증서, 유품, 기념품, 글꼴, 디자인, 문화 상품, 예술 작품, 기계, 생활용품, 사진, 영상 자료, 신문, 교육 자료, 한글 역사 연구 자료 등을 전시하는 한편 한글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3. 한글 문화유산 디지털화

국어 문화유산은 보존해야 하는 것이지만 직접 향유해야 할 문화적인 자산이기도 하다. 한글로 간행된 문헌을 현대어로 번역하고 해설하는 일은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오늘날에 되살려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2003년부터 '한글 100대 문화유산'을 선정하여 현대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까지 모두 25권의 역주 및 현대어 번역 사업이 이루어져서 국어 문화유산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표 5-2] 100대 한글 문화유산

번호	문헌명	분류	출판
1	훈민정음(해례본, 언해본)	문자, 언어	2003년
2	동국정운	문자, 언어	
3	홍무정운역훈	문자, 언어	2005년
4	사성통해	문자, 언어	
5	천자문(광주판천자문, 석봉천자문)	문자, 언어	
6	유합(신증유합, 유합)	문자, 언어	
7	훈몽자회	문자, 언어	
8	국문연구의정안	문자, 언어	2004년
9	이문대사	문자, 언어	
10	국어문법(조선어문법)	문자, 언어	
11	규장전운(전운옥편)	문자, 언어	2006년
12	국한회어	문자, 언어	
13	재물보(물보, 물명고)	문자, 언어	
14	소학언해(번역소학, 소학언해)	유학서(경서언해)	
15	논어언해	유학서(경서언해)	
16	맹자언해	유학서(경서언해)	
17	시경언해	유학서(경서언해)	
18	서진언해	유학서(경서언해)	
19	주역언해	유학서(경서언해)	
20	삼강행실도(삼강행실도언해, 속삼강행실도)	유학서(경서언해)	2003년
21	이륜행실도	유학서(경서언해)	2006년
22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유학서(경서언해)	
23	오륜행실도	유학서(경서언해)	
24	내훈(내훈, 어제내훈)	유학서(경서언해)	

번호	문헌명	분류	출판
25	여씨향약언해	유학서(경서언해)	2004년
26	경민편	유학서(경서언해)	
27	가례언해	유학서(경서언해)	
28	석보상절	불가서(불경언해)	
29	월인석보	불가서(불경언해)	
30	능엄경언해(활자본, 목판본)	불가서(불경언해)	
31	아미타경언해(활자본, 목판본)	불가서(불경언해)	
32	몽산법어언해	불가서(불경언해)	2006년
33	법화경언해	불가서(불경언해)	
34	금강경언해	불가서(불경언해)	2005년
35	원각경언해	불가서(불경언해)	
36	금강경삼가해	불가서(불경언해)	
37	남명집언해	불가서(불경언해)	
38	육조법보단경언해	불가서(불경언해)	
39	초발심자경문언해	불가서(불경언해)	2004년
40	오대진언(한글판 및 영험약초포함)	불가서(불경언해)	
41	상원사중창권선문	불가서(불경언해)	
42	은중경언해	불가서(불경언해)	2003년
43	성경직해	천주교, 기독교	
44	예수성교전서	천주교, 기독교	
45	번역노걸대(노걸대언해)	역학서	2005년
46	번역박통사(박통사언해)	역학서	
47	역어유해	역학서	
48	한칭문감	역학서	
49	몽어노걸대	역학서	

번호	문헌명	분류	출판
50	삼역총해	역학서	
51	몽어유해	역학서	
52	청어노걸대	역학서	
53	동문유해	역학서	
54	첩해신어(개수본, 중간본)	역학서	
55	오륜전비언해	역학서	
56	구급방	기술서	
57	구급간이방	기술서	
58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기술서	
59	구황촬요	기술서	
60	무예도보통지언해	기술서	
61	마경초집언해	기술서	
62	병학지남	기술서	
63	규합총서	기술서	2006년
64	증수무원록언해	기술서	
65	용비어천가	문학서(운문)	
66	월인천강지곡	문학서(운문)	
67	두시언해(중간두시언해)	문학서(운문)	
68	시용향약보	문학서(운문)	
69	악학궤범	문학서(운문)	
70	악장가사	문학서(운문)	
71	청구영언	문학서(운문)	2006년
72	해동가요	문학서(운문)	
73	가곡원류	문학서(운문)	
74	송강가사	문학서(운문)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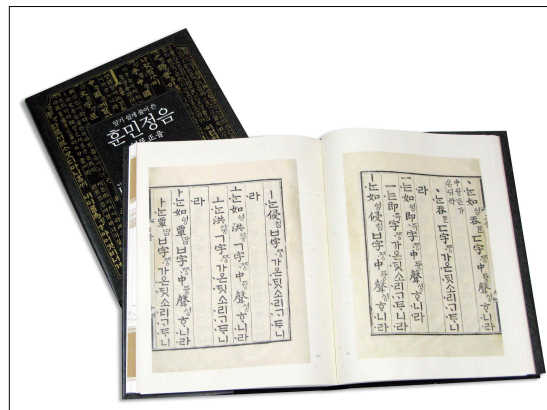
번호	문헌명	분류	출판
75	고산유고	문학서(운문)	
76	연행가	문학서(운문)	2004년
77	일동장유가	문학서(운문)	
78	한양가	문학서(운문)	2006년
79	용담유사	문학서(운문)	
80	춘향전	문학서(산문)	2005년
81	홍부전	문학서(산문)	
82	심청전	문학서(산문)	
83	구운몽	문학서(산문)	2006년
84	홍길동전	문학서(산문)	
85	한중록	문학서(산문)	
86	의유당관북유람일기	문학서(산문)	2006년
87	혈의누	문학서(산문)	
88	명주보월빙	문학서(산문)	
89	낙성비룡	문학서(산문)	
90	선조국문유서	생활사 자료	
91	독립서고문	생활사 자료	
92	윤음언해	생활사 자료	
93	조선시대 한글편지	생활사 자료	
94	정미가례시일기	생활사 자료	
95	서유견문	신식 간행물	
96	독립신문	신식 간행물	
97	관보	신식 간행물	
98	월인석보판목(갑사 소장)	인쇄 자료	
99	경서언해책판(서울대 규장각 소장)	인쇄 자료	

번호	문헌명	분류	출판
100	역학서책판(고려대 소장)	인쇄 자료	

*위의 목록 외에 “자학제강”의 역주가 2007년에 이루어졌음.

한편, 이러한 문화유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훈민정음” 등 주요 문헌을 번역하여 보급하고 시대별 우리말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훈민정음 해례본”을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으며, 15세기 목판본인 용비어천가를 판각 복원하여 여러 사람들이 원본에 가까운 옛 문헌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옛 문헌의 역주 역시 국어 문화유산 보전의 한 방법으로 “언문지”, “자학”, “마경초집언해”, “구황촬요”, “내훈” 등이 역주, 번역되었다.

이와 함께 ‘한글’의 디자인을 활용한 한글의 산업화에도 힘을 기울여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생활화, 세계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과 관련 전시회 등에 사회적인 관심이 적지 않았다.



[그림 5-6] 훈민정음

06 국어 생활 지원

1. 우리말 다듬기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는 우리말에 침투해 있던 일본어의 잔재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창기에는 주로 일본어 투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지금은 어렵고 난해한 어휘와 무분별한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연구소 시절부터 시작한 순화 업무는 국어연구원이 출발하면서 본격화되어 그동안 여러 분야의 순화어를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순화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그렇지만 국어 순화는 제시하는 순화어에 비해 언어생활에 정착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2004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말터(www.malteo.net)’을 운영하여 누리꾼의 투표로 우리말 다듬기를 진행하고 있다.

‘말터’에서는 누리꾼이 직접 언어생활에서 과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어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순화어를 선정하고 있으며 ‘순화 후보어’는 음절이 간결하고 의미의 연관이 큰 말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말터’는 대외 홍보를 위하여 동아일보, KBS 등 언론사와의 협조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현재(2010. 11. 24.)까지 ‘리플, 웰빙, 스크린도어, 네티즌, 스팸메일’ 등 모두 278개의 어휘를 순화하였으며 이중에서 ‘댓글, 참살이, 아

자, 누리꾼' 등이 대중의 호응을 얻어 현재 널리 쓰이고 있다. 구체적인 목록은 [부록 3]의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말터와 말터 순화어 목록'을 참조할 수 있다.

2. 가나다전화와 온라인 가나다 □

'가나다전화[대표 전화:1599-9979(2010년 이전에는 02-771-9909)]'는 국민들에게 국어 생활에 대한 바른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1991년 2월 2일에 처음 설치한 대국민 국어 정보 서비스이다. 국어 생활 전반에 관련된 국민들의 질문에 전문 상담원이 직접 답변해 줌으로써 국어 생활의 기준이 되는 어문 규범을 널리 보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문장 부호, 외래어 표기 등 어문 규범뿐 아니라, 호칭이나 인사말과 같은 언어 예절, 국어 문법 등을 비롯한 국어 생활 전반에 관련된 국민들의 문의 및 건의를 접수하고 답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어 문법, 한국어 교육 등 질문의 폭이 넓어지고 내용 또한 심화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1992년 12월에는 1년간의 가나다전화 기록 카드를 자료 삼아 “가나다전화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1995년, 1996년, 1997년 역시 그간의 처리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어문 규범, 표준 화법, 단어의 용법, 국어 순화, 국어 정책 건의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가나다전화자료집” 수정·증보판을 발간하였다. 1999년 12월에 발간된 “국어연구원에 물어 보았어요”는 1993년 1월부터 1999년 8월까지 국어연구원에 접수된 민원 중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추린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가나다전화'의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질문의 내용 또한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에는 '온라인 가나다'를 설치하여 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화로는 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문제 또한 신속

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국어 생활의 길잡이가 될 만한 여러 자료를 국어연구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나다전화’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2000년에는 1만 2608건, 2004년에는 2만 8178건, 2008년에는 3만 1288건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가나다전화’ 2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가나다전화’를 ‘국어생활종합상담실(1599-9979)’로 확대 개편하였다. 기존의 기능 외에 공공기관의 행정용어 순화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언어 상담 창구’를 추가하고 급증하는 질문에 비해 부족했던 상담 인력을 보충하는 한편 전화 자동 연결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였다.

아래의 표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가나다’를 통해 들어온 질문을 빈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국어 관련 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010년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이처럼 국민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질의응답 사례를 모은 “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에 물어보았어요”를 발간하였다.

[표 6-1] 가나다전화 고빈도 질문

순위	내용	건수	백분율	순위	내용	건수	백분율
1	-에요/-예요	222	0.72%	11	따옴표 안의 온점	98	0.32%
2	되-/돼-	215	0.47%	12	-받다/√받다	96	0.31%
3	로써/로써	134	0.44%	13	-대/-테	95	0.31%
4	못하다/못√하다	126	0.41%	14	않는/않은	86	0.28%
5	-오/요	126	0.41%	15	명사형 종결 뒤의 온점	73	0.24%
6	-므로/-므로(써)	115	0.37%	16	년/연	64	0.21%
7	‘ㄹ’ 어간의 명사형	106	0.34%	17	-냐/-느냐/-으냐	59	0.19%
8	한번/한√번	102	0.33%	18	-를/-을	59	0.19%

순위	내용	건수	백분율	순위	내용	건수	백분율
9	-슴/-음	99	0.32%	19	날짜 뒤의 온점	58	0.19%
10	-데/√데	98	0.32%	20	-씨/√씨	57	0.19%

※ 2009년 1월 1일~11월 30일까지 '가나다전화', '온라인 가나다',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총 30,749건의 질문을 빈도순으로 정리한 것임.

[표 6-2] 가나다전화 상담 건수 변화



[표 6-3] 가나다전화 연혁 및 실적

연도	처리 실적	누계	근무 인원	비고
1991	4,857	4,857		2월 2일 설치
1992	3,183	8,040		
1993	2,733	10,773		
1994	2,141	12,914		
1995	2,101	15,015		
1996	2,151	17,166		
1997	3,395	20,561		
1998	3,621	24,182		
1999	4,461	28,643		
2000	12,608	41,251	2	전임 상담원(상담 수요 급증)
2001	16,279	57,530	3	회선 둘로 늘려 서비스 시작

연도	처리 실적	누계	근무 인원	비고
2002	15,773	73,303	3	
2003	20,510	93,813	3	
2004	28,278	122,091	3	1991 ~ 2004년, 12만 건 상담 기록
2005	36,338	158,429	3	2005. 2. ~ 2007. 4. 세계화 재단 운영
2006	40,821	199,250	3	
2007	37,749	236,999	3	7월부터 상담 기록 방식 전산화. (구체적 기록)
2008	31,018	268,017	3	8월부터 학예연구직이 관리함
2009	26,964	294,981	3	7월부터 전담 관리자 배치
2010	35,403	330,384	4	2월부터 상담원 1인 증원 5월부터 전용 시스템 도입 1599-9979로 대표 전화 변경

[표 6-4] 온라인 가나다 연혁 및 실적

연도	처리실적	근무 인원	비고
1999	366	1	10월 ~ 12월
2000	1,866	1	
2001	2,620	1	
2002	3,577	1	
2003	4,859	1	
2004	4,982	1	
2005	6,413	1	2005. 2. ~ 2007. 4. 세계화 재단 운영
2006	7,775	1	
2007	7,350	2	9월부터 2인 근무
2008	7,973	2	
2009	6579	2	
2010	10,515	3	8월부터 3인 근무

3.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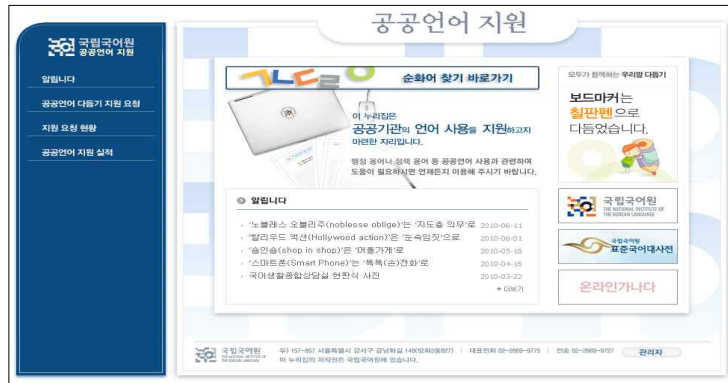
공공언어 전반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09년 5월에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 지원단’이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언어 지원은 공공언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언어 지원은 언어 사용에 대한 지식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언어 사용의 지침서를 보급하고 각 기관의 국어책임관을 중심으로 공공언어의 감수를 국어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2009년)”을 개발하여 중앙 행정 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의 공공기관에 배포하였으며(2만여 부 배포)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행정 용어 순화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국세청의 세무 행정 용어 개선을 지원하고 전동차 안내 문안 감수, 문화재 안내 문안 감수, 행정용어 사전 표현·표기 감수(중소기업청 415건, 기획재정부 2,028건, 지식경제부 2,978건)와 같이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언어 개선의 객관적 근거와 평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공공기관 서식·문서 국어 사용 실태 조사(2009년)”,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조사(2010년)”, “계약서, 약관 등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2010년)”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공기관의 서식·문서 등을 조사한 결과는 2010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생활 서식 개선 사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또한 국어책임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어생활 종합 상담실(대표 전화: 1599-9979)’를 설치하고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공언어 전용 누리집’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공공기관 언어 지원을

상시화하는 한편 ‘가나다전화’와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2009년부터 국세청, 국방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중앙 행정 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기관에 이르기까지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 2010년에는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를 분석하여 언어 사용이 우수한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 단체 각 3곳에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그림 6-1] 공공언어 누리집

4. 방송 · 신문 · 인터넷의 언어 개선 □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 언어를 개선하는 것 또한 공공언어 분야에서 무척 중요하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 언어가 현실 언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 언론사 등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품격 있고 정확한 언어 사용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매체 언어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방송과 관련된 사업은 2005년부터 지상파 방송4사(KBS, MBC, SBS, EB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협약 체결 이후 2010년까지 지상파 방송4사와 함께 ‘방송 화법, 뉴스 문장, 방송 언어 교육, 방송 언어의

경어법, 방송 발음, 고품격 언어 사용'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의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국어 순화, 공공언어와 관련된 홍보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방송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오·남용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지침을 개발하였다. 2010년에는 방송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사례를 매월 조사하여 개선안을 제작자에게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으며 올바른 신문 언어 사용을 위한 지침서를 제작하여 신문 종사자들이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8년과 2009년에는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인터넷 댓글 관련 만화책을 발간, 배포하여 올바른 인터넷 언어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인터넷 관련 결과물은 전자책의 형태로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올려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과서 등의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5. 교육 언어 개선 □

교육 언어 개선 지원은 교과서 언어를 감수하는 것으로 국어 전문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교과서의 표기·표현 감수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교과서 언어의 질적인 발전은 물론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의 바탕을 조성하고 있다.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 검정을 맡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력을 맺고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교과서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어문 규범을 감수하고 있다. 2010년 현재 검인정 교과서의 표기·표현 조사를 국립국어원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국정교과서에는 '어문 규범 감수: 국립국어원'과 같이 표시하여 국립국어원의 어문 규범 감수를 거친 도서임을 드러내고 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교과서에 대해 어문 규범 감수를 실시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검인정 교과서 1400여 종에 대한 표기·표현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교과서 표기·표현 조사를 위한 지침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 지침을 ‘인문·사회 편’, ‘수학·과학 편’으로 나누어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교과서 표기·표현 분야에서 국립국어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용 언어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어의 수준별 어휘를 선정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를 조사하고(2009년), 초등학교 학생의 글쓰기 어휘와 한국어 기초 어휘에 대한 연구(2010년)을 진행하였다.

한편,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각종 전문 용어들이 일상생활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 전문 용어는 외래어가 많고 의미가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용어들을 적시에 정비하고 보급하는 것은 언어 공동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 용어의 체계적 보급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용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7 국어 능력 향상

1. 국어소식지 발간을 통한 국어 능력 개발

1) 계간지 “새국어생활”

“새국어생활”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991년 3월에 창간하여 2010년 현재까지 꾸준히 발행하고 있는 계간 교양지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은 국어연구소로부터 확대 개편되어 새롭게 정립되면서 합리적인 어문정책의 수립을 뒷받침할 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국어생활(1984년 10월~1990년 가을)”을 바탕으로 “새국어생활”을 발행했다. 국어와 관련한 여러 정보와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국립국어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 안병희 초대 원장은 간행사에서 “합리적인 어문정책은 우리의 말과 글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새국어생활”의 창간 의의를 밝혔다. 그리하여 “새국어생활” 창간호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세워야 할 좌표’에 대해 논한 ‘좌담’을 비롯하여, 한국 성씨의 유래 및 종류, 우리말 이름의 로마자 표기, 성명학 등을 논한 특집기사 ‘한국인의 이름’ 등으로 구성되었다.

“새국어생활”은 특집 기사와 ‘이 곳 이 사람’, ‘그 분을 그리며’, ‘어원 탐구’, ‘우리 시의 향기’, ‘국어 산책’, ‘세계의 언어 정책’, ‘국립국어원 소식’의 고정란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동안 고정적으로 연재해 오던 ‘국어의 궁금증

을 풀어 드립니다’는 2010년에 들어서 ‘세계의 언어 정책’으로 내용을 바꾸었다. “새국어생활”의 전문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표 7-1] “새국어생활” 구성

	학술	교양	홍보
창간호 ~ 2004년 제14권 제4호	△ 특집	△ 나의 책 나의 학문 △ 어원 탐구 △ 우리 시의 향기 △ 우리 소설 우리말 △ 국어 생활 논단 △ 국어학의 이해 △ 국어 산책 △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 국어원 소식
2005년 제15권 제1호 ~ 2007년 제17권 제2호	△ 특집	△ 이곳 이 사람 △ 어원 탐구 △ 우리 시의 향기 △ 우리 소설 우리말 △ 국어 생활 논단 △ 고향 말을 찾아서 △ 알면 쉬워지는 우리말(구. 국어학의 이해) △ 한글과 현대 생활 △ 국어 산책 △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 국어원 소식
2007년 제17권 제3호 ~ 2010년 제20권 제1호	△ 특집	△ 이곳 이 사람 △ 어원 탐구 △ 우리 시의 향기 △ 우리 소설 우리말 △ 국어 생활 논단 △ 국어 산책 △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 국어원 소식
2010년 제20권 제2호 ~ 현재	△ 특집	△ 이곳 이 사람 △ 그분을 그리며 / 삶과 우리말 △ 어원 탐구 / 풍경 속 우리말 △ 우리 시의 향기 / 우리 소설 우리말 △ 국어 산책 △ 세계의 언어 정책	△ 국어원 소식

※ ‘고향 말을 찾아서’(15-2 ~ 17-2), ‘알면 쉬워지는 우리말’(~ 17-1), ‘한글과 현대 생활’(17-3, 17-4) 등은 한시적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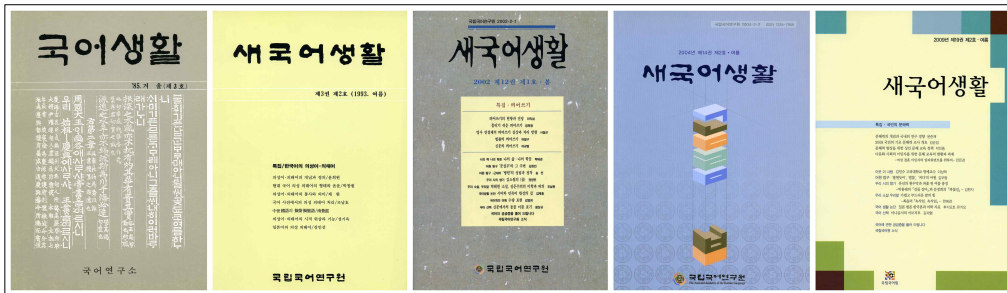
[표 7-2] “새국어생활” 특집 목록

호수	발행일	특집명
제1권 1호	1991년 봄	한국인의 이름
제1권 2호	1991년 여름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제1권 3호	1991년 가을	국어의 경어법
제1권 4호	1991년 겨울	동양 삼국의 언어 정책
제2권 1호	1992년 봄	국어사전의 뜻풀이
제2권 2호	1992년 여름	광고와 언어
제2권 3호	1992년 가을	언어병리학의 이론과 실제
제2권 4호	1992년 겨울	동양 삼국의 사전 편찬에 관한 문제
제3권 1호	1993년 봄	한국어의 발음
제3권 2호	1993년 여름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
제3권 3호	1993년 가을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3권 4호	1993년 겨울	북한의 국어사전
제4권 1호	1994년 봄	한국의 지명
제4권 2호	1994년 여름	한국의 속담
제4권 3호	1994년 가을	일석 이희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4권 4호	1994년 겨울	갑오경장 100년 기념
제5권 1호	1995년 봄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제5권 2호	1995년 여름	국어에 나타난 일본어의 언어적 간섭
제5권 3호	1995년 가을	한결 김윤경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5권 4호	1995년 겨울	신문·방송 언어
제6권 1호	1996년 봄	언어와 문학
제6권 2호	1996년 여름	21세기의 한글
제6권 3호	1996년 가을	건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6권 4호	1996년 겨울	외래어 표기법
제7권 1호	1997년 봄	언어 습득

호수	발행일	특집명
제7권 2호	1997년 여름	로마자 표기법
제7권 3호	1997년 가을	열운 장지영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7권 4호	1997년 겨울	차자 표기
제8권 1호	1998년 봄	사전 편찬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제8권 2호	1998년 여름	외래어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제8권 3호	1998년 가을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8권 4호	1998년 겨울	방언
제9권 1호	1999년 봄	국제 한자의 표준화
제9권 2호	1999년 여름	한자 문화권의 한자 교육
제9권 3호	1999년 가을	최세진의 학문과 인간
제9권 4호	1999년 겨울	한국인의 글쓰기
제10권 1호	2000년 봄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제10권 2호	2000년 여름	학교 문법
제10권 3호	2000년 가을	서과 유희 선생의 학문과 인간
제10권 4호	2000년 겨울	로마자 표기법 정착 방안
제11권 1호	2001년 봄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제11권 2호	2001년 여름	한국어 자료 정리 방안
제11권 3호	2001년 가을	설총 선생과 국어
제11권 4호	2001년 겨울	영어 공용어화
제12권 1호	2002년 봄	띄어쓰기
제12권 2호	2002년 여름	한국인의 국어 능력
제12권 3호	2002년 가을	신숙주의 학문과 인간
제12권 4호	2002년 겨울	문장부호
제13권 1호	2003년 봄	표준 화법
제13권 2호	2003년 여름	국어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제13권 3호	2003년 가을	국어의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

호수	발행일	특집명
제13권 4호	2003년 겨울	방언과 문화
제14권 1호	2004년 봄	표준어 정책, 비판적 접근과 대안 모색
제14권 2호	2004년 여름	외래어와 외국어
제14권 3호	2004년 가을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위한 국어 교육
제14권 4호	2004년 겨울	언어와 사회
제15권 1호	2005년 봄	국어 순화
제15권 2호	2005년 여름	매체 환경의 변화와 국어 생활
제15권 3호	2005년 가을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5권 4호	2005년 겨울	논술·구술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
제16권 1호	2006년 봄	소외 계층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
제16권 2호	2006년 여름	한국어교원 자격시험과 검정시험제도
제16권 3호	2006년 가을	국경일로 다시 태어난 한글날
제16권 4호	2006년 겨울	신어
제17권 1호	2007년 봄	전문용어와 국어 생활
제17권 2호	2007년 여름	국어발전 기본계획
제17권 3호	2007년 가을	한국어의 어휘 의미망
제17권 4호	2007년 겨울	사라져 가는 언어들
제18권 1호	2008년 봄	다문화사회와 한국어
제18권 2호	2008년 여름	영어 공교육 강화와 한국어
제18권 3호	2008년 가을	국외 한국어교육과 세종학당
제18권 4호	2008년 겨울	외래어 표기 반성
제19권 1호	2009년 봄	세종계획의 성과와 전망
제19권 2호	2009년 여름	국민의 문해력
제19권 3호	2009년 가을	국어능력시험의 현황과 발전 방안
제19권 4호	2009년 겨울	새로운 사전 편찬의 의미와 과제
제20권 1호	2010년 봄	국어 시험과 국어 능력

호수	발행일	특집명
제20권 2호	2010년 여름	장애인 언어 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20권 3호	2010년 가을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방향
제20권 4호	2010년 겨울	새국어생활 20년의 성과와 반성/새국어생활에 바란다



[그림 7-1] “새국어생활” 역대 표지

2) 월간지 “새국어소식”

“새국어소식”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998년 8월에 창간하여 2006년 1월까지 발행하였다. “새국어소식”은 국어 규범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국민 모두에게 언어생활의 표준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창간호에서 이익섭 국립국어연구원장은 ‘국어의 환경 보호’라는 머리글을 통해 우리 언어생활에서 남용되고 있는 외국어 표현, 통일되지 않은 외래어 표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어 생활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국어소식”의 본문은 ‘표준어’,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 ‘언어 예절’, ‘우리말 바로 알기’, ‘국어 정보화’, ‘현장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등의 정보란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국어 지식 및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새국어소식”에 실린 글들은 가벼운 읽을거리처럼 보이지만 ‘국어’ 관련 교과서 개발의 지문으로 널리 활용될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3)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쉽표, 마침표.”는 “새국어소식”을 온라인 소식지로 바꾼 것이다. 기존에 전자 책 형식으로 발간하던 것을 2010년 2월부터 웹 문서 형식으로 개편하였다. 개편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이용자와의 소통’이다. 디자인을 포함하여 내용 또한 독자들에게 좀 더 흥미로운 국어 정보 및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쉽표, 마침표.”는 일반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국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바르고 정확한 어문규정 전달은 물론, 언어생활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우리말이 지니는 매력을 음미할 수도 있도록 아름다운 시어와 사투리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쉽표, 마침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구축되어 있으며, 신청하면 전자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그림 7-2] 쉽표, 마침표

4) “국어 연감” 발간

국립국어연구원은 1992년부터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 한 해 동안의 국어학계 연구 실적과 동향을 정리한 결과를 “국어학 연감”이라는 책으로 발행해 왔다. 그 내용은 국어 분야의 주요 일지, 국어 분야별 동향, 국어학 관계 문헌, 국어 관련 학과 및 학회·단체 등이다. 국어 분야별

동향은 국어 정책과 제도,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어휘론·사전학, 국어사·계통론, 사회언어학, 국어정보학 별로 정리된다. 이외에도 국어 생활 분야에서 국어 순화, 특수 언어와 소수자 문제, 남북 언어 교류, 전문 용어 정비, 국어 단체 활동, 여론과 쟁점, 국립국어원 동향 등이 다루어졌다.

국어학 관계 문헌 목록에는 국어학 분야별 논저 목록과 정기 간행물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 국어 관련 학과 및 학회·단체 명부에는 전국 대학 국어 관련 학과 및 대학원, 관련 기관, 학회 및 단체 목록이 포함되었다.

“국어학 연감”은 한 해 동안의 국어 연구 성과를 분야별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학계의 학문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학계의 논의를 일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좀 더 심도 있는 발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국어학 연감”은 2005년에는 “국어 연감”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07년부터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전자 책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표 7-3] “국어학 연감” 수록 내용

연도	국어학의 연구 동향(1992~2005)/국어 분야별 동향(2006~)
국어학 연감 1992	국어 정책, 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의미론, 어휘론, 사전 편찬학, 국어사, 국어학사, 문자·표기, 차자 표기, 방언, 전산 국어학, 북한의 국어학
국어학 연감 1993	국어 정책, 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의미론, 어휘론, 사전 편찬학, 국어사, 국어학사, 문자·표기, 차자 표기, 방언, 전산 국어학, 북한의 국어학, 북한에서의 국어학 연구 동향
국어학 연감 1994	국어 정책·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 편찬학, 국어학사, 문자·표기·차자 표기
국어학 연감 1995	국어 정책·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 편찬학, 국어학사, 문자·표기·차자 표기
국어학 연감 1996	국어 정책·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 편찬학, 국어학사

연도	국어학의 연구 동향(1992~2005)/국어 분야별 동향(2006~)	
국어학 연감 1997	국어 정책·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 편찬학, 국어사·국어학사, 문자·표기·차자 표기, 방언·사회 언어학	
국어학 연감 1998	국어 정책·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 편찬학, 국어사·국어학사, 문자·표기, 방언·사회 언어학	
국어학 연감 1999	국어 정책, 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 편찬학, 국어사·국어학사, 문자·표기, 방언·사회 언어학	
국어학 연감 2000	국어 정책, 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 편찬학, 국어사·국어학사, 문자·표기, 방언·사회 언어학	
국어학 연감 2001	국어 정책, 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 편찬학, 국어사·국어학사, 문자·표기, 방언·사회 언어학	
국어학 연감 2002	국어 정책, 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 편찬학, 국어사·국어학사, 문자·표기, 방언·사회 언어학	
국어학 연감 2003	국어 정책, 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 편찬학, 국어사·국어학사, 문자·표기, 방언·사회 언어학	
국어학 연감 2004	국어 정책,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 편찬학, 국어사·국어학사, 문자·표기, 방언·사회 언어학	
국어 연감 2005(2권으로 발행)	국어학의 연구 동향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 편찬학, 국어사·국어학사
	국어 생활 분야	정책과 제도, 국어 단체 활동, 여론과 쟁점, 한국어 교육과 번역, 국어 교육과 능력 평가, 국어 순화와 전문 용어 정비, 특수 언어와 소수자 문제, 남북 언어
국어 연감 2006	국어학 분야	국어 정책,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 편찬학, 국어사·국어학사, 문자·표기, 방언·사회 언어학
	국어 생활 분야	국어 단체 활동, 국립국어원 동향, 여론과 쟁점, 국가 기관의 한국어 국외 보급 실태, 한국어 교육 실시 현황, 번역 활동의 성과, 국어 능력 시험의 실시 현황과 결과 분석, 국어 순화, 전문 용어의 정비, 특수 언어와 소수자 문제, 남북 언어 교류
국어 연감 2007	국어학 분야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 국어 정보학·사전학, 국어(학)사·계통론

연도	국어학의 연구 동향(1992~2005)/국어 분야별 동향(2006~)	
	국어 생활 분야	국어 정책·사회 언어학,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여론과 쟁점, 남북의 규범어와 “겨레말큰사전”, 국립국어원 동향
국어 연감 2008	국어 정책,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학, 국어사·국어학사, 방언, 사회 언어학, 국어 정보학	
국어 연감 2009	국어 정책과 제도,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어휘론·사전학, 국어사·계통론, 사회 언어학, 국어 정보학	
국어 연감 2010	숫자로 살펴본 국어 연구의 동향, 국어 정책,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의미론·사전학, 국어사·국어학사, 사회 언어학, 방언, 국어 정보학	

2. 국어문화학교 운영 □

국어문화학교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가나다전화’로 인해 국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전 국민에게 올바른 국어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1992년 5월에 설치한 것이다. 강좌는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바른 글쓰기(문장 바로 쓰기,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 순화, 논설문 쓰기 등), 바르게 말하기(표준 발음, 표준어, 언어 예절, 토의와 토론, 연설과 대화, 효율적인 말하기, 1분 스피치 등), 언어문화(속담의 이해, 고시가의 이해, 고사성어를 찾아서, 시와 언어의 만남 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 전문가가 강의를 담당한다.

국어문화학교의 강좌는 초창기에는 국어반과 번역반으로 나뉘어 개설되었다. 국어반은 교사, 공무원, 편집인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문 규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여 정확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

었다. 번역반은 전문 번역인이나 번역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관련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번역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번역반은 지금은 정기적으로 개설되지는 않는다.

[표 7-4] 국어문화학교 과정 개요

	대분류	과정 구분	과정 이름
국어문화학교	국어 전문 교육 과정	정규 과정(원내)	공무원·일반인 과정
			교사 연수 과정
		특별 과정(원내)	언론·출판인 과정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특별 과정 등
		기획·지원 과정 (원외/타기관 주관)	고급 전문 교육(국회 사무처)
			지자체의 강의 기획·지원 요청
	기타 단체의 의뢰에 대한 기획·협조 등		
찾아 가는 국어문화학교	1회 2강좌 4시간 이하		

국어문화학교의 제1기 강좌는 1992년 5월에 열렸다. 국어반 강좌의 내용은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 순화’, ‘언어 예절’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번역반 강좌는 ‘서구어와 국어의 특성’, ‘번역과 언어학’, ‘번역 일반론’, ‘번역과 국어’, ‘이중 번역의 문제’, ‘번역과 문화적 차이’, ‘번역의 현황’, ‘번역의 실제’, ‘문학 작품의 번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어 제2기 강좌가 7월에 열렸으며, 9월에 제3기, 11월에 제4기 강좌가 열렸다. 특히 11월에는 출판사에서 교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편집인과 출판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반 강좌를 별도 개설했다. 여기에는 계몽사, 민중서림, 삼성출판사, 예림당, 웅진출판사, 을유문화사의 6개 출판사 교열 담당자 10명이 참여하여 현행 어문 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1993년 4월, 6월, 9월에 각각 제5기, 6기, 7기 강좌가 개설되었다. 4월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어반 강좌가 진행되었고, 6월에는 전문 편집 및 출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어반이 개설되어 어문 규범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9월에는 67명의 번역 전문가들이 참여한 번역반 강좌가 개설되었다. 강좌는 ‘한국어 번역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와 외국어의 특성 비교 및 실제적 용례’, ‘원문에 대한 오해와 부적절한 번역’, ‘이중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일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과 같은 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문장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번역 실습’도 이루어졌다.

1994년 4월에 개설된 제10기 특별반 강좌는 출판·편집·교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강의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및 문장 부호’,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7월에 열린 제11기 강좌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반을 편성했다. 덕수궁 내 궁중유물전시관에서 진행된 강좌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더불어 청소년의 언어 예절 문제도 다루었다. 제12기 강좌는 9월에 번역 관련 종사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설되었다. 강좌는 ‘한국 번역 문화의 실상’, ‘번역과 국어’, ‘이중 번역의 문제’, ‘신어·외래어와 일본어’, ‘번역의 실제’, ‘번역과 오역’이라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이어 10월에 열린 제13기 강좌는 출판업계 종사자 및 사보(社報) 편집 실무자 41명이 수강했다. 기존 강의 프로그램에 북한어 관련 주제가 새로 추가 설정되었고,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에 대한 종합 토론 시간도 포함되었다.

1995년 5월에는 출판인 및 일반인 49명을 대상으로 제15기 특별반 강좌가, 전문 번역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16기 특별반 강좌가 개설되었다. 15기 강좌에는 기존 강의 프로그램에 더해 ‘국어와 소설’, ‘국어와 시’와 같은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16기 강좌는 ‘번역 문학의 실상’, ‘번역과 한글 맞춤법’ 등의 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7기 강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7월에 열렸는데, ‘문학과 독서’, ‘한글과 컴퓨터’ 등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을 고려한 주제

들이 강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이어 9월에는 출판 및 편집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18기 특별반 강좌가, 11월에는 회사원 및 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9기 국어반 강좌가 열렸다.

1996년 4월에는 출판계 실무자와 일반인을 포함한 57명을 대상으로 제20기 특별반 강좌가, 6월에는 전문 번역가 및 관련인을 대상으로 제21기 번역반 강좌가 열렸다. 8월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2기 강좌를 개설하여 ‘독서와 글쓰기’, ‘논술과 실제’ 등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9월에 열린 제23기 강좌는 총 60명의 출판 관계자와 일반인이 참여하여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및 화법, 표기법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11월에 열린 제24기 강좌는 공무원, 회사원 등 73명을 대상으로 어문 규정에 대한 해설과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1997년 5월에는 출판 담당자 76명을 대상으로 제25기 강좌가 개설되었다. 강의는 ‘국어의 계통’, ‘표준어와 방언’, ‘바른 문장 쓰기’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제26기 번역반 강좌가 6월에 열려, 63명의 번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번역 일반론 및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어 제27기 국어반 강좌가 10월에, 제28기 강좌가 11월에 열렸다.

1998년 4월과 6월에 개최된 제29기 국어반 강좌, 제 30기 번역반 강좌에는 각각 168명, 131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제29기 강좌는 ‘표준 발음법 해설’, ‘좋은 글쓰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제30기 강좌는 ‘번역 문화’, ‘고전 번역의 실제’, ‘실무 번역’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어 10월에 열린 제32기 국어반 강좌에도 130명이 참여하여 국어 생활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제33기~35기 강좌는 각각 1999년 4월, 5월, 6월에 열렸다. 4월과 5월에는 각계각층의 인사 134명, 98명이 각각 참석했으며, 6월에는 번역 전문가 107명이 참여했다. 이어 제36기 여름반 강좌가 8월에, 제37기 가을반 강좌가 10월에 열렸다. 특히 공무원 참여율이 부쩍 늘자 국어연구원은 국어문화원의

강좌 이수 여부가 5~9급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훈련 성적(선택 전문 과정)에 반영되도록 행정자치부(지금의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자 1999년 공무원의 참여율은 국어문화학교 수강 총인원의 89%에 이르게 되었다.

2000년에는 국어반 40명 모집에 1,045명이 지원할 만큼 국어문화학교의 강좌가 일반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월에 열린 제38기 국어반 강좌는 ‘바른 문장 쓰기’, ‘바른 어휘 쓰기’, ‘바른 발음’, ‘국어 속의 한자어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2월에는 ‘번역의 기법’, ‘국어 문법과 번역’ 등의 논제를 중심으로 제39기 번역반 강좌가 개설되었다. 방학 때 개설된 강좌인 만큼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이어 3월부터 11월까지 제40기~제50기 국어반, 번역반 강좌 역시 매달 성황리에 개설되었다.

이처럼 국어문화학교 강좌에 대한 일반의 호응이 점차 더해 가자, 국립국어원은 이를 더욱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제도화를 시도했다. 특히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 교육 과정(5일 35시간/5점 가산)으로 승인받았으며,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어반(5일간, 35시간)과 번역반(3일간 21시간)을 운영했다.

아울러 2000년부터 국내외 각지에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성인 30명 이상이 원하는 날짜, 시간, 과목을 정하여 신청하면 신청 기관에 찾아가서 강의를 해 주고 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낙도, 오지에 사는 일반 국민의 신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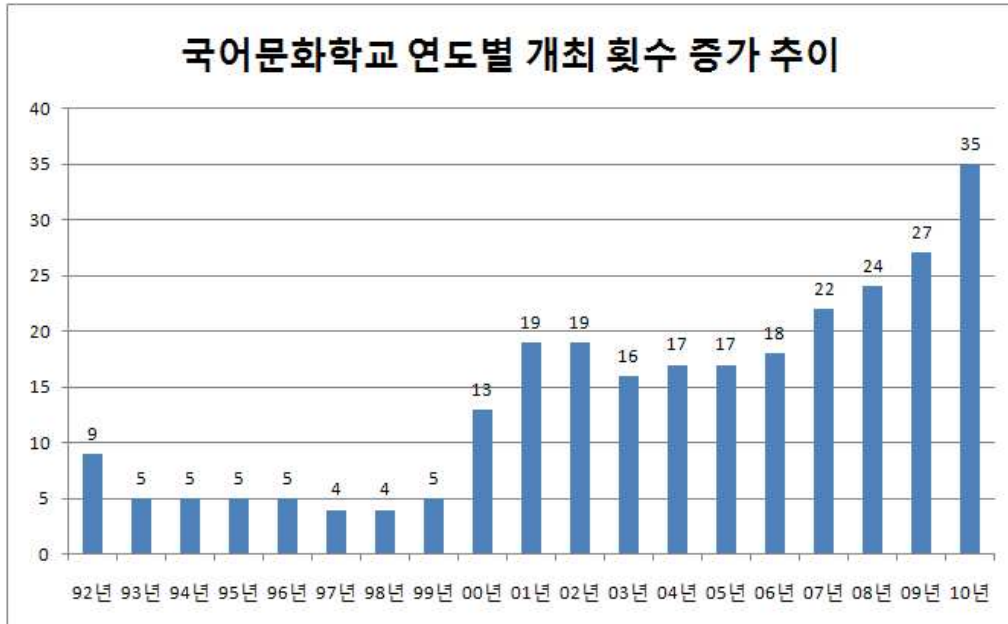
2010년 현재 국립국어원은 일반 국민 및 공무원, 교사를 대상으로 국어 재교육을 수행할 국어문화학교에 대한 운영 기획은 물론, 언론·출판인, 새터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연 10여회에 걸친 국어문화학교 특별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부 기관·단체와의 공동 기획 강좌를 운영하고,

국어문화학교 강사의 자질 향상과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표 7-5]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연도별 개최 현황(1992년~2010년)

국어문화학교 개최 및 수강 인원 현황						
연도	전체 과정 개최 횟수	정규 과정 횟수(기수)	수강 인원(명)	전년 대비 증감 인원	전년 대비 증가율	비고
1992년	9	4	170	-	-	
1993년	5	5	275	105	61.8%	
1994년	5	5	235	-40	-14.5%	
1995년	5	5	211	-24	-10.2%	
1996년	5	5	296	85	40.3%	
1997년	4	4	266	-30	-10.1%	
1998년	4	4	637	371	139.5%	
1999년	5	5	603	-34	-5.3%	
2000년	13	13	1,113	510	84.6%	
2001년	19	18	1,292	179	16.1%	
2002년	19	18	1,452	160	12.4%	
2003년	16	16	1,486	34	2.3%	
2004년	17	17	1,458	-28	-1.9%	
2005년	17	17	1,765	307	21.1%	
2006년	18	18	1,921	156	8.8%	
2007년	22	21	2,354	433	22.5%	
2008년	24	19	2,443	89	3.8%	
2009년	27	23	2,733	290	11.9%	
2010년	35	19	3,174	441	16.1%	
계	269회	236기	23,884명	매년 평균 158명 증가	평균 증가율 21%	

[표 7-6]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연도별 개최 횟수 추이(1992년~2010년)



3. 온라인 국어 학습 □

‘온라인 국어 교육 및 학습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강의 체계 구축’은 2008년에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국립국어원이 17년간의 국어문화학교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기획한 사업이었다. 국어문화학교 강좌가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한 일반인의 국어 지식 함양에 널리 이바지했던 점을 감안할 때, 그 경험과 자료를 온라인상에 구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접근 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었다.

2008년 가장 먼저 선보인 온라인 콘텐츠는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그리고 “공문서 바로 쓰기”였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외국어 남용과 잘못된 언어 사용에 대한 지적은 적지 않았지만 상시적으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실제로 국어문화학교를 수강하고자 하는 공무원 가운데는 여건상 학습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일주일간의 교육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거리와 공간의 제약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학습 강좌는 시간과 공간상의 장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국어 교육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온라인 강좌에는 여기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종류의 공문서 및 신문·인터넷 기사 작성 실례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공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용어 선택, 문장 작성 방법과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단계별, 분야별로 내용을 세분화하여 관심 분야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를 통해 2008년 7월부터 시험 서비스되기 시작하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희망하는 교육 기관에 무료로 제공되어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립국어원은 공무원과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0년 현재 “한글 맞춤법”, “새터민 발음 교육”,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공문서 바로 쓰기”의 강좌 4종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어서 온라인 강좌의 학습 관리 체계 및 진도 관리, 평가 등 단계별 자가 학습 진단 시스템을 포함한 자가 학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3종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표 7-7] 온라인 강의 개발(2007년~2010년)

번호	과목명	내용	차시	시간	개발 시기
1	한글 맞춤법	어문 규범 가운데 한글 맞춤법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	20	10	2007년
2	공문서 바로 쓰기	공문서의 개념과 공문서 작성에 필요한 국어 지식을 분야별로 설명	12	6	2008년
3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외래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순화해야 하는 이유와 실제 사례 등을 설명	12	6	2008년
4	표준어 규정	어문 규범 가운데 표준어 규정(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을 알기 쉽게 설명	13	6.5	2010년
5	외래어 표기법	어문 규범 가운데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과 그 구체적인 표기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	8	4	2010년
6	로마자 표기법	어문 규범 가운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표기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	3	1.5	2010년
7	구별해야 할 어휘	흔히 혼동하기 쉬운 어휘의 정확한 뜻과 용법을 설명함.	4	2	2010년
		1차시 = 약 30분	72차시	36시간	

4. 언어 취약 계층 교육 □

국립국어원의 언어 취약 계층에 대한 국어 교육은 장애인이 원활한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점자와 수화를 비롯한 특수 언어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수 언어 표준화 지원 사업은 시·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점자와 수화를 어문 정책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보급함으로써 장

애인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2005년에는 한국 점자 규정(1997. 12. 17. 고시)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고시했으며, 글쓰기 관련 도서를 점자로 번역하여 시각 장애인 단체 및 개인에게 배포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언어 사용 실태 조사, 특수 언어 사전과 교재의 편찬, 특수 언어 교육 및 대중화를 위한 방송 콘텐츠 개발과 누리집 구축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청각 장애인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약 7,000~8,000개의 수화 단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청각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의 기본 어휘는 대략 2,000개로, 이는 초등학생 수준의 의사표현만 가능한 정도이다. 이에 문화관광부와 한국농아인협회는 2000년부터 이러한 청각 장애인의 제한적인 언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표준 수화 규범 제정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화는 일반적인 국어의 구조 및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국어 대응식 수화 낱말 중에는 장애인들의 자연 수화와는 전혀 다른 국어를 그대로 직역하여 왜곡된 것들이 많았다. ‘한국 표준 수화 규범 제정 사업’ 7개년 계획은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고, 청각 장애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전해 왔던 수화를 표준화·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수화 문형 사전”은 바로 그 최종 결과물로서 2007년에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것이다. 이 사전의 편찬 작업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 문장 5,028개를 모아 그 구성 성분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작업에는 수도권 11명, 강원권 6명, 충청권 10명, 호남권 14명, 영남권 17명 등 모두 58명의 수화 능력이 우수한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촬영 조사와 면접 조사에서 그들이 사용한 문장의 분석 내용을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 문장 검토 작업은 한국농아인협회 16개 시도협회와 23개의 농학교에서 추천한 9명을 포함하여 모두 21명의 심

의위원이 맡았고, 이 과정에서 농인 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사업’의 제1단계(2000년~2006년) 계획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제2단계(2007년~2011년) 계획 수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어 2007년에는 영동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시각 장애 유아용 점자 학습 도서인 “신나는 점자놀이”를 발간하였다. 일반 유아들은 다양한 종류의 책을 통해 문자를 비롯한 많은 정보를 얻는 데 반해, 시각장애 유아들은 그 경로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문자 생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시각 장애인들이 청각, 촉각, 미각을 사용한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문자를 익힐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기본 점자 및 노래가 수록된 시디(CD), 6점의 점자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 장비(키트)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개월간 청각 장애인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가 진행됐다. 조사는 등록된 청각 장애인 203,324명을 모집단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별, 층화 표집(stratified sampling : 모집단을 층으로 나눠 표본을 추출)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2009년 3월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연구 결과는 차후 특수 언어 관련 연구 사업에 반영되었다.

2009년 발간된 4종의 수화 책자(“의학 수화”, “정보통신 수화”, “일상생활 수화”, “한국수화 2”)는 청각 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함께 발행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청각 장애인의 언어생활을 돕기 위한 사전이 편찬된 바 있었다. 약 6,800여 개의 표제어가 등재된 “한국 수화 사전”(2005)이 그것이다. 이 사전의 편찬을 위해 국내외 각종 자료를 망라하여 표제어를 선정하고 한국농아인협회, 청각 장애 특수학교, 대학에 설치된 특수교육과 등 관계자들의 검토와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표제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나 구로 제한되어 있어 청각장애인의 언어생활 수준을 향상시키

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에는 좀 더 폭넓은 일상 언어와 전문 분야의 용어를 포함한 수화 사전을 새로 편찬하기 위한 작업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같은 해에 법률, 교통 두 분야의 수화 사전이 편찬되었고 2008년에는 정보통신, 의학 분야의 필수 용어를 선정하여 수화를 새로 만들거나 표준화한 “의학 수화”(의학 용어 1,180개 수록)와 “정보통신 수화”(정보통신 용어 601개 수록)가 발간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표준화한 단어에 포함되지 않은 일상생활 수화 단어를 모은 “일상생활 수화(2)”(일상용어 2,065개 수록)도 발간되었다.

한편, “한국 수화2”는 수화의 보급과 교육을 위해 개발된 수화 표준 교본으로 집 구하기, 초대, 요리, 시장 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수화를 수록한 것이다. 이 책은 수화가 그 나름의 문법과 규칙을 지닌, 한국어와는 다른 구조로 된 언어임을 강조하였다. 그 때문에 이 책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5종의 구성 체제와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이 책은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농학교 교사 및 수화 통역사를 비롯한 수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수화 회화 교재로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림 7-3] “의학수화”, “정보통신수화”, “일상생활수화(2)”, “한국수화 2” 표지

2009년 6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교육방송(EBS)에서 방영한 “함께 배우는 한국 수화 1” 프로그램 역시 일상에 필요한 기본 수화 교육을 위해 개발된 것이었다. 이 방송은 독립된 언어로서 고유한 문법을 가지고 있는 수화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30주 동안 총 60강으로 기획되었다. 인사, 자기 소개, 쇼핑, 교통편 묻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수화를 그 내용으로 다루었다. 수화 인식 개선 캠페인 영상과 수화 동아리, 온라인 동호회 등의 활동 소개 영상도 함께 제공되었다.

또한 점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적인 점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누리집인 “점자 세상”(www.braillekorea.org)도 개설되었다. 이는 국립국어원과 하상장애인복지관이 함께 구축·운영하며 한글 점자와 세계 점자의 소개, 점자 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영어로 대한 점자 번역, 점자에 대한 한국어·영어 번역을 수행하는 점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점자 번역 교정사 분야의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일반인들도 점자를 쉽게 익힐 수 있게 하였다.



[그림 7-4] ‘점자세상’ 누리집

2009년 11월 18일에는 ‘한국 수화 발전 및 수화 사용 인구 확충 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2010년 4월에는 수화 단어 9600여 개의

동영상으로 구성된 ‘수화웹사전’이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개통되었다. 이는 2000년부터 제정해 온 표준 수화 규범 가운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어를 모아 만든 것으로, 동영상 외에도 단어의 뜻과 수화 삽화, 동작에 대한 설명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교사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수화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은 수화 중급 교재 및 점자 규정 개정 기초 연구 등 장애인의 특수 언어 표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5.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

최근 여성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 그리고 새터민 등 국내 이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와 양상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의 언어 능력과 환경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질적인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사업을 또한 이러한 흐름과 관련이 있다.

그중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게 된 여성 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 이민자의 수는 12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이를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인 110만 명을 크게 넘어서는 등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실시된 법무부와 서울시의 조사 결과, 여성 결혼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제한된 국어 능력 때문에 가정 안팎의 생활에서 소외되는 등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에서 불편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2007년부터 EBS와 함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송”을 제작·방송해 오고 있다. 2008년에는 결혼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초급) 방송 프로그램 사업 보고회 및 시연회가 개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방송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교재(초급)”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중국어 25편, 베트남어 25편, 타갈로그어 25편을 합하여 모두 75편으로 제작되었으며,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4월 22일까지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말하기와 듣기 기능에 중점을 두어 구성되었으며, 상황별 대화를 반복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중국·베트남·필리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민족성을 고려한 각기 다른 코너를 편성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2008년 9월 9일 업무 협정을 맺은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한국어 학습사전” 등 한국어 교재 9종 487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국립국어원은 미8군 부대 안에서 진행되는 카투사 장병들에 대한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초급)”(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이 10월 19일부터 다음 해 2월 10일까지 17주 동안 방영되었다. 그리고 이것의 연속선상에서 2010년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이 방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쿡트 형태로 제작하여 주요 대화 상황을 제시했다. 문법을 비롯한 한국어 어문 규범에 대

한 설명은 한국인 전문가와 원어민이 각각 한국어와 현지어로 공동 진행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한 여성 결혼 이주민이 한국 문화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외국인 진행자가 이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한국이 궁금해요’와 같은 코너도 마련되었다.

한편,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을 위한 교육 과정 및 전문 교원 양성 과정 개발·운영’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문학습지 개발’ 사업 역시 국립국어원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한국어 교육 과정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 국내외에서 이주민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우선 1월에는 다문화 가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방문 교육 지도사(한국어 교육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교육을 시행했다. 그동안 지방에서 활동하는 지도사들의 대부분은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수혜를 입지 못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84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받은 우수 방문교육 지도사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이 한국어 교육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국내 최고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국어기본법상 한국어 교원 자격 3급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국립국어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가 협력 운영하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지도사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1월부터 7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차 교육은 1월에 국립국어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차 교육은 2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상에서, 마지막 3차 교육은 7월에 국립국어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최종 시험을 통과한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들에게는 국립국어원 원장 명의의 교육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이어 7월부터는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위해 우수 한국어 교원과 전문가들을 한국어 교육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활동을 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 강의 경력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한국어 교원 실무 지도자’를 선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파견해 직접 강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무 지도자들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사전 실무 교육을 이수하였다.

8월에는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양성 과정을 실시했다. 이 교육과정에 초청된 총 17개국에서 활동 중인 세종학당 교원 70여명은 17일부터 28일까지 11일 동안 한국어 교육 교수법 특강 및 실습 과정에 참여했다. 또한 15일부터 28일까지는 한글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국외 한국어 교원 연수회’도 개최되었다. 이 연수회에는 해외 18개국의 대학, 중·고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및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시행과 더불어 한국어 교원을 위한 한국어 교재 및 지침서의 개발·보급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2010년 7월에 발간된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1·2 교원용 지침서”와 “중급 한국어 1 교원용 지침서”가 그 결과물이다. 전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소관)에서, 후자는 국외 세종학당에서 기본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 지침서는 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국내외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에 무료로 배포되며,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kr)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립국어원은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을 위한 방문 학습지 개발·보급 등 다양한 한국어 교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1단계로 2009년에는 활동지 2수준 56주 프로그램, 동화책·시디(CD) 14종, 언어 진단 도구 및 성취 평가 도구, 부모용 지도서(8개 국어), 교사용 지침서 등을 개발했다. 이어 2010년은 개발 2단계로, 한국어 방문 학습 교재와 보조 자료,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다.

그 밖에도 국립국어원은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기본 교재의 개발

과 보급을 위해 2010년 6월~12월까지 학계와 공동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모형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국어 기본 교재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단계별 한국어 기본 교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9년에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중급 한국어1 지침서”, “중급 한국어 2”,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3·4” 및 지침서 등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2010년에는 “초급 한국어 지침서”, “중급 한국어2 지침서”가 발간되었다. 이외에도 국립국어원은 국내외 한국어 교원을 위한 연수회 개최, 다양한 한국어 교육 교재 및 지침서 개발·보급, 온라인 교원 양성 과정 개발 등 다문화 가정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6. 국어문화원 지원 □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올바른 표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는 “① 국어가 문자·활자 문화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고려하고, ② 학교 교육에서는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 읽는 능력과 쓰는 능력을 기초로 하는 언어에 관한 능력(언어력)을 함양”하기 위한 ‘문자·활자 문화 진흥법안 요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영어문화권 대학의 문장상담소(writing center)는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문장, 문단 만들기, 논리 연결 등 주로 글쓰기를 상담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국어 사용 촉진, 국어 발전의 기반 조성과 국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과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24조에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원칙과 요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인 국어상담사가 상주하며 언어 전반에 대한 상담을 담당할 상설 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5년 6월에는 국립국어원과 한글학회가 공동으로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한 상담을 담당할 국어상담소 설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006년, 11개 기관이 국어상담소로 지정되었다. 서울·경기도 지역에서는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 상담소, 한국방송(KBS) 국어상담소가 지정되었으며, 충청도 지역에서는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국어상담소, 청주대학교 국어상담소, 충북대학교 국어상담소가 생겨났다. 경상도 지역에는 경북대학교 국어생활상담소,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상담센터,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센터가 지정되었으며,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부설 국어상담소가 설치되었다.

이어 2007년에는 전라도 지역의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강원도 지역의 강원대학교 국어상담소, 제주도 지역의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가 추가 지정되었다. 이들 기관은 어문 규범, 국어 문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질문은 물론,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법 지도,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문안과 정책 용어 검토, 법령문·안전 설명문·제품 설명서·문화재 안내 표지판 등의 실용문 검토 등을 담당한다. 또한 시민 대상의 글쓰기·말하기 지도, 어휘력·문장력 향상, 독서 지도,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발전 등과 같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업무를 해당 지역에서 전개한다. 2008년, 국어상담소는 ‘국어문화원’으로 개칭되었으며, 울산과 대전 지역 2곳이 국어문화원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2010년 경기 지역에 1곳이 추가 지정되었다. 2010년 현재 전국 7개 권역 17곳에 국어문화원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표 7-8] 국어문화원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5년 8월	선정 기준 마련 및 신청서 접수
2005년 9월	심사회의 개최 및 실사 실시
2005년 10월	국어상담소 지정(11곳)
2006년 4월	전국국어상담소 연합회 결성
2007년 1월	전북, 강원, 제주 지역 3곳 추가 지정
2008년 3월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8년 12월	울산, 대전 지역 2곳 추가 지정
2010년 5월	경기 지역 1곳 추가 지정
2010년 12월	전국 17곳 지정 운영

[표 7-9] 전국 17개 국어문화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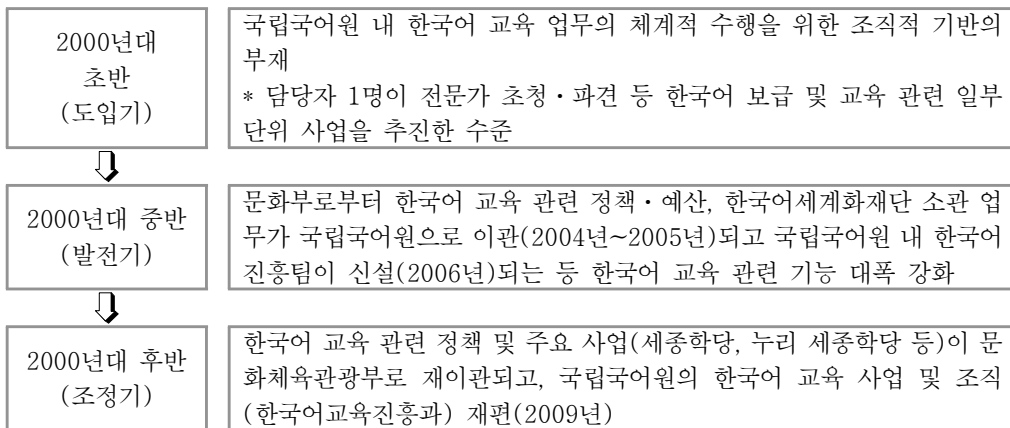
번호	문화원	원장	지정일
1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남영신	2005. 10.
2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남길임	2005. 10.
3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황병순	2005. 10.
4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엄정호	2005. 10.
5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구현정	2005. 10.
6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이혁화	2005. 10.

번호	문화원	원장	지정일
7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진옥	2005. 10.
8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서상준	2005. 10.
9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김희숙	2005. 10.
10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김진식	2005. 10.
11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유애리	2005. 10.
12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남기탁	2007. 1.
13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소강춘	2007. 1.
14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영봉	2007. 1.
15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이은섭	2008. 12.
16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정희	2008.12.
17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김정수	2010. 5.

08 국외 한국어 보급

1. 세종학당 운영

2000년대에 이르러 국내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보급 추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일환으로 한국어의 해외 보급을 담당할 ‘세종학당’을 설치하는 한편,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용 교재 개발·보급, 한국어 교원 자격 검정 시험, 한국어 학습자용 포털사이트 개발 등의 사업은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그림 8-1] 한국어 교육 진흥 계획

국어기본법 제19조에서는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며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국립국어원은 2007년부터 국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설립한 한국어 문화 학교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데에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과 함께,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실시,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인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한 아시아권 전역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 고조 현상이 그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국어 학습 수요층이 다변화함에 따라 소수 지식인 중심이 아닌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의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다.

‘세종학당’은 재외 한국문화원과 대학을 포함한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아시아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적 규모의 한국어 문화권역을 형성한다는 목표 의식은 다른 국가의 언어 보급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세종학당’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언어와 문화의 보급은 주변 국가에 대한 일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언어문화 침탈로 비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종학당은 설립 목적을 ① 문화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쌍방향의 문화교류와 이해 촉진 ② 지식인 중심의 엘리트 교육에서 탈피, 대중적 한국어 교육의 확대 ③ 국가 간의 문화적 연대와 공존을 위한 교류 협력 증진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획 아래 설립된 ‘세종학당’은 정부가 설치·지원하는 한글학교, 세종학당,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한국문화원(한국어교실)등 모든 한국어 보급기관을 망라한 한국어 교육 통합 단일 브랜드로서 육성된다. 자국어와 문화 보급 기관을 국가 브랜드로 활용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

도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어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고 자국어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보급기관의 통합 브랜드화는 한국어의 위상 향상 및 국가 브랜드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학당의 설치 및 운영은 우선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그 외 지역들의 한국어 보급 환경이 서로 다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 일본 등 한국어가 이미 확산된 동북아시아에서는 재외동포 중심의 정부 지원 체계를 현실성 있게 개편하고,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되, 이미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 교육기관에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효하다. 반면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의 경우, 한국어 수요는 높지만, 아직 한국어 보급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 계획 추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를 제1단계 사업 기간으로 설정하여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100개교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2단계 사업 기간에는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100개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별·국가별 표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한국 문화와 현지 문화가 융합된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보급’, ‘현지 한국어 교사의 재교육 등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양성’, ‘온라인 한국어 교육체계 및 운영 관리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설정되었다.

[표 8-1] 세종학당 사업 추진 단계

구 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증(누계)	2(2)	68(70)	80(150)	50(200)	50(250)	50(300)	50(350)

구 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설(누계)	14(14)	8(22)	28(50)	30(80)	30(110)	20(130)	20(150)
합 계	16	92	200	280	360	430	500

이러한 추진 계획에 따라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의 4개국에서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몽골의 교육문화과학부, 국립사범대학 울란바타르대학, 그리고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 중앙민족대학과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그리하여 2007년 3월에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과 국립사범대학의 2개교에 세종학당이 개원하게 되었다. 이어 5월에는 독립국가연합 지역(CIS)의 대학들과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 협정을 체결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인문대학,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우즈베키스탄의 니자미 국립사범대학과도 업무 협정을 체결하거나,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7월에는 중국 천진 외국어대학교와의 업무 협정이 이루어졌다. 이어 2008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원광에 세종학당이 설립되었고, 2010년까지 캐나다, 벨기에,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이탈리아, 터키, 영국, 짐바브웨 등지에서 세종학당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또는 진행 중이다.

[표 8-2] 세종학당 설치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몽 골	몽골국립대	설 립	운 영	운 영	운영 중
	몽골 울란바타르대	설 립	운 영	운 영	운영 중
중 국	연변대학	설 립	운 영	운 영	운영 중
	연변과학기술대학	설 립	운 영	운 영	운영 중
	북경외국어대학배훈학원	설 립	운 영	운 영	운영 중
	중국인민대학신식자원학원	설 립	운 영	운 영	운영 중
	한국언어문화연구소	설 립	운 영	운 영	운영 중
서안외국어대학교	설 립	운 영	운 영	운영 중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산동대학 위해분교	설 립	운 영	운 영	운영 중
	해양대학	설 립	운 영	운 영	운영 중
	양주대학	설 립	운 영	운 영	운영 중
	천진외국어대학	설 립	운 영	운 영	운영 중
미 국	LA문화원	설 립	운 영	운 영	운영 중
러시아	모스크바 원광		설 립	운 영	운영 중
캐나다	오타와 문화홍보관				설 립
벨기에	브뤼셀 문화홍보관				설 립
베트남	국립호찌민대학				설 립
아랍에미리트	자이드대학				설립 중
이탈리아	로마대학				설립 중
터 키	앙카라대학				설립 중
영 국	런던대학 SOAS				설립 중
짐바브웨	아프리카대학				설립 중

또한 직접 세종학당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교육 기관이나 시설에 세종학당의 자격을 부여한 ‘인증 세종학당’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과 같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는 일괄적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선택적으로 인증을 부여 하고 있다.

[표 8-3] 인증 세종학당 지정 현황

구 분	일괄 인증	선택 인증
대 상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	민간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로 신청 심사 후 인증
	한국교육원(14국 39개) 한국문화원(12국 1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 단체 등
지 정 현 황	- 43개소 지정 한국교육원(30개), 한국문화원(14개)	- 9개소 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4개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개소), 민간 대학 및 법인(4개소)

그뿐만 아니라, 세종학당 운영자와 한국어 학습자 및 교원을 위한 원격 교육 시스템인 인터넷 누리집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을 구축하여 한국어 교육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도 추진하였다. 이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온라인 통합 정보망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하기 쉽도록 접근성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누리-세종학당’에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등 다양한 언어의 수준별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며, 각종 교육 자원 및 교육 과정 관리 체계를 개발하여 탑재할 계획이다. ‘누리-세종학당’은 다국어 사이트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인데, 2010년 12월 현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가 지원이 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스페인어, 러시아어의 2개 언어가 추가될 예정이다.

2.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

한편,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를 위한 두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과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가 그것이다. 2006년부터 국립국어원은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주관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를 직접 실시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2006년 7월부터 처음 발급되었으며, 2010년까지 5,04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교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기관 등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또한 자격 심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표 8-4] 연도별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현황

연도	1급	2급	3급	계
2006	-	269	599	868
2007	-	185	454	639
2008	-	341	501	842
2009	-	613	424	1,037
2010	-	796	864	1,661
총 인원	-	2,204	2,843	5,047

3. 한국어 교원 연수 □

국립국어원은 국내외 한국어 교원 양성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어 전문가 초청 및 파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한국어 전문가 파견 및 재외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의 이름으로 파견 연수와 초청 연수가 실시되었다.

이 당시에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동포 거주 지역으로 파견 연수가 이루어졌는데 연수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어문 규범을 보급하는 데 있었다. 당시만 해도 북한의 어문 규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수에서는 ‘우

리말글의 역사, 어문 규범,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국어 문법' 등 어문 규범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때의 파견 연수는 외부의 전문가와 국립국어연구원 연구원이 함께 짝을 이루어 진행되었다.

파견과 함께 초청 연수도 실시되었는데 우리말글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함께 국립국어연구원 연구원들과 직접 친분을 쌓는 기회가 되어 중국, 구소련 지역의 한국어 교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해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사업'은 국외 한국어 교원의 자질 향상과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모두 3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959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현지 한국어 교육 지원을 통한 교원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97개 지역에 186명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 1992년 파견: 중국 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
초청: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14명
- 1993년 파견: 중국 선양,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초청: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14명
- 1994년 파견: 중국 옌지·하얼빈, 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사할린
초청: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16명
- 1995년 파견: 중국 지린·헤이룽장 성·랴오닝 성,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러시아 사할린
초청: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14명
- 1996년 파견: 중국 지린·헤이룽장 성·랴오닝 성, 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모스크바
초청: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13명
- 1997년 파견: 중국 지린·랴오닝 성,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사할린

- 초청: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13명
- 1998년 파견: 러시아 모스크바·사할린, 카자흐스탄 알마티
 - 초청: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10명
- 1999년 파견: 중국 하얼빈·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로프스크
 - 초청: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14명
- 2000년 파견: 중국 단둥,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러시아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사할린, 카자흐스탄 알마티
 - 초청: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14명

2000년부터는 기존의 규범 위주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국외 한국어 교사들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8회에 걸쳐 전문가 36명을 국외로 파견하여 1~2주 동안 약 870명의 한국어 교원에게 한국어 교수 방법 및 어문 규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국외 한국어 교사에 대한 초청 교육도 이루어졌다.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한국어 교사 65명을 5회에 걸쳐 초청하여 2~3주간 한국어 교육 분야의 이론과 실재를 교육하고 문화 유적지 답사 등을 실시했다. 이어 2004년에도 7회에 걸쳐 한국어 교육 전문가 14명을 국외로 파견하여 해외 한국어 교원 240명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국외 한국어 교사 초청 교육도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한국어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3주일간 이루어졌다. 국외 한국어 교사 교육 사업 지역은 아시아 전역 및 미주, 유럽 등지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기간과 대상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일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국외 교사 교육을 위한 주제별, 등급별,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교재 개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 밖에도 2007~2008년에는 국어문화원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이주민 대

상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교원 양성 과정'을 시행하였다. 이어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 가정 방문지도사 대상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 관련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한 '제1회 세계교육자대회'를 문화부와 함께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한국어 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 공동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포지엄 및 워크숍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학술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 학회 및 단체의 학술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계의 전문가들과의 연계 체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2010년에는 국내외 한국어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해 더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방문지도사 8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들을 위한 양성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연 2회에 걸쳐 100여명이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기관 교원 및 강사들의 재교육을 위한 공동 연수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주요 한국어교육 기관 63개소에 46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에서 활동 중인 한국어 교원들에 대한 파견 지도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학당 교원, 해외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원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들에 대한 초청 연수 과정도 시행 중이며, 연 8회에 걸친 국내 한국어 전문가들의 국외 현지 파견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12월부터는 연 2회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 다양한 한국어 기본 교재 및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보급하는 등 한국어 교원 양성 제도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다.

4. 한국어 교재 개발과 보급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본, 몽골, 구소련 지역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언어 문화가 아시아권으로 확산되자, 한국어 보급을 위한 인적,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한국어 보급 체계 구축 사업이 긴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베이징, 상하이, 하노이, 도쿄, 오사카, 뉴욕, 로스앤젤레스,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 런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12개 지역에 한국문화원이 설립된 것이 이를 보여 준다.

아울러 재외 한국 문화원 및 세종학당 등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을 통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체계화됨에 따라 학습자의 수요와 환경, 그리고 목표와 언어 특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인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게 되었다. 특히 국외 한국어 교재 현지화를 포함한 표준 한국어 교육 과정 모형 구축 사업은 한국어 보급 관련 기초 자료 구축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 교재의 출판 및 보급에 힘쓰는 한편, 다매체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 방식을 활용한 교재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05년에는 “한국어 문법 1·2”를 선보였으며, “한국어 초급 쓰기”와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를 태국어로 개발하였다. 2006년에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 타갈로그어로의 교재 현지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국내 기관의 표준 한국어 교육 과정 구축을 위한 쟁점 항목 추출 및 표준 한국어 교육 과정 시안 구축 작업을 전개하였다. 2007년에는 한국어 국외 보급의 기초 자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외 대학생을 위한 표준 모형 개발 및 타 언어로의 교재 현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8년에는 “초급 한국어” 4종 6권을 발간하였다. 이어 2009년에는 “중급 한국어” 6권과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2권, 그리고 부부 공동 학습 교재인 “알콩달콩 한국어” 2권을 비롯한 표준 한국어 교육 교재가 국내 및 해외 주요 한국어 교원 양성 기관에 배포되었다.

이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 등 각종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과정도 고안되었다. 그 일환으로 2006년에는 한류 드라마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자료[교재, 디브이디(DVD)]를 영어판, 일본어판, 중국어판으로 각각 개발하여 해외 한국 문화원 및 한국어 교육 기관에 보급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EBS와 함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좌를 개발 및 방송했으며, 2009년에는 YTN을 통해 한국어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영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어 교육 디브이디(DVD)를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수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민간에서 발간된 우수한 교재들을 표준 한국어 교재로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방식을 2014년부터 제도화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표 8-5]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재 개발(2008년~2014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종학당 등 한국어 기본교재	초급한국어 (영,중,베,몽,타,태)	교재	발간		스,러 추가 개발	스,러 발간			
		종합판				개발/ 발간			
		지침서			읽,쓰/ 개발	읽,쓰/ 발간	말,듣/ 개발	말,듣/ 발간	
	중급 1 (한,영,중,베,몽,타)	교재	개발	발간					
		지침서		개발	발간				
	중급 2 (한,영,중,베,몽,타)	교재		개발	발간				
		지침서			개발	발간			
	학습자용 워크북 및 멀티미디어 자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한 외국인용 한국어 교재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 1,2 개발	1,2 발간/ 3,4 개발	3,4 발간	5,6 개발	5,6 발간		
	지침서		1,2 개발	1,2 발간	3,4 개발	3,4발간/ 5,6 개발	5,6 발간	
	부부공동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중,베)	교재	개발	발간				
	이주노동자 교재 아자아자 한국어	교재		1 개발	1 발간	2 개발	2 발간	

09 남북 언어 통합

1. 북한어 조사 연구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은 남북 간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언어의 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질적으로는 언어 정책의 방향과 언어 연구 정보를 서로 교류함으로써 이질화를 극복하는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연구소 시절부터 남북 언어의 이질화 극복을 위한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에 북한어를 대폭 수용하면서 북한의 사전과 사전에 수록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북한어에 대한 연구는 초창기에는 언어 차이를 밝히는 데 치중했지만 차츰 이질화를 극복하는 방안과 공통성을 찾는 연구로 심화되었다.

2002년 이후 남북 공동 국제 학술회의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북한어 입력 파일, 방언 자료 등 104건의 북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992년 이후에는 북한 언어 현황에 대한 보고서 36건을 발간하였다. 또한 남북 기술 용어 및 무역 용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무역용어를 비롯한 남북 전문용어 비교 연구 4건을 수행하여 남북 상호 이해와 실무 접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표 9-1] 남북 언어 연구 목록

-
-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I. 발음, 맞춤법 편)(1989년, 국어연구소)
 -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II. 고유어 편)(1989년, 국어연구소)
 -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III. 한자어, 외래어 편)(1990년, 국어연구소)
 - 남북한 어문 규범(1990년)
 -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I)(1992년)
 - 북한의 언어 정책(1992년)
 - 북한 국어사전에 대한 국제 학술 대회(1993년)
 -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II)(1993년)
 - 북한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1994년)
 -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III)(1994년)
 -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1995년)
 -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IV)(1995년)
 - 북한 문학 작품의 어휘(1998년)
 -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1999년)
 -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1999년)
 - 한민족 언어 정보화-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1999년)
 -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2000년)
 - 북한 시나리오 어휘 조사 연구(2001년)
 - 북한 영화 어휘 조사 연구(2001년)
 -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2001년)
 -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2002년)
 -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2002년)
 - 북한 방송 용어 조사 연구(2002년)
 - 북한 신문 용어 조사 연구(2002년)
 - 북한의 “조선말 사전(학생용)” 분석
 -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2005년)
 - 북한 국어 연구 논저 목록[1946~2004](2005년)
 - 북한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2005년)
 - 남북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2003년~2009년)
 - 남북 고문헌 자료 조사 연구 사업을 위한 기초 연구(2007년)
 -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2007년)
 -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2008년)
-

2. 남북 학술회의

남북 간의 공동 학술회의는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1996년 이후 남북 공동 국제 학술회의를 7회 개최하였고 2009년에는 남북언어 연구를 주제로 하는 국내 학술 대회와 남북 및 해외 민족어 교육에 관한 국제 학술 대회를 각 1회씩 개최한 바 있다. 2010년에는 재일동포의 언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남북한 언어 통합과의 관련성을 모색하기 위해 재일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2005년에 착수하여 2014년 마무리할 예정인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남북 공동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도 국립국어원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남북 언어의 이질화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9-2] 남북 공동 국제 학술회의 개최 현황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내용	참석자
1차	1996. 8. 5.~7. 중국 창춘	남북 언어에 관한 발표 16건	16
2차	2001. 12. 14.~16. 중국 베이징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모임	28
3차	2003. 11. 5.~10. 중국 베이징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 조사 연구	32
4차	2004. 6. 22.~25. 중국 베이징	민족어 유산의 수집 정리와 고유어 체계의 발전	27
5차	2004. 12. 22.~25. 중국 선양	민족 방언의 조사, 연구 및 코퍼스에 관한 국제 학술 모임	12
6차	2005. 12. 13.~15. 중국 선양	민족어 어휘 구성의 변화와 통일적 발전	26
7차	2007. 11. 17.~18. 중국 옌지	민족어 발전의 현실태와 전망	33
8차	2009. 10. 20.~21.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과 한국학 국제 학술 대회	30
9차	2010. 12. 28.~30. 일본 오사카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 학술 대회	20

3. 새터민 언어 교육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터민의 언어 소통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새터민의 표준어 능력 향상을 비롯한 언어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은 새터민이 남한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은 물론, 사회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국립국어원은 그간 남북한의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어 연구 및 남북 학술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05년과 2006년에는 새터민의 언어 적응 실태를 조사했으며, 2008년에는 그동안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새터민 특별과정 교재를 개발했다.

[표 9-3] 새터민 관련 연구 현황(2005년~2010년)

연구 과제명	연구 내용	시기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새터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사회 적응도와 언어 적응도의 상관 관계 연구	2005년
새터민의 언어 실태 조사 연구	새터민의 사회 및 언어 적응 실태 조사, 심층 면접 조사, 새터민 적응 실태와 언어 교육 방안 등 연구	2006년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개발 및 교안 제작 - 새터민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	남북한 발음의 차이, 남북한 높임법, 남한의 가정 생활, 남한의 직장 생활 등 새터민 남한 사회 정착을 돕는 국어 교육 내용을 개괄적으로 연구함	2008년
새터민 언어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새터민 언어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디 개발 등	2009년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새터민 대상 일상생활, 직장 생활 등에 필요한 기본 어휘 및 남한 문화에 이해를 돕는 어휘학습교재 제작 연구	2010년

이어 2009년에는 새터민이 남한어에 적응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발음 훈련을 지원할 목적으로 온라인 강좌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을

개설하여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어 2010~2011년에는 새터민의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조사 계획도 예정되어 있다. 이는 남북한의 어휘 및 문장 표현의 차이 때문에 언어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터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조사 결과는 앞으로 새터민을 위한 어휘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데 제공된다. 또한, 새터민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새터민이 남한에서 원활한 언어생활을 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9-4] 새터민 교육 특별 과정

반 이름	교육 기간	교재명	수료 인원
새터민 교사 특별 과정	2010. 2. 9.~2. 10.	새터민 교사 연수 자료집	새터민 지원 교사 및 예비 교사 17명
새터민 교사 특별 과정	2010. 7. 27.~7. 28.	새터민 교사 연수 자료집	새터민 지원 교사 및 예비 교사 43명
경기도 거주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육 과정	2010. 6. 29.~6. 30.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재	새터민 60명
서울시 거주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육 과정	2010. 7. 13.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재	새터민 11명

10 제도와 국어 발전 계획

1. 국어 관련 법령

1) 국어기본법 이전

‘국어기본법’ 이전에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국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문서의 한글 전용을 규정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국어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국어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문서, 교육, 공적인 인쇄물, 광고물 등에서 어문 규범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령은 국어와 관련된 전용 법령이 아니고 국어 사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어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국어기본법

한 나라의 언어문화 발달의 사명을 맡고 있는 언어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립, 정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어기본법’(2005. 1. 27. 법률 제7368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03호)은 다른 국어 정책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함은 물론, 기존의 국어 관련 법령을 새 시대에 걸맞도록 쇄신한 것이다. 국어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그 이전까지 우리말과 글에 대한 법령은 기본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국어 정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국어기본법’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에서 보듯, 국어 정책 수립 및 국어 규범 제정, 보급의 최상위 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기본법’은 국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연구 지원, 교육의 기본 틀을 정하고 보급하는 데에 가장 우선적인 법률적 근거로 작용한다.

국어기본법의 기본 목적은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곧 문식력, 문식성, 언어 소양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문해력(literacy)’의 증진을 통해 창조적 사고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수준을 향상한다는 문화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와도 직결된다. 즉, 국어기본법은 학술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국어 운동만이 소극적으로 전개되던 기존의 상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학술 연구 기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국민은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풍요로운 국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국어기본법’의 제정 의도이다.

국어기본법은 ‘제2장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4장 국어 능력의 향상’, 그리고 총칙과 부칙을 포함하여 총 5장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위적 규제 및 단속 등의 규정은 최소화했다.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0-1] ‘국어기본법’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제3조	국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라고 명확히 규정함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
제8조	정부의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결과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제9조	국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국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아가고 국민들이 국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어 정책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의식, 국어 능력,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제10조	공공기관에 국어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두도록 함
제12조	‘국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과 실적 평가, 국어 환경 개선 시책 추진,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시행 등 국어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제14조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15조	대중매체로 하여금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
제17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함
제19조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에게 일정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	국민의 국어 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해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4조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각종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문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어기본법 시행령’(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10. 12. 14. 대통령령 22529호)은 ‘국어기본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와 방향을 기술한 것이다. 즉,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단순히 상위 법률의 적용과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어 문화의 발전 기획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2조에서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포함한 국민의 국어 능력 전반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국어 실력을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국어 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도출해내기 위한 것이다. 제3조에서는 정부기관의 홍보담당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4조에서는 어문 규범의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언어의 규범을 제정, 시행하도록 했다. 제11조에서는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의 한글 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명시했으며, 제12조를 통해 학술 및 법률 관련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순화하여 국어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13조와 제14조는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전문 요원의 양성에 대한 규정으로, 이를 통해 다른 언어문화권과의 원활한 상호교류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제18조는 국어 능력의 검정에 관한 내용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 포함한 분야에서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국어 연구자들이 국민의 국어 생활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어문화원’을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 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0-2] '국어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대상 및 결과 활용 방안
-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
- 어문규범 영향 평가 대상과 조사자 및 조사기관 선정
- 국어심의회 운영과 관련한 심의위원 임기 및 분과위원회 종류와 기능
-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한국어교원자격' 부여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등 국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 국어 능력 검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 및 내용
- 국어문화원 지정 요건 등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2. 국어 정책 기구

1) 국어심의회

국어심의회는 1953년, 문교부령 제31호에 의거하여 '한글 간소화 개정'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처음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때 국어심의회는 실질적인 운영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국어심의회가 국어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64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1977호에 의해 문교부 장관의 자문 기구로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국어심의회는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를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90년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문화부로 이관·설치되었다. 1991년에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 연구' 기능을 담당하게 되자, 국어심의회는 '심의' 기능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어심의회는 기능 및 위상의 핵심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국어기본법은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국어심의회는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1953

년 이래 국어심의회의 설치 규정 관련 주요 연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3] 국어심의회의 설치 규정 관련 주요 연혁

시기	주요 내용	근거 법령
1953년	한글 간소화 개정의 학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설치	문교부령 제31호
1964년	문교부 장관 자문 기구(조사·연구·심의)로 설치	대통령령 제1977호
1976년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설치	대통령령 제8279호
1990년	문화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2895호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으로 ‘조사·연구’ 기능 이관	대통령령 제13491호
1993년	문화체육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3869호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문화예술진흥법
2005년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및 심의, 분과 구성 변경	국어기본법

[표 10-4] 국어심의회의 변천 내용

시기	위상	기능	조직	직원	예산
1991년 이전	문교부장관 자문기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학술용어분과, 표기법분과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1991년 ~ 2005년	문화체육부 장관 자문기구	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시책을 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정보화분과, 표기법분과, 국어순화분과	간사 및 서기 각 1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2005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심의기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국어심의회의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국어심의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1964년의 ‘국어심의회 규정’을 바탕으로 하며,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의 내용도 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국어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국어학과 언어학 관련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출신 지역, 성별 분포, 출신 학교 등의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국어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립국어원의 담당 연구원이 간사와 서기의 역할을 맡아 심의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국어심의회는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어심의회는 1994년까지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의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해 7월 13일 발효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폐지됐고, 2002년에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됐다. 이후 2005년 제정, 발효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5개 분과위원회는 3개 분과로 통합·조정됐다. ‘표기법분과’와 ‘한자분과’가 ‘어문규범분과’로 통합되었고, ‘한글분과’와 ‘국어순화분과’는 ‘국어순화분과’로 통합되었으며, 국어정보화분과가 ‘언어정책분과’로 확대·개편됐다. 분과별 심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5] 국어심의회 분과별 주요 심의 사항

분과	심의 사항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분과	심의 사항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자형)·독음(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 평가에 대한 사항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국어심의회의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이다. 1988년 1월에 고시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1979년 문교부안, 1984년 학술원안, 1987년 국어연구소 안 등의 시안과 1987년 6월 검토위원회와 조절위원회의 검토·조절을 거쳐 1987년 12월 국어심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함으로써 확정된 것이다.

한편,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심의 또한 국어심의회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 계획은 국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국어기본법이 규정한 것으로, 국어심의회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실제의 정책 실현에 기여한다. 국어심의회는 2005년에 1회, 2006년에 1회, 2007년에 2회 소집됐는데, 특히 2007년부터는 변화하는 국어 환경에 대응하여 국어심의회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과 9월에 각 분과 위원을 선임했으며, 8월에는 전체 회의 겸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어심의회의 전문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어심의회의 분과별 운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0-6]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실적
<p>언어정책분과위원회 (15인~30인) *임기: 2007. 9. ~ 2009. 9.</p>	<p>가.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1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선출 - 앞으로의 운영 방안 검토 ○ 2007년: 1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발전기본계획 심의 등
<p>어문규범분과위원회 (15인~30인) *임기: 2007. 2. ~ 2009. 1.</p>	<p>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자형)·독음(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 평가에 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1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선출 - 포르투갈어 외래어표기법(안) 등 심의 ○ 2006년: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 씨 표기 검토 - 그리스어 외래어표기법(안) 등 심의 ○ 2007년: 6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랍어 외래어표기법(안) 심의 - ‘류’ 씨 표기 검토 등
<p>국어순화분과위원회 (15인~30인) *임기: 2006. 7. - 2008. 6.</p>	<p>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1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선출 - 한국 점자 규정 개정(안) 심의 ○ 2006년: 1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선출 - 국어순화 사이트 개편 논의 등 ○ 2007년: 1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순화 사업 보고 및 평가

[표 10-7] 국어심의회 논의 안건(2005년~2010년)

일시(분과)	안건
2005. 3. 5.(정보화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세종계획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 - 국어 정보화 중장기 계획의 수립 - 결과물 평가 체계의 보완책 - 한국과학기술정보원과 국립국어원의 협력 문제
2005. 4. 2.(정보화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뭉치 관리 기구의 필요성 - 국립국어원 국어정보화 사업 계획 논의 - 국어 정보화 중장기 사업 계획 논의 - 국어 기본법 시행령 검토
2005. 11. 18.(순화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순화 정책 방향 -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2005. 11. 29.(정책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규정 심의
2005. 12. 19.(규범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 심의
2006. 9. 27.(정책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 검토
2006. 9. 27.(순화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터 사이트 운영
2006. 9. 27.(규범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씨 표기, 표준어 개념, 전문 용어의 사이시옷,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민원
2006. 10. 27. (실무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발전계획 검토 - 류씨 표기 - 외래어 표기법 민원(이의재) - 로마자 표기법 민원(김복문)
2006. 11. 28.(규범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금티/우금치' 표기 - 성씨 '류'의 표기 - 로마자 표기법 민원 - 외래어 표기법 민원
2006. 12. 20.(규범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자 표기법(김복문) 민원 - 외래어 표기법(박기환) 민원 - 외래어 표기법(이의재) 민원 - 그리스어·터키어 표기법 심의 - 동북 공정 대응 외래어 표기법 및 로마자 표기법 개선
2007. 1. 10.(규범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랍어 표기법 심의
2007. 1.31.(규범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랍어 표기법 심의

일시(분과)	안건
2007. 3. 23.(규범 분과)	- 위원장 선출 - 실무위원회 구성 - 연구과제 선정
2007. 6. 1. (실무 소위원회)	- 국어심의회 내규 검토 - 외래어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7. 7. 10.(규범 분과)	- 연구 수행 방향 - 외래어심의회 특별위원회화 - 성씨 표기 - 외래어 표기 민원 안전화 논의(박기환)
2007. 7. 27. (규범 분과, 서면 회의)	- 성씨 표기
2007. 8. 17.(정책 분과)	- 국어발전기본계획 - 영어 사용에 대한 대책 - 21세기 세종계획 후속 대책 및 국어 정보 공유 방법 - 세종학당의 체계적 운영 - 남북한 언어 조사 및 어문 규범 통일 - 국어 능력 시험 - 국어심의회 위상 및 역할
2007. 8. 17.(규범 분과)	- 성씨 표기의 두음법칙 예외 인정 여부
2007. 10. 19.(정책 분과)	- 실무위원회 구성
2008. 2. 25.(실무 소위)	- 심의회 사업 방향 - 외래어 관리 정책
2009. 9. 1.	- 인원 구성(총 47명: 정책 분과 17명, 나머지 분과 15명씩)
2009. 9. 16.(전체 회의)	- 세종사업 계획 보고 - 국어 발전 추진 중간 평가 보고 - 국어 순화 정책 추진 보고 - 성씨의 두음법칙 예외 규정 인정 여부 심의
2009. 9. 16.(정책 분과)	- 국어발전 기본계획 주요 과제 추진 상황 점검 -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 상황 검토
2009. 9. 16.(규범 분과)	- 로마자표기법 영향 평가 사업 추진 계획 검토 - 성씨의 두음법칙 예외 규정 인정 여부 논의
2009. 9. 16.(순화 분과)	-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논의
2010. 2. 23.(전체 회의)	- 사전 미등재어, 실생활어 260건의 표준어 자격 여부, 표기 수정 4건 심의

일시(분과)	안건
2010. 12. 3(규범 분과)	- 사전등재어, 실생활어 35건의 표준어 자격 여부, 표기 수정 4건 심의

2) 국어책임관

‘국어기본법’ 제10조 1항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54개 중앙 부처와 16개 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5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29일에 정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44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국어책임관이 재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어책임관 활동 연혁은 다음과 같다.

[표 10-8] 국어책임관 활동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6. 5. 9.	제1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2006. 7.	국어책임관 전용 누리집(www.korean.go.kr/klofficer) 개설
2007. 4.	54개 중앙 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및 160개 소속 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2007. 7. 11.	제2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제2회 개최
2007. 9. 6.	제2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2008. 11. 28.	제3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대구광역시청)
2008. 11.	국어책임관 안내서 “2008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09. 8. 13.	중앙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정부중앙청사)
2009. 12. 5.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대전광역시청)
2010. 5. 11.	제1차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개최(안동한국국학진흥원)
2010. 11. 29	제2차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개최(서울교육문화회관)

국어책임관 제도의 도입은 국가 차원에서 국어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국어책임관은 대부분 다른 주된 업무에 추가되는 부가적인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면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과 2008년에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의의와 역할 등을 설명한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라는 안내 책자를 제작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에게 배포하여 국어책임관의 역할과 소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2006년 5월과 200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 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인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 간의 협의 기구로서 설치된 것으로 27개 중앙 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참석하며 국립국어원 원장이 의장을 맡는 것이는데 2008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2006년부터는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 회의,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국어책임관의 활동을 독려하고 국어문화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언어 개선과 관련된 사례 발표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여 국어책임관 간의 경험과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국어책임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국어책임관의 활동 제고를 위해서 국어책임관의 업무 실적 보고서와 주요 공공 기관 누리집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어책임관 활동에 대한 평가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3. 국어 발전 계획

국어기본법에 따라 2007년에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도 국립국어연구원 자체의 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1999년에는 국립국어연구원 기능 강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는데 ‘어문 규범 정책의 권위 확립’,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도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내실화’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되었다.

[표 10-9] 1999년 국립국어연구원 기능 강화 방안

-
1. 어문 규범 정책의 권위 확립
 - 1)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문 규범 정비
 - 2) 지속적인 표준어 사정(査定) 및 실효성 있는 문자 정책 수립
 2.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도모
 - 1) 국어 능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측정
 - 어휘력, 문장력, 독해력, 발표력을 지속적으로 측정, 문제점 개선·해소
 - 2) 어문 규범 정착을 위한 규범 관련 경시 대회 개최
 - 3) 방송, 법률 등 국민 언어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의 오용 개선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내실화
 - 1) 교재 편찬자들에게 필요한 기초 자료 마련
 - 2) 한국어와 다른 언어와의 대조 연구
 - 3)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성향 분석·성과 검증
 4.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 1) 북한 언어의 실태 파악 및 남북한 국어 자료 교환 사업 지속
 - 2) 통일에 대비한 언어 통합 방안 마련
 5. 국어 연구 자료의 집대성
 - 1) 국어 관련 연구 자료 지속 수집 및 정리·체계화
 - 2) 지역 방언 수집·보존 및 국어 관련 희귀 자료 수집·정리
-

“표준국어대사전”의 발간이 완료된 2002년에는 ‘국어 표준의 확립’, ‘국어 능력 신장 및 세계화’ 이외에도 ‘국어 실태 조사’가 추가되어 국립국어연구원

의 연구 방향이 조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0-10] 2002년 중점 추진 과제

-
1. 국어 표준의 확립
 - 1) 표준적인 국어의 정비
 - 2) 바른 국어의 확립
 - 국어 순화의 시행
 - 3) 남북한 언어 정체성 확립
 - 남북 언어 차이 조사 분석
 2. 국어 실태 조사
 - 1) 국어 사용 실태 조사
 - 2) 국어 언어 유산의 수집, 정리
 - 3) 음성 자료의 수집, 정리
 3. 국어 자료의 종합적 정리와 연구
 - 1) 국어 연구 업적의 정리 및 체계화
 - 2) 국어 자료의 전산화
 - 3) 각종 국어사전 편찬
 4. 국어 능력 신장 및 국어의 세계화
 - 1) 국어 능력 신장
 - 2) 국어의 세계화
-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발전 계획은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으로 종합되었다. 국어기본법 제6조에서는 5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법정 계획을 세워 국가가 수행하는 언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에서는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국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2007년에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기본계획’에는 ‘국내외의 국어 환경에 대한 분석과 진단,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설정, 중점 추진 과제와 부문별 추진 과제 설정, 추진 조직

체계와 재정 투자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에서는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10대 추진 과제'를 통해 국어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0-11] 3대 중점 추진 과제

<p>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의 '국어전문교육기관'화 ▶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내외 국어 교원 재교육 및 연수 강화 ▶ 교육대상별·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보급 ▶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 개설, 운영
<p>2. 동북아시아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밀착형 '한국어문화학교' 단계별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1차('07~'08):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36개교 ○ 1단계 2차('09~'11):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64개교 ○ 2단계 ('12~'16): 동남아, 서남아 지역 100개교 ▶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기관과 교육전문가 연결망 구축 ○ 권역별·지역별 '한국어문화교류협의회' 결성 ○ 아시아지역 언어정책기관 국제 학술회의 정례화 ○ 정보교류를 위한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구축 ▶ '한국어국의외보급사업협의회' 체제 정비 및 운영 활성화 ▶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권별, 교육단계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개발 ▶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전문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 국어 전문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재교육 실시 ○ 현지 한국어 교육전문가 초청 중·단기 연수 실시 ○ 국내 한국어 교육전문가 파견 현지 연수 지원 ▶ 민간기업의 협력 유도, 민관 간 상승 전략 추진 ▶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방송체계 구축
<p>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학습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편찬 ▶ 언어권별 대역사전 집필 및 웹사전 시스템 개발 ▶ 실용예문 구축 및 사전 연계 음성 녹음 제공 ▶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 순차 편찬 ▶ 사전편찬실 설치, 상설 운영

[표 10-12]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연번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1-1 국어발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1-2 국어 정책 추진 관련 지원체제 운영 활성화 1-3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체제 강화 1-4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2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2-1 남북 언어 교류 활성화 2-2 언어정책 및 정보 교류 국제 협력망 구축
3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	3-1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한국어 교육 확대 3-2 새터민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 지원 3-3 수화, 점자 체계 개선 지원
4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4-1 국어순화 사업의 강화 4-2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4-3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 4-4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4-5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표현 개선 4-6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제도 정착
5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5-1 국어능력검정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 5-2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 활용 5-3 ‘국어상담소’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6-1 국어 사용 실태조사 6-2 민족 생활어 및 직업 생활어 조사 6-3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7-1 민족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보완 7-2 신어 조사 지속 실시 7-3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8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8-1 국어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2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8-3 국어 능력 향상 학습 시스템 개발 8-4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8-5 국어전문도서관 구축

연번	추진 과제	세부 과제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9-1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 9-2 우리말 역사자료의 수집과 정리 9-3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9-4 도시 언어경관 정비 및 조성 9-5 한글의 산업화 지원
10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0-1 국어 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10-2 국어 정책 홍보 맞춤 서비스체제 구축 10-3 국어 생활 기획총서 발간 10-4 국어운동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10-5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 행사 개최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2009년에 국회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로 보고한 바 있다.

4. 국어 정책 관련 학술 대회 □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를 둘러싼 대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어 정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8년 8월 22일~23일 건국60주년 기념 ‘국어 사랑 큰 잔치’를 개최하였다. ‘국어로 세상을 품다’는 주제로 개최된 이 행사에서는 500여 명이 참가하여 ‘민족 문화와 국어, 세계 속의 한국어, 문화 창조의 동력 국어’라는 주제에 따라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에는 행사 참가자들의 의견을 담아 ‘국어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2010년 12월 7일~8일에는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학술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 스폴스키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독일, 한국, 이집트, 프랑스’의 언어 정책에 대한 소개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국제 학술 대회는 국립국어원 개원 20년의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 정책 사례에 대한 경험과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거시적인 관점에서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0-2] 2010년 국립국어원 20주년 기념 언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

부 록

1. 국립국어원 해적이
2. 국립국어원 현직·전직 직원 일람
3.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말터’와 말터 순화어 목록
4. 국립국어원 발간물 일람

1. 국립국어원 해적이

■ 1990년

- 11. 14. 대통령령 제13163호를 근거로 국립국어연구원 직제 확정(서무과, 연구 1부, 연구 2부, 연구 3부의 기구로 정원은 35명 규모)

■ 1991년

- 1. 10. 안병희 교수(서울대), 초대 국립국어연구원장에 취임
- 1.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24-7(구 덕성여자대학교 별관)에서 국립국어연구원 개원
- 2. 2.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 전화인 ‘가나다전화’(전화: 02-771-9909) 개통
- 2. 12. 인명용 한자의 범위에 대한 국어심의회 개최
- 10. 25. ‘동양 3국의 언어 정책에 관한 국제 학술 대회’ 개최

■ 1992년

- 1. 1.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착수
- 3. 18.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14-67로 이전
- 4. 24. ‘남북한 어문 규범의 비교’ 학술 토론회 참석
- 6. 16.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남북한 통일 회의 참석
- 11. 27. 동구의 5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확정, 고시(문화부 고시 제 1992-31호)
- 11. 30. 제5차 한·중·일 통합 한자 연구 그룹 국제회의 참석

■ 1993년

- 1. 1. 초대 안병희 원장, 제2대 원장에 연임

- 8. 15. 해외 동포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 10. 29. 북한 국어사전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 개최

■ 1994년

- 5. 4. 문화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4249호)에 따라 연구 1, 2, 3부가 각각 어문규범연구부, 어문실태연구부, 어문자료연구부로 명칭 변경
- 6. 4. 덕수궁 석조전 서관(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으로 이전
- 10. 19. 한·중·일 한자 표준화 사업 추진 방향 협의 및 중국의 한국어 교육 관련 전문가 토의
- 12. 31. 제2대 안병희 원장 퇴임

■ 1995년

- 1. 18. 송민 교수(국민대), 제3대 원장에 취임
- 3. 16. 스웨덴어 등 북구의 3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확정, 고시(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
- 3. 17. 제4 차 연도 제1 회 사전편찬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5. 25. “종합국어대사전”(가칭) 편찬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방송 기자 간담회 개최
- 6. 10. 외래어 표기 용례집 (북구권 지명·인명) 발간
- 7. 6. 바람직한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 8. 31. 문화체육부, 일본어 투 생활 용어 702개 순화 확정, 고시
- 8. 31. 국외 동포 초청 강연
- 10. 20. 고운 말 쓰기 지방 강연회
- 11. 9. 한·중·일 삼국의 한자 사용 실태 학술 대회 개최
- 12. 20.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회의 개최

■ 1996년

- 5. 23. 1996년도 주요 업무 설명을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 8. 5.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 학술회의
- 8. 12. 1996년 우리말 컴퓨터 처리 국제 학술 대회 참가
- 8. 13. 한국 표준화를 위한 제1차 한·중 협의회 참석
- 12. 10. 국어심의회, 임업 용어 순화안 심의
- 12. 10. 한자 표준화를 위한 한·중 추가 협의회 개최

■ 1997년

- 1. 6. 제3대 송민 원장 퇴임
- 1. 7. 이익섭 교수(서울대), 제4대 원장 취임
- 1. 22. 국어심의회, 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안 심의
- 2. 5.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실무위원회 활동
- 2. 15. 문화체육부, 일본어 투 생활 용어 377개 순화 확정, 고시
- 2. 26. 1997년도 주요 업무 설명을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 5. 5. 한자 표준화 사업 관련 국제회의 참석
- 5. 6.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6. 4.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관한 국어심의회 개최
- 6. 18.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관한 국어심의회와 소위원회 개최
- 11. 15. 한자 표준화를 위한 제2차 한중 협의회
- 12. 15. 제10차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회의 참석

■ 1998년

- 2. 18. 제20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개최
- 5. 11. 제11차 국제 표준 한자특별전문위원회
- 8. 4. 국제 전산 한자 표준화 회의 참가

- 8. 13. 재미 한인학교 협의회 학술대회 참가
- 8. 26.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 12. 7. 제12차 한자 표준화 국제회의 참석

■ 1999년

- 1. 6. 제4대 이익섭 원장 퇴임
- 1. 22. 심재기 교수(서울대), 제5대 원장 취임
- 5. 17. 제13차 한자 표준화 국제회의 참석
- 8. 24.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에디터 회의 참석
- 8. 26.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회의 개최
- 10. 패션 디자인 용어 순화 확정, 고시(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27호)
- 10. 9. “표준국어대사전” 출판 기념회 개최
- 10.~11. “표준국어대사전”(상, 중, 하권) 발간

■ 2000년

- 1. 1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지방 공개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 1. 28. 한일 인문사회과학 학술 교류 기념 강연회
- 5. 22. 한자 표준화 한일 협의회 개최
- 6. 19. 제15차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회의 참석
- 7. 7. 국립국어연구원이 로마자 표기법 개정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고시
- 8. 7. 국립국어연구원이 새 청사(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로 이전
- 8. 14. 한·중 한자 표준화 제4차 협의회 개최
- 11. 7. 한·일 협의회 개최

12. 13. ‘21세기 국어 정책’에 관한 학술회의 개최

■ 2001년

- 1 .21. 제5대 심재기 원장 퇴임
- 1. 22. 남기심 교수(연세대), 제6대 원장 취임
- 1. 22. 2001년 우리말 컴퓨터 처리 국제 학술회의 참가
- 6. 18.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제17차 회의 결과 보고
- 10. 9. “표준국어대사전” 전자사전 시디 발간

■ 2002년

- 2. 28. 남북 학술 자료 교환
- 5. 6.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제19차 회의 참석
- 6. 5. 북한 언어 연구 인력 2명(학예연구관 또는 별정5급 1명,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 6급 1명) 증원(문화관광부령 제65호)
- 11. 18. 제20차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회의 보고
- 11. 23. ‘문장 부호 세칙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03년

- 7. 15.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 10. 6. 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대회
- 11. 4. 국어 문화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강연회
- 11. 17. 제21차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회의 보고

■ 2004년

- 5. 24.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문화관광부령 제94호)

- 7. 5.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 운영
- 7. 23. 재미 한인학교 협의회 제22차 학술회의 참석
- 8. 19. 전문 용어와 기타 언어 자원 표준화 회의 참가
- 8. 23. 도쿄 한국어 교사 연수회 참석
- 11. 1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 18588호 2004. 11. 11.)에 의해 ‘국립국어원’으로 명칭 변경. 기획관리과, 언어정책부, 국어생활부, 국어진흥부로 구성
- 11. 25. ‘우리글의 정보 처리 환경’ 토론회 개최
- 11. 29. 제23차 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참가
- 11. 30. 문화관광부에서 국어 정책 업무 국립국어원으로 이관. ‘한국어 해외보급 지원’,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특수언어표준화’, ‘한글날 행사’, ‘자연어 검색갈래사전 발간’ 등

■ 2005년

- 1. 27. ‘국어기본법’ 공포(법률 제7,368호)
- 6. 2.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7. 28. ‘국어기본법’ 시행
- 8. 국립국어원 상징 도안 제정
- 8. 16. 학예연구관 1명과 학예연구사 1명 증원(문화관광부령 제122호)
- 8. 17. 국외 한국어 교사 국내 초청 교육
- 11. 18.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개최
- 11. 22. 국외 한국어 전문가 파견
- 11. 29. 국어심의회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개최
- 12. 19.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개최

■ 2006년

- 1. 25. 제6대 남기심 원장 퇴임
- 1. 27. 이상규 교수(경북대), 제7대 원장에 취임
- 4. 6. 학예연구관 1명과 학예연구사 2명 증원(문화관광부령 제134호)
- 5. 19. 구소련 지역 한국어 교육 실태 공동 조사
- 5. 23. 표준어 규정 위헌 소송 제기
- 6. 국립국어원 '업무 편람' 작성
- 9. 1. 제1차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 9. 27.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
- 10. 10. 한글날 국경일 승격 기념 국외 석학 초청 학술 토론회 개최
- 10. 13. 국립국어원, SBS와 공동으로 발표회 개최
- 10. 27.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 11. 21.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11. 28.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회의
- 12. 1. 민족 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
- 12. 15. 한국어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 12. 20.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 2007년

- 1. 10.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1. 11. '세종학당' 설립 계획 발표
- 1. 16. 국어심의회 실무 위원회 간담 회의 개최
- 2. 1.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 심의 위원 위촉
- 2. 21.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한 온톨로지 구축 방안" 특강 개최
- 3. 30. '국어 발전 기본 계획' 발표
- 4. 4. 국어 발전 기본 계획과 세종학당에 관한 국회 토론회

- 5. 11. ‘한국어 어휘의미망 구축과 사전 편찬’ 학술회의 개최
 - 5. 14. 세종대왕 탄신 610돌 기념 ‘세종 학술회의’ 개최
 - 5. 22. ‘유비쿼터스 시대의 디지털 세종학당’ 학술회의 개최
 - 5. 22. 직제 개편. ‘국어진흥부’는 ‘국어진흥교육부’로 이름을 바꾸고 언어정책부와 국어생활부, 국어진흥교육부에 각각 국어정책팀 · 국어정보화팀, 국어실태연구팀 · 홍보출판팀, 국어진흥교육팀 · 한국어진흥팀의 6개 팀을 신설함. 또한 학예연구관 2명과 학예연구사 2명의 연구 인력을 증원(문화관광부령 제164호)
 - 5. 26. ‘언어 자원의 다원화-표준어, 지역 방언, 사회 방언의 공존 모색’을 위한 제주 학술 행사 개최
 - 6. 2. 세종학당 자문위원 2차 협의회 개최
 - 6. 29. 국립국어원 혁신 워크숍 개최
 - 7. 11. 국립국어원,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 7. 24. 이주민 한국어 교육 실무 협의회 개최
 - 8. 17. 워크숍을 겸한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 개최
 - 8. 18. 한국어 의미학회와 공동 학술 대회 개최
 - 9. 6. 제2차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 10. 5.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 자모 순서에 관한 학술 토론회 개최
 - 10. 11. 2007년 제주 민속 학술대회 참석
 - 10. 26. 국립국어원, MBC 공동 연구 발표회
 - 11. 1. 언어경관 사업 결과 시안 발표 및 자문회의 개최
 - 11. 2. 외래어 정책 수립을 위한 학술 토론회 개최
- 2008년
- 3. 6. 직제 개편. ‘기획관리과’는 ‘행정지원과’로, ‘언어정책부’는 ‘국어연구기획부’로, ‘국어정책팀’은 ‘국어연구기획팀’과 ‘국어정보화

팀'으로 변경되었으며, '국어진흥교육부'는 그대로 유지됨(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 7. 23.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관계 전문가 회의
- 10. 1. "대한민국을 대표할 상징 '한글문화관' 건립 토론회 개최"
- 10. 8.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 발표 사전 학술 대회 개최
- 10. 8.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 개통
- 10. 22. 방송 언어의 품격 향상을 위한 아나운서 국어 사용 연구 발표회
- 12. 12.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12. 19. 사회인을 위한 효과적 의사소통 교육 연구 발표회

■ 2009년

- 1. 26. 제7대 이상규 원장 퇴임
- 2. 2. 게임 언어 건전화 협약식 및 게임 산업 정책토론회 개최
- 4. 13. 권재일 교수(서울대), 제8대 원장에 취임
- 4. 17. 국립국어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1423호)
- 5. 4. 직제 개편으로 정책 업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학예연구관 1명과 학예연구사 3명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로 이체됨. '행정지원과'는 '기획관리과'로, '국어연구기획부'는 '어문연구실'로, '국어연구기획팀'은 '어문연구팀'으로, '국어정보화팀'은 '언어정보팀'으로 직제가 변경됨. 또한 '국어생활부'는 '공공언어지원단'으로, '국어진흥교육부'는 '교육진흥부'로, '국어진흥교육팀'은 '국어능력발전과'로, '한국어진흥팀'은 '한국어교육진흥과'로 변경됨(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호)
- 6. 25.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성씨의 로마자 표기법 토론회 개최
- 9. 15.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개최
- 10. 6. 디지털 한글 박물관 '외국어 학습서전' 개최

- 10. 9. 한글날 특집 공공언어 다큐멘터리 ‘말의 힘’ 방송(MBC)
- 10. 9. 한글날 특집 ‘말을 잃은 아이들’ 방송(YTN)
- 10. 16. 제4회 국립국어원·SBS 방송 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 개최
- 10. 19.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초급) 방송(EBS)
- 10. 26. 언론 출판인 대상 ‘교정·교열의 원칙과 실제’ 교육 과정 개설
- 11. 2. 한글 디지털박물관 ‘제2 회 온라인 한글 게임 대회’ 개최
- 11. 4. 점자 학습 누리집 ‘점자 세상’ 개통(국어원 누리집)
- 11. 7. 국립국어원과 한국사회언어학회, 공동 학술 대회 개최
- 11.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업무 협약 체결
- 11. 18. 한국 수화 발전 및 수화 사용 인구 확충 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국 수화 규범 제정 추진 위원회 주최)
- 11. 27. 남북 국어 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학술대회 개최
- 12. 4. ‘2009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개최
- 12. 28. ‘2009년 우리말, 이런 게 궁금했어요’ 발표
- 12. 31. “쉽표, 마침표” 해외 통신원 선발

■ 2010년

- 1. 11.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개설
- 1. 14. 포도주 상표명의 한글 표기 발표(4,600여 개)
- 1. 15. 새터민이 배우는 온라인 표준 발음 교실 개통(국어원 누리집)
- 1. 27.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구축 시작
- 2. 1. 전라남도와 쉬운 행정용어 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2. 11. 행정주사 1명 증원(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호)
- 3. 22. ‘국어생활종합상담실(대표 전화: 1577-9979)’ 개소
- 5. 6. 국립국어원, 주말 드라마 언어 1차 분석 결과 및 대안 발표
- 5. 26.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선수명 한글 표기 발표

- 5. 28. 표준어 규정 위헌 소송 기각 및 각하 결정
- 6. 23.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업무 협약 체결
- 6. 29. 새터민 맞춤형 표준어 교육 실시
- 7. 27. 새터민 지원 교사 대상 교육 과정 개설
- 8. ‘이런 말도 있어요(신어)’ 서비스 시작(국어원 누리집)
- 10. 1. 국립국어원 청사에 ‘한글 고맙습니다’ 현수막 게시
- 10. 9. 한글디지털 박물관 ‘옛 사전 특별전’ 개최
- 10. 12. 제5 회 국립국어원·SBS 방송 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 개최
- 10. 14. 보도 자료 모범 사용 공공기관에 감사패 증정
- 10. 18. 국립국어원, 주말 드라마 언어 2차 분석 결과 및 대안 발표
- 10. 22. “훈민정음” 러시아어 판 출판 기념회 개최(러시아 모스크바)
- 10. 28.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 학술 대회’ 개최(일본 오사카)
- 12. 7.~8.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 학술 대회 개최

2. 국립국어원 현직·전직 직원 일람

※ 퇴직자의 직책은 국어원 재직 당시 직책이며 현직자의 직책은 현재 직책임.

이름	직책	재직 기간
강경배	서무과장	1998년 3월 17일~1999년 1월 8일
강길례	사무원	1997년 5월 26일~2006년 4월 20일
강대금	행정사무관	2010년 7월 5일~2010년 7월 27일
강미영	학예연구사	2007년 8월 1일~
강신복	행정사무관	2004년 6월 17일~2004년 11월 24일
강인선	학예연구관	1993년 5월 6일~1995년 11월 8일

이름	직책	재직 기간
강정미	전산주사	1997년 12월 12일~2004년 2월 25일
강창석	서무과장	2000년 10월 5일~2001년 2월 3일
강태영	사무원	1996년 4월 1일~2000년 12월 6일
고광헌	사무원	1991년 2월 11일~
공영임	사무원	1994년 4월 1일~1995년 2월 6일
곽영기	서무과장	1994년 5월 4일~1994년 9월 30일
구지민	학예연구사	2007년 8월 1일~
권인한	학예연구사	1991년 1월 10일~1996년 3월 1일
권재일	어문규범연구부장	2003년 2월 1일~2004년 2월 29일
	원장	2009년 4월 13일~
김경남	행정사무관	2010년 8월 31일~
김경영	전산주사보	1992년 2월 13일~1993년 7월 1일
김광해	어문규범연구부장	1999년 3월 19일~ 2001년 3월 13일
김규직	행정서기	1992년 11월 3일~1995년 6월 1일
김금평	기획관리과장	2010년 9월 7일~
김덕호	학예연구사	2006년 4월 20일~2010년 3월 1일
김동만	행정주사	1995년 6월 1일~1999년 6월 21일
김문오	학예연구관	2001년 5월 14일~
김선철	학예연구관	2002년 9월 5일~
김세중	공공언어지원단장	1991년 1월 10일~
김수미	전산주사	2005년 1월 26일~2006년 4월 19일
김순임	학예연구사	2007년 8월 1일~2010년 12월 31일
김연순	6급상당별정직	1991년 1월 10일~1993년 2월 6일
김영신	사무원	2006년 4월 20일~2009년 5월 4일
김옥순	학예연구관	1991년 7월 22일~2009년 12월 31일
김원희	학예연구사	2005년 11월 21일~

이름	직책	재직 기간
김유선	전기서기보	2005년 2월 1일~2009년 11월 1일
김장환	행정주사보	1991년 1월 28일~1991년 2월 8일
김정우	학예연구사	1991년 1월 10일~1995년 3월 1일
김정표	서기관	2009년 3월 10일~2010년 2월 16일
김정훈	한국어교육진흥과장	2009년 9월 1일~2010년 9월 13일
김종율	서무과장	2001년 2월 3일~2002년 1월 21일
김중환	행정사무관	2010년 10월 6일~
김주련	사무원	1991년 2월 11일~1999년 2월 27일
김주필	6급상당별정직	1991년 1월 10일~1991년 3월 4일
김 준	행정사무관	2006년 12월 12일~2009년 1월 1일
김준곤	서무과장	1991년 1월 11일~1992년 2월 28일
김지현	사무원	1991년 2월 11일~1996년 5월 2일
김진호	기획관리과장	2005년 1월 26일~2006년 1월 23일
김하수	언어정책부장	2004년 3월 31일~2006년 2월 28일
김한샘	학예연구사	2002년 9월 5일~
김현준	행정사무관	2005년 1월 26일~2006년 1월 27일
김형배	학예연구사	2007년 8월 1일~
김홍식	서무과장	1999년 6월 11일~2000년 1월 1일
김희진	국어생활부장	1991년 1월 10일~2007년 6월 29일
남기심	원장	2001년 1월 22일~2006년 1월 21일
노훈철	전산주사	2008년 8월 12일~2010년 11월 15일
도재경	기획관리과장	2007년 5월 22일~2007년 11월 22일
맹영재	행정사무관	1994년 12월 29일~2000년 1월 17일
민태홍	서무과장	1999년 1월 8일~1999년 6월 11일
민현식	어문규범연구부장	1997년 3월 12일~1999년 3월 11일
박명선	행정사무관	2001년 9월 1일~2002년 8월 8일

이름	직책	재직 기간
박민규	5급상당별정직	1991년 1월 10일~
박병식	행정사무관	2010년 2월 16일~2011년 1월 2일
박병우	사무원	2000년 5월 20일~2001년 5월 14일
박승범	행정사무관	2008년 8월 12일~2009년 3월 2일
박양규	어문규범연구부장	1993년 3월 23일~1995년 3월 22일
박연근	서무과장	1994년 10월 16일~1998년 3월 17일
박용찬	국어능력발전과장	1994년 6월 15일~2009년 9월 1일
박재현	학예연구사	2007년 8월 1일~2008년 3월 1일
박재홍	사무원	1995년 10월 16일~2009년 5월 4일
박정아	학예연구사	2006년 4월 20일~
박정진	학예연구사	2008년 2월 1일~2010년 9월 1일
박종숙	서기관	2006년 4월 20일~2006년 6월 30일
박종인	전산주사	2010년 11월 15일~
박주옥	사서주사	1991년 3월 7일~1999년 4월 8일
박창원	어문규범연구부장	2001년 3월 14일~ 2003년 3월 12일
박철구	서무과장	1992년 3월 5일~1994년 5월 4일
박화섭	행정사무관	2006년 4월 20일~2007년 2월 4일
백남진	사무원	1991년 2월 11일~1995년 10월 5일
백진숙	사무원	2010년 11월 15일~
서영희	행정사무관	2009년 5월 4일 ~2010년 7월 1일
서정목	어문실태연구부장	1991년 3월 23일~1994년 10월 10일
서종학	어문규범연구부장	1995년 3월 23일~1997년 3월 12일
설의용	어문자료연구부장	1994년 9월 14일~1998년 3월 16일
손미정	사무원	1999년 6월 28일~2000년 4월 10일
손희하	언어정책부장	2006년 3월 30일~2007년 2월 28일
송 민	원장	1995년 1월 8일~1997년 1월 6일

이름	직책	재직 기간
신문주	사무원	2000년 4월 10일~2010년 11월 15일
심공섭	행정사무관	2000년 1월 17일~2001년 1월 16일
심재기	원장	1999년 1월 22일~2001년 1월 21일
안경자	사무원	1995년 1월 31일~
안병희	원장	1991년 1월 10일~1994년 12월 31일
안선국	한국어교육진흥과장	2010년 9월 13일~
양명희	국어정보화팀장	1993년 7월 1일~2008년 3월 1일
엄기훈	행정사무관	2003년 6월 21일~2005년 1월 26일
엄현희	기획관리과장	2007년 11월 26일~2010년 7월 30일
오주현	행정주사보	2004년 2월 26일~2006년 12월 11일
오준환	행정주사	1991년 1월 28일~1992년 11월 3일
우미준	행정주사보	2006년 4월 19일~2008년 8월 11일
위진	학예연구사	2010년 11월 1일~
유귀연	사무원	1995년 5월 1일~1997년 5월 21일
유미현	행정주사보	2008년 1월 28일~2010년 7월 2일
유병도	사서주사	2010년 11월 15일~
유진룡	어문자료연구부장	1998년 3월 16일~1998년 9월 1일
윤영이	사무원	1991년 2월 11일~1994년 9월 5일
윤용선	학예연구사	1991년 7월 1일~1996년 3월 18일
윤은숙	행정주사	2010년 7월 2일~
윤중선	행정사무관	2007년 2월 5일~2008년 8월 11일
이경화	사무원	2009년 5월 4일~
이계훈	행정사무관	1992년 8월 1일~1994년 12월 29일
이근용	6급상당별정직	1991년 1월 10일~1992년 3월 2일
이기춘	행정주사보	2000년 3월 9일~2000년 6월 5일
이병규	학예연구관	2002년 9월 5일~2010년 3월 31일

이름	직책	재직 기간
이보라미	학예연구사	2010년 5월 17일~
이상규	원장	2006년 1월 27일~2009년 1월 23일
이승경	사무원	1996년 5월 20일~1998년 5월 28일
이승용	행정주사보	1997년 10월 27일~1999년 12월 23일
이승재	언어정보팀장	1996년 2월 1일~
이승재	어문실태연구부장	1997년 3월 12일~1999년 3월 11일
이승재	사무원	2000년 5월 20일~2001년 5월 14일
이시우	서무과장	2000년 1월 1일~2000년 10월 5일
이용신	행정주사보	2000년 6월 5일~2001년 9월 1일
이운동	행정주사	2005년 1월 26일~2006년 4월 20일
이운영	학예연구관	2001년 5월 14일~
이원구	사무원	2000년 12월 6일~
이윤하	4급상당별정직	1991년 7월 22일~1993년 3월 16일
이익섭	원장	1997년 1월 7일~1999년 1월 6일
이장협	행정지원과장	2006년 1월 23일~2008년 8월 12일
이정민	사서주사	2007년 5월 22일~2010년 11월 15일
이정호	전산주사보	2006년 4월 20일~ 2008년 8월 21일
이정훈	행정주사보	1991년 10월 1일~1994년 5월 4일
이종국	행정사무관	2011년 1월 3일~
이준석	학예연구관	1996년 5월 13일~
이준환	학예연구사	2010년 5월 17일~
이현우	학예연구관	1991년 1월 10일~2000년 2월 17일
이현주	학예연구사	2006년 4월 20일~
이혜림	행정사무관	2009년 5월 4일 ~2010년 2월 15일
임동훈	학예연구사	1993년 7월 1일~2002년 3월 2일
임은영	사무원	1997년 5월 21일~2002년 10월 4일

이름	직책	재직 기간
임재범	행정주사	2008년 8월 12일~2010년 11월 15일
임현정	사무원	2001년 6월 9일~
임홍빈	연구1부장	1991년 3월 23일~1993년 3월 22일
장문익	어문자료연구부장	1998년 9월 1일~1999년 5월 21일
장영화	행정주사	1994년 5월 4일~1996년 10월 5일
전고운	사무원	2001년 4월 18일~2001년 6월 9일
전수태	학예연구관	1991년 1월 10일~2007년 6월 29일
정경희	사무원	1991년 1월 11일~1993년 3월 5일
정승원	행정주사보	2006년 2월 6일~2006년 12월 12일
정영애	행정주사	2010년 11월 15일~
정은경	사무원	2002년 10월 4일~2010년 11월 15일
정인석	행정사무관	2005년 1월 26일~2006년 4월 19일
정진호	사서주사	2001년 6월 7일~2007년 5월 21일
정하순	사무원	1997년 9월 19일~2004년 3월 17일
정호성	국어능력발전과장	1993년 7월 1일~
정희원	어문연구팀장	1993년 7월 1일~
정희창	학예연구관	1996년 5월 13일~
조남호	어문연구실장	1991년 7월 1일~
조숙주	행정주사	1999년 6월 21일~2000년 12월 8일
조영주	사서주사	1999년 4월 8일~2001년 6월 7일
조원미	행정주사	2006년 12월 12일~
조정희	사무원	1991년 2월 11일~1997년 9월 19일
조태동	사무원	2000년 5월 20일~12월 30일
조태린	학예연구사	2005년 11월 21일~
조항범	어문실태연구부장	1999년 3월 19일~2001년 3월 18일
조현나	행정주사	2001년 12월 8일~2005년 1월 26일

이름	직책	재직 기간
조현봉	행정주사보	2002년 1월 14일~2004년 2월 26일
조현숙	5급상당별정직	1991년 1월 10일~1994년 3월 23일
진영미	사무원	2009년 5월 4일~
차혜란	행정주사	2010년 2월 16일~
최규일	어문실태연구부장	1994년 10월 10일~1997년 3월 12일
최무홍	기획관리과장	2002년 1월 21일~2005년 1월 26일
최보영	사무원	2010년 11월 15일~
최영수	행정주사	1996년 10월 5일~1997년 10월 27일
최영희	사무원	1991년 1월 11일~1997년 5월 21일
최용기	교육진흥부장	1995년 3월 28일~
최혜원	학예연구관	1997년 1월 15일~
최훈창	서기관	2002년 8월 8일~2003년 6월 21일
추연봉	행정주사보	2007년 2월 5일~2008년 8월 11일
한기수	행정사무관	1991년 3월 29일~1992년 8월 1일
한재일	행정주사	1991년 3월 5일~1991년 10월 1일
한정숙	전산주사	2004년 2월 26일~2005년 1월 25일
한철모	어문자료연구부장	1991년 2월 1일~1994년 9월 14일
허철구	학예연구관	1992년 3월 30일~2001년 3월 2일
홍남순	전산주사	1993년 7월 1일~1997년 12월 11일
황용주	학예연구사	2008년 2월 1일~

3.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말터’와 말터 순화어 목록

- 말터 누리집(www.malteo.net):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 말터 순화어 목록

번호	순화어 발표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1	2004. 7. 12.	리플	reply의 준말	댓글
2	2004. 7. 20.	웰빙	well-being	참살이
3	2004. 7. 27.	스크린 도어	screen door	안전문
4	2004. 8. 3.	스팸 메일	spam mail	쓰레기편지

번호	순화어 발표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5	2004. 8. 10.	이모티콘	emoticon	그림말
6	2004. 8. 17.	올인	All in	다걸기
7	2004. 8. 24.	콘텐츠	contents	꾸림정보
8	2004. 8. 31.	파이팅	fighting	아자
9	2004. 9. 7.	네티즌	Netizen	누리꾼
10	2004. 9. 14.	무빙 워크	moving walk	자동길
11	2004. 9. 21.	슬로푸드	slow food	여유식
12	2004. 10. 5.	방카쉬랑스	Bancassurance	은행연계보험
13	2004. 10. 12.	미션	mission	중요임무
14	2004. 10. 19.	유비쿼터스	Ubiquitous	두루누리
15	2004. 10. 26.	퀵서비스	Quick Service	늘찬배달
16	2004. 11. 2.	로밍	roaming	어울통신
17	2004. 11. 9.	컬러링	colouring	멋올림
18	2004. 11. 16.	포스트잇	Post-it	붙임쪽지
19	2004. 11. 23.	코드프리	code free	빗장풀기
20	2004. 11. 30.	클린 센터	clean center	청백리마당
21	2004. 12. 7.	내비게이션	navigation	길도우미
22	2004. 12. 14.	하이브리드	hybrid	어우름
23	2004. 12. 21.	블로그	blog	누리사랑방
24	2004. 12. 28.	드라이브	drive	몰아가기
25	2005. 1. 11.	스타일리스트	stylist	맵시가꿈이
26	2005. 1. 18.	파파라치	paparazzi	몰래제보꾼
27	2005. 1. 25.	그린 프리미엄	green premium	환경덧두리
28	2005. 2. 1.	플리 바기닝	plea bargaining	자백감형제(도)
29	2005. 2. 15.	매스티지	masstige	대중명품
30	2005. 2. 22.	와이프로	WiBro	휴대누리망

번호	순화어 발표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31	2005. 3. 1.	노미네이트	nominate	후보지명
32	2005. 3. 8.	마리나	marina	해안유원지
33	2005. 3. 15.	커플 매니저	couple manager	새들이
34	2005. 3. 22.	박스 오피스	box office	홍행수익
35	2005. 3. 29.	빅리그	big league	최상위연맹
36	2005. 4. 5.	헝그리 정신	hungry 精神	맨주먹정신
37	2005. 4. 12.	투잡	two job	겹벌이
38	2005. 4. 19.	브랜드 파워	brand power	상표경쟁력
39	2005. 4. 26.	엑스파일	X file	안개문서
40	2005. 5. 3.	게이트	gate	의혹사건
41	2005. 5. 10.	메신저	messenger	쪽지창
42	2005. 5. 17.	소호	SOHO	무점포사업
43	2005. 5. 24.	오프라인	off-line	현실공간
44	2005. 5. 31.	옴부즈맨	ombudsman	민원도우미
45	2005. 6. 7.	터프가이	tough guy	꽤남아
46	2005. 6. 14.	블루투스	blue tooth	쌈지무선망
47	2005. 6. 21.	드레싱	dressing	맛깔장
48	2005. 6. 28.	컨트롤 타워	control tower	가온머리
49	2005. 7. 5.	블루오션	blue ocean	대안시장
50	2005. 7. 12.	퀄리티 스타트	quality start	선발퀘투
51	2005. 7. 19.	피싱	phishing	정보도둑
52	2005. 7. 26.	호스피스	hospice	임종봉사자
53	2005. 8. 2.	셀프카메라	self-camera	자가촬영
54	2005. 8. 9.	후카시	ふかし [吹かし]	폼재기
55	2005. 8. 16.	후롯쿠	フロック	어중치기
56	2005. 8. 23.	실버시터	silver sitter	경로도우미

번호	순화어 발표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57	2005. 8. 30.	교례회	交禮會	어울모임
58	2005. 9. 6.	스탠더드 넘버	standard number	대중명곡
59	2005. 9. 13.	플래그십 스토어	flagship store	체험판매장
60	2005. 9. 27.	선팅	sunting	빛가림
61	2005. 10. 4.	그룹 홈	group home	차활꿈터
62	2005. 10. 11.	원톱	one top	홀로주연
63	2005. 10. 18.	디펜딩 챔피언	defending champion	우승지킴이
64	2005. 10. 25.	파일럿 프로그램	pilot program	맛보기 프로그램
65	2005. 11. 1.	스포일러	spoiler	영화해살꾼
66	2005. 11. 8.	로고송	logo song	상징노래
67	2005. 11. 15.	풀 세트	full set	다모음
68	2005. 11. 22.	컬트	cult	소수취향
69	2005. 11. 30.	드레스 코드	dress code	표준옷차림
70	2005. 12. 7.	다이	DIY←Do It Yourself	손수짜기
71	2005. 12. 14.	캐포츠	caports	활동복
72	2006. 1. 4.	캐리어	carrier	아이업개
73	2006. 1. 11.	스파이웨어	spyware	정보빼내기 프로그램
74	2006. 1. 18.	다크서클	dark circle	눈그늘
75	2006. 1. 25.	트리트먼트	treatment	머릿결영양제
76	2006. 2. 8.	파트너십	partnership	동반관계
77	2006. 2. 15.	마스터클래스	master class	명인강좌
78	2006. 2. 22.	매치업	match-up	맞대결
79	2006. 3. 1.	팩션	faction	각색실화
80	2006. 3. 8.	퍼블리시티권	publicity 權	초상사용권
81	2006. 3. 15.	클러스터	cluster	산학협력지구

번호	순화어 발표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82	2006. 3. 22.	캡처	capture	장면갈무리
83	2006. 3. 29.	뉴타운	new town	새누리촌
84	2006. 4. 5.	타임 서비스	time service	반짝할인
85	2006. 4. 12.	오픈 하우스	open house	열린집/집열기
86	2006. 4. 19.	백댄서	back dancer	보조춤꾼
87	2006. 4. 28.	치어리더	cheerleader	흥돋음이
88	2006. 5. 3.	스카이라운지	sky lounge	하늘쉼터
89	2006. 5. 10.	바우처 제도	voucher 制度	복지상품권제도
90	2006. 5. 17.	프로슈머	prosumer	참여형소비자
91	2006. 5. 24.	디엠	DM, Direct Mail	우편광고(물)
92	2006. 5. 31.	메세나	mécénat	문예후원
93	2006. 6. 7.	스팟 광고	spot 廣告	반짝광고
94	2006. 6. 14.	슈터링	shooting	골문어림차기
95	2006. 6. 21.	로드 무비	road movie	여정영화
96	2006. 6. 28.	세트 피스	set piece	맞춤전술
97	2006. 7. 12.	키맨	key man	중추인물
98	2006. 7. 20.	언론 플레이	言論play	여론몰이
99	2006. 7. 27.	아카이브	archive	자료전산화
100	2006. 8. 3.	휘핑	whipping	거품크림
101	2006. 8. 10.	유시시	UCC←User Created Contents	손수제작물
102	2006. 8. 17.	체리 피커	cherry picker	금융암체족
103	2006. 8. 24.	핫팬츠	hot pants	한뼘마지
104	2006. 8. 31.	스킨십	skinship	피부교감
105	2006. 9. 12.	슬롯머신	slot machine	성인오락기
106	2006. 9. 19.	피처링	featuring	돋움연주

번호	순화어 발표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107	2006. 9. 26.	코드	code	성향
108	2006. 10. 10.	홀드	hold	중간구원
109	2006. 10. 17.	펜트하우스	penthouse	하늘채
110	2006. 10. 24.	브런치	brunch	어울참
111	2006. 10. 31.	원샷	one shot	한입털이
112	2006. 11. 7.	홈베이킹	home baking	손수굽기
113	2006. 11. 14.	퓨레/튀레	purée	과립즙
114	2006. 11. 21.	시즌	season	~번째 이야기
115	2006. 12. 5.	브이오디 서비스	VOD service	다시보기
116	2006. 12. 12.	에스오에스	SOS	구원요청
117	2006. 12. 19.	오마주	hommage	감동되살이
118	2006. 12. 26.	칙릿	chick-lit	꽃띠문학
119	2007. 1. 9.	트레이드마크	trademark	으뜸상징
120	2007. 1. 16.	케이터링	catering	맞춤밥상
121	2007. 1. 23.	샘플러	sampler	맛보기묵음
122	2007. 1. 30.	프리 사이즈	free size	열린치수
123	2007. 2. 6.	비트박스	beat box	입소리손장단
124	2007. 2. 13.	그래피티	graffiti	길거리그림
125	2007. 2. 27.	머스트 해브	must have	필수품
126	2007. 3. 6.	스테디셀러	steady seller	늘사랑상품
127	2007. 3. 13.	팁	tip	도움말
128	2007. 3. 20.	블라인드	blind	(정보)가림
129	2007. 3. 27.	웹서핑	web surfing	누리검색
130	2007. 4. 3.	레퍼런스	reference	고품질
131	2007. 4. 10.	하드보일드	hard-boiled	냉혹기법
132	2007. 4. 17.	러브 라인	love line	사랑구도

번호	순화어 발표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133	2007. 5. 1.	로드킬	roadkill	찾길동물사고
134	2007. 5. 8.	알파걸	alpha girl	으뜸녀
135	2007. 5. 15.	캐릭터	character	특징물
136	2007. 5. 22.	타임캡슐	time capsule	기억상자
137	2007. 5. 29.	핸즈프리	handsfree	맨손통화기
138	2007. 6. 5.	솔 메이트	soul mate	교감지기
139	2007. 6. 12.	조리	ぞうり [草履]	가락신
140	2007. 6. 26.	빙고	bingo	맞았어
141	2007. 7. 3.	패셔니스타	fashionista	맵시꾼
142	2007. 7. 10.	핼킨족	(-) KIN 族	핼누리꾼
143	2007. 7. 24.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	시청각설명(회)
144	2007. 7. 31.	워터파크	water park	물놀이공원
145	2007. 8. 7.	팩	pack	피부가꿈제
146	2007. 8. 14.	뷰파인더	viewfinder	보기창
147	2007. 8. 21.	팬미팅	fan meeting	다숨모임
148	2007. 8. 28.	드로어즈	drawers	맵시속바지
149	2007. 9. 4.	플라모델	plamodel	조립모형
150	2007. 9. 11.	디오라마	diorama	실사모형
151	2007. 9. 18.	스토리보드	storyboard	그림줄거리
152	2007. 10. 2.	스도쿠	すどく, 數獨	숫자놀이
153	2007. 10. 9.	월풀	whirlpool	공깃방울목욕
154	2007. 10. 16.	성큰가든	sunken garden	뜨락정원
155	2007. 10. 23.	핸드프린팅	hand printing	기념손찍기
156	2007. 10. 30.	크레이들	cradle	다목적곳이
157	2007. 11. 13.	영건	young gun	기대주
158	2007. 11. 20.	크로스백	cross bag	엇걸이가방

번호	순화어 발표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159	2007. 11. 27.	해피 엔딩	happy ending	행복결말
160	2007. 12. 4.	크리에이터	creator	광고창작자
161	2007. 12. 11.	리퍼브	refurbished	손질상품
162	2007. 12. 18.	아우터	outer	겉차림옷
163	2007. 12. 25.	패딩	padding	누비옷
164	2008. 1. 8.	오일볼	oil ball	기름몽치
165	2008. 1. 15.	키치	kitsch	눈길끌기
166	2008. 1. 22.	루미나리아 (루미나리에)	luminaria, luminarie	불빛축제
167	2008. 1. 29.	샹그릴라	Shangri-la	꿈의낙원
168	2008. 2. 5.	아우라	Aura	기품
169	2008. 2. 19.	트랜스지방	trans 脂肪	변이지방
170	2008. 2. 26.	마블링	marbling	결지방
171	2008. 3. 4.	디그	Dig	받아막기
172	2008. 3. 11.	레이싱 걸	racing girl	행사빛냄이
173	2008. 3. 18.	퍼스나콘	personacon	개성표현꼴
174	2008. 3. 25.	테스트 베드	test bed	가늌터
175	2008. 4. 24.	에코맘	EcoMom	환경친화주부
176	2008. 4. 24.	제로베이스	zero base	백지상태
177	2008. 4. 24.	다크 투어리즘	dark tourism	역사교훈여행
178	2008. 4. 29.	히키코모리	引き籠もり	폐쇄은둔족
179	2008. 5. 6.	언더패스	underpass	아래차로
180	2008. 5. 13.	아티젠	Artygen	감각세대
181	2008. 5. 20.	예티족	Yettie	차기가치개발족
182	2008. 5. 27.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	놀이학습
183	2008. 6. 3.	모티켓	motiquette	통신예절

번호	순화어 발표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184	2008. 6. 10.	마우스 포테이토	mouse potato	콜방누리꾼
185	2008. 6. 17.	프리터 족	freeter 族	자유별이족
186	2008. 6. 24.	샐러던트	saladent	계발형직장인
187	2008. 7. 1.	테크아트 마케팅	techart marketing	예술감각상품
188	2008. 7. 8.	엠니스	M-ness	주부남
189	2008. 7. 15.	마일리지	mileage	이용실적점수
190	2008. 7. 22.	커튼콜	curtain call	부름갈채
191	2008. 7. 29.	싱글맘	single mom	홀보듬엄마
192	2008. 8. 5.	쇼케이스	showcase	선보임공연
193	2008. 8. 12.	프라브 족	PRAV 族	알뜰개성족
194	2008. 8. 19.	엔딩크레딧	ending credit	끝맺음자막
195	2008. 8. 26.	리메이크	remake	원작재구성
196	2008. 9. 2.	러브콜	love call	부름공세
197	2008. 9. 9.	립싱크	lip sync	입술연기
198	2008. 9. 16.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맞춤형누리방송
199	2008. 9. 23.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음성사기전화
200	2008. 9. 30.	휴테크	休tech	여가활용기술
201	2008. 10. 7.	웹버	Webver-族	은빛누리꾼
202	2008. 10. 14.	티처보이	teacher boy	교사의존학생
203	2008. 10. 21.	쇼플러	Shoppler	원정구매족
204	2008. 10. 28.	딩펫족	Dinkpet 族	맛벌이에완족
205	2008. 11. 4.	쇠파라치	쇠 parazzi	쇠고기신고바치
206	2008. 11. 11.	보케베케	vocation-vacation	꿈나래휴가
207	2008. 11. 18.	아이쇼핑	eye shopping	눈길장보기
208	2008. 11. 25.	골드미스	Gold Miss	황금독신여성

번호	순화어 발표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209	2008. 12. 2.	네이미스트	Namist	이름설계사
210	2008. 12. 9.	웨딩플래너	wedding planner	결혼도우미
211	2008. 12. 16.	S라인	S-line	호리병 몸매
212	2008. 12. 23.	셀슈머	sellsumer	누리장터꾼
213	2008. 12. 30.	허브족	hub-族	마당밭족
214	2009. 1. 6.	폴리페서	polifessor	정치철새교수
215	2009. 1. 13.	NG	No Graduation	늑장졸업족
216	2009. 1. 20.	글램핑	glamping	귀족야영
217	2009. 2. 3.	가십(거리)	gossip (거리)	입방아 (거리)
218	2009. 2. 10.	루비족	RUBY-族	새봄여성
219	2009. 2. 17.	스포테인먼트	spotainment	흥끌이운동
220	2009. 2. 24.	패키지 상품	package 商品	꾸러미상품
221	2009. 3. 3.	후크송	Hook Song	멤돌이곡
222	2009. 3. 10.	헬리콥터 부모	helicopter 父母	치마폭부모
223	2009. 3. 17.	웰본	well-born	배넛바라지
224	2009. 3. 24.	시시티브이	CCTV	상황관찰기
225	2009. 3. 31.	스펙업	spec-up	깜냥쌓기
226	2009. 4. 7.	넷북	Net-book	손누리틀
227	2009. 4. 14.	프티 성형	petit 成形	여우비성형
228	2009. 4. 21.	헤비업로더	heavy uploader	누리물난전꾼
229	2009. 4. 28.	킬힐	kill heel	까치발구두
230	2009. 5. 5.	생식건강	生食健康	생명쌌건강
231	2009. 5. 12.	줌마테이너	줌마+tainer	재치부인
232	2009. 5. 19.	키덜트	kidult	어른왕자
233	2009. 5. 26.	블룩	blook	누리글보따리
234	2009. 6. 2.	웹툰	Webtoon	누리터쭈그림

번호	순화어 발표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235	2009. 6. 9.	사이버 대학	cyber 大學	두루누리대학
236	2009. 6. 23.	브로마이드	bromide	벽붙이사진
237	2009. 7. 7.	랜드마크	landmark	마루지
238	2009. 7. 21.	핫이슈	hot issue	주요쟁점
239	2009. 8. 4.	레시피	recipe	조리법
240	2009. 8. 18.	마이크로 블로그 (트위터)	microblog(Twitter)	댓글나눔터
241	2009. 9. 1.	멘토(멘티)	Mentor	인생길잡이
242	2009. 9. 15.	팝업창	pop-up 窓	알림창
243	2009. 9. 28.	아이콘	icon	상징(물)
244	2009. 10. 13.	노이즈마케팅	noise marketing	구설(수)홍보
245	2009. 10. 27.	정크푸드	junk food	부실음식(식품)
246	2009. 11. 10.	커플룩	couple look	짝궁차림
247	2009. 11. 24.	유에스비(USB)메모리	USB memory	정보막대
248	2009. 12. 8.	갈라쇼	gala show	뒤풀이공연
249	2009. 12. 22.	캠프파이어	campfire	모닥불놀이
250	2010. 1. 5.	리콜	recall	결함보상(제)
251	2010. 1. 19.	아킬레스건	Achilles 腱	치명(적) 약점
252	2010. 2. 2.	아이젠	Eisen	눈길덧신
253	2010. 2. 16.	워킹맘	working mom	직장인엄마
254	2010. 3. 2.	하이파이브	high five	손뼉맞장구
255	2010. 3. 16.	발레파킹	valet parking	대리주차
256	2010. 3. 30.	카시트	car seat	아이안전의자
257	2010. 4. 13.	스마트폰	Smart Phone	똑똑(손)전화
258	2010. 4. 27.	숍인숍	shop in shop	어울가게
259	2010. 5. 11.	할리우드액션	Hollywood action	눈속임짓

번호	순화어 발표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260	2010. 5. 25.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지도층 의무
261	2010. 6. 8.	테스터	tester	체험평가자
262	2010. 6. 22.	코르사주	corsage	맵시꽃
263	2010. 7. 6.	헤드셋	headset	통신머리띠
264	2010. 7. 21.	더치페이	Dutch pay	각자내기
265	2010. 8. 4.	보드마커	board marker	칠판펜
266	2010. 8. 1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	누리통신망(서비스)
267	2010. 8. 30.	스마트워크	smart work	원격 근무
268	2010. 9. 15.	오픈마켓	Open Market	열린 장터
269	2010. 9. 28.	선루프	sunroof	지붕창
270	2010. 10. .12.	슬로시티	slow city	참살이지역
271	2010. 10. 27.	멀티탭	multi-tap	모뎀꽂이
272	2010. 11. 9.	타운하우스	town house	공동전원주택
273	2010. 11. 23.	소셜 커머스	social commerce	공동할인구매
274	2010. 12. 8.	와이파이	Wi-Fi	근거리통신망
275	2010. 12. 21.	PL	Private Label	자체기획상품

4. 국립국어원 발간물 일람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1	공공 기관의 안내 방송 문안 조사 연구	1991	국립국어연구원
2	국립국어연구원 요람	1991	국립국어연구원
3	국어순화자료집(1977~1991)	1991	국립국어연구원
4	국어의 표준화법(시안)	1991	국립국어연구원 문화부
5	국어학논저목록집	1991	국립국어연구원
6	동양 삼국의 언어 정책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	1991	국립국어연구원
7	상호, 상품 이름, 아파트 이름, 등의 광고에 나타난 국어 사용의 실태조사 연구	1991	국립국어연구원
8	애국가 가사의 변천 조사	1991	국립국어연구원
9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90년대)	1991	국립국어연구원
10	우리나라 한자의 약체 조사	1991	국립국어연구원
11	우리말의 예절—화법의 실제와 표준	1991	국립국어연구원
12	주시경 추념문 모음	1991	국립국어연구원
13	한자코드 표준화 개선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 - 국내외 표준화 대응을 위한 확장 한자 세트 선정을 중심으로	1991	문화부
14	남북한 어문 규범	1991	국립국어연구원
15	한국어	1991	국립국어연구원
16	가나다 전화 자료집	1992	국립국어연구원
17	국립국어연구원법규집	1992	국립국어연구원
18	국립국어연구원 요람	1992	국립국어연구원
19	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자료 대상 및 어휘 수집에 관한 연구	1992	국립국어연구원
20	국어사전에서의 파생어 처리에 관한 연구	1992	국립국어연구원
21	국어문화학교(국어반)	1992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22	국어문화학교(번역반)	1992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23	국어문화학교(정확한 문장 쓰기/바른 어휘 쓰기)	1992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24	국어 순화 자료집	1992	국립국어연구원
25	국어학 연감	1992	국립국어연구원
26	동양 삼국의 사전 편찬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	1992	국립국어연구원
27	동양 삼국의 약체자 비교 연구	1992	국립국어연구원
28	문자열검색, 사전검색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1992	국립국어연구원
29	번역을 출판물의 오역에 관한 기초적 연구	1992	국립국어연구원
30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I)	1992	국립국어연구원
31	북한의 언어정책	1992	국립국어연구원
32	세계의 언어정책	1992	국립국어연구원
33	컴퓨터 한글 자판에 대한 연구 - 자모 결합 빈도 조사 -	1992	국립국어연구원
34	표준 화법 해설	1992	국립국어연구원
35	한메 이운재 선생 기념 문집	1992	국립국어연구원
36	한자 사용 실태 조사(1990년도)	1992	국립국어연구원
37	한자.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1992	국립국어연구원
38	해외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교재	1992	국립국어연구원
39	15세기 한자어 조사 연구	1993	국립국어연구원
40	15세기 한자어 조사 연구(I)	1993	국립국어연구원
41	15세기 한자어 조사 연구(II)	1993	국립국어연구원
42	국어사전에서의 합성어 처리에 관한 연구	1993	국립국어연구원
43	국어 어휘의 분류 목록에 대한 연구(최종 연구 보고서)	1993	국립국어연구원
44	국어문화학교(번역반)	1993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45	국어순화자료집	1993	국립국어연구원
46	국어학 연감	1993	국립국어연구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47	기본 외래어 조사 자료집	1993	국립국어연구원
48	번역 출판물의 오역에 관한 기초적 연구	1993	국립국어연구원
49	북한 국어사전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	1993	국립국어연구원
50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Ⅱ)	1993	국립국어연구원
51	북한의 한자어·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1993	국립국어연구원
52	신소설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1993	국립국어연구원
53	외래어 표기 용례집(동구권 지명·인명)	1993	국립국어연구원
54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1993	국립국어연구원
55	일본어 투 생활 용어 사용 실태 조사	1993	국립국어연구원
56	종합국어대사전(가칭) 시험 집필 300단어집	1993	국립국어연구원
57	컴퓨터 자판 옛자모 배열 연구	1993	국립국어연구원
58	컴퓨터를 이용한 국어 자료 분석에 대한 기초적 연구	1993	국립국어연구원
59	한자 약체 조사 연구	1993	국립국어연구원
60	한자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1993	국립국어연구원
61	해외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교재	1993	국립국어연구원
62	해외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교재(외래어 표기법)	1993	국립국어연구원
63	국립국어연구원 요람	1994	국립국어연구원
64	국어 문화 학교(국어반)	1994	국립국어연구원
65	국어순화자료집	1994	국립국어연구원
66	국어학 연감	1994	국립국어연구원
67	번역문체의 역사적 연구	1994	국립국어연구원
68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Ⅲ)	1994	국립국어연구원
69	북한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1994	국립국어연구원
70	사전 편찬 문헌 관리 운영 지침서	1994	국립국어연구원
71	사전 편찬 지원 시스템 개발	1994	국립국어연구원
72	신어의 조사 연구	1994	국립국어연구원
73	영어-한국어 번역의 언어학적 연구	1994	국립국어연구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74	일석 이회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1994	국립국어연구원
75	종합 국어 대사전 집필 지침	1994	국립국어연구원
76	한자 약체 사용 실태 조사	1994	국립국어연구원
77	한자 약체 조사 연구	1994	국립국어연구원
78	한자음에 의한 한자입력 방법 연구	1994	국립국어연구원
79	현대 국어의 약어 목록	1994	국립국어연구원
80	95년 신어	1995	국립국어연구원
81	가나다 전화 자료집	1995	국립국어연구원
82	국립국어연구원 요약	1995	국립국어연구원
83	국어 문화 학교(국어반)	1995	국립국어연구원
84	국어 문화 학교(번역반)	1995	국립국어연구원
85	국어 문화 학교(번역반)	1995	국립국어연구원
86	국어 문화 학교(청소년반)	1995	국립국어연구원
87	국어 순화 자료집	1995	국립국어연구원
88	국어학 연감	1995	국립국어연구원
89	국어학의 번역 술어 연구	1995	국립국어연구원
90	기본 외래어 용례집	1995	국립국어연구원
91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 - 국어사전과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1995	국립국어연구원
92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	1995	국립국어연구원
93	문헌 자료 입력 지침	1995	국립국어연구원
94	바람직한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1995	국립국어연구원
95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IV)	1995	국립국어연구원
96	외래어 표기 용례집(북구권 지명·인명)	1995	국립국어연구원
97	용례 자료집(1차 검색본)	1995	국립국어연구원
98	한결 김윤경 선생의 학문과 인간	1995	국립국어연구원
99	한국 어문 규정집	1995	국립국어연구원
100	한국어 연수 교재	1995	국립국어연구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101	한글 글자본 제정 - 1995년도 제5차년도 한글 궁체 글자체 글자본	1995	문화체육부
102	한글 코드에 관한 연구	1995	국립국어연구원
103	한중일 3국의 한자 사용 실태	1995	국립국어연구원
104	신어의 조사 연구 (현대 시의 신어 연구)	1996	국립국어연구원
105	96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 학술회의	1996	국립국어연구원
106	가나다 전화 자료집	1996	국립국어연구원
107	김재 정인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1996	국립국어연구원
108	국립국어연구원 소식	1996	국립국어연구원
109	국립국어연구원 요람	1996	국립국어연구원
110	국어문화학교(국어반)	1996	국립국어연구원
111	국어문화학교(국어반)	1996	국립국어연구원
112	국어문화학교(국어반)	1996	국립국어연구원
113	국어문화학교(번역반)	1996	국립국어연구원
114	국어문화학교(번역반)	1996	국립국어연구원
115	국어 어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연구	1996	국립국어연구원
116	국어 음성 분석 연구 - 실험음성학적인 면에서 본 표준어 단순 모음의 세대간 차이 -	1996	국립국어연구원
117	국어순화용어자료집	1996	문화체육부
118	국어의 로마자 표기 자료집	1996	국립국어연구원
119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사용실태 조사연구	1996	국립국어연구원
120	국어의 시대별 변천, 실태 연구(1)	1996	국립국어연구원
121	국어학 연감	1996	국립국어연구원
122	국어학의 번역 술어 연구	1996	국립국어연구원
123	바른말 고운말	1996	문화체육부
124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V)	1996	국립국어연구원
125	외래어 표기 용례집	1996	국립국어연구원
126	일본어 투 생활 용어 사용 실태 조사	1996	국립국어연구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127	정부언론외래어심의위원회 (제1차 ~ 제14차) 결정 외래어 표기 용례집	1996	국립국어연구원
128	컴퓨터 처리 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1996	문화체육부
129	한국 어문 규정집	1996	국립국어연구원
130	한국어 연수 교재	1996	국립국어연구원
131	한자의 자형 조사 (간략판)	1996	국립국어연구원
132	한자의 자형 조사(1)	1996	국립국어연구원
133	가나다 전화 자료집(1997) - 수정증보판 -	1997	국립국어연구원
134	국립국어연구원 요람	1997	국립국어연구원
135	국어 교사의 표준어 사용 실태 조사(I)	1997	국립국어연구원
136	국어문화학교(국어반)	1997	국립국어연구원
137	국어문화학교(번역반)	1997	국립국어연구원
138	국어순화용어자료집	1997	문화체육부
139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1997	국립국어연구원
140	국어 정책 자료집	1997	문화체육부
141	국어학 연감	1997	국립국어연구원
142	서울 토박이 말 조사 질문지(1) - 음운 편 -	1997	국립국어연구원
143	서울 토박이 말 조사 질문지(2) - 어휘, 문법 편- (상)	1997	국립국어연구원
144	서울 토박이 말 조사 질문지(2) - 어휘, 문법 편- (중)	1997	국립국어연구원
145	서울 토박이 말 조사 질문지(2) - 어휘, 문법 편- (하)	1997	국립국어연구원
146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1)	1997	국립국어연구원
147	어휘 조사 단위에 대한 연구	1997	국립국어연구원
148	열운 장지영선생의 학문과 인간	1997	국립국어연구원
149	외래어 표기 용례집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결정 (제1차~제19차) -	1997	국립국어연구원
150	통합 교열 지침	1997	국립국어연구원 사전편찬실
151	한국 신문의 문체-1990년대-	1997	국립국어연구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152	한국어 연수 교재(Ⅰ)	1997	국립국어연구원
153	한국어 연수 교재(Ⅱ). 1997	1997	국립국어연구원
154	한국점자규정	1997	문화체육부
155	한자의 자형 조사 (2)	1997	국립국어연구원
156	(21세기 세종계획) 사업 보고서	1998	(주)ECO
157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개발 분과 1차 중간 발표회 자료 모음집	1998	문화관광부
158	(21세기 세종계획)국어 기초 자료 구축	1998	문화관광부
159	(21세기 세종계획)국어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	1998	문화체육부
160	(21세기 세종계획)전자사전개발	1998	문화관광부
161	(21세기 세종계획)제1차 회의 발표 자료 모음집	1998	문화관광부
162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단어와 구의 형태 · 통사론적 연구	1998	국립국어연구원
163	국어문화학교(국어반)	1998	국립국어연구원
164	국어문화학교(번역반)	1998	국립국어연구원
165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1998	국립국어연구원
166	국어학 연감	1998	국립국어연구원
167	국제 문자 코드 제안 한자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상)	1998	문화관광부
168	국제 문자 코드 제안 한자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하)	1998	문화관광부
169	글꼴 1998	1998	국립국어연구원
170	문자열검색, 사전검색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1998	(주)셈틀로소프트
171	북한 문학 작품의 어휘 - 남북한 어휘 차이를 중심으로 -	1998	국립국어연구원
172	사전원고 변환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연구보고서)	1998	국립국어연구원
173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2)	1998	국립국어연구원
174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1998	국립국어연구원
175	외래어 표기 용례집(1998)	1998	국립국어연구원
176	우리말 바로 알기	1998	문화관광부
177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1998	문화관광부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178	한국어 연수 교재	1998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79	한글맞춤법검색시스템	1998	문화관광부
180	한민족 언어 정보화	1998	문화관광부
181	(21세기 세종계획)국어 기초 자료 구축	1999	문화관광부
182	(21세기 세종계획)전자사전 개발	1999	문화관광부
183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1	1999	국립국어연구원
184	교과서의 어휘 분석 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	1999	문화관광부
185	국립국어연구원 요람	1999	국립국어연구원
186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 통사론적 연구	1999	국립국어연구원
187	국어문화학교(국어반)	1999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188	국어문화학교(바른 문장 쓰기)	1999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189	국어문화학교(번역반)	1999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190	국어문화학교	1999	국립국어연구원
191	국어순화자료집	1999	국립국어연구원
192	국어연구원에 물어보았어요 1999 - 국어 민원 사례 모음 -	1999	국립국어연구원
19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	1999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19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청회	1999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195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1999	국립국어연구원
196	국어학 연감	1999	국립국어연구원
197	글꼴 1999	1999	국립국어연구원
198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	1999	을지서적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199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개정 시안)’	1999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200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	1999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201	비표준문자등록센터 사업 보고서	199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비표준문자등록센터
202	전문용어센터 사업 보고서(전문용어 통합정보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1999	문화관광부
203	전자말뭉치를 이용한 사전 편찬론	1999	문화관광부
204	최세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1999	국립국어연구원
205	표준국어대사전 띄어쓰기 지침	1999	국립국어연구원
206	한국어문규정집	1999	국립국어연구원
207	한국어연수교재	1999	국립국어연구원
208	한민족 언어 정보화 -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1999	문화관광부
209	한민족 언어 정보화 - 표준어 검색시스템	1999	문화관광부
210	한중일 한자 문헌 전산화의 현황과 과제	1999	국립국어연구원
211	Unicode 한글 TEX 개발	1999	문화관광부
212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 간 협력망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국제 학술회의 개최” 사업 보고서	2000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213	“주요 국제어의 자국어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조사 연 구” 사업 보고서	2000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214	“한국어 교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교수 요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 구” 사업 보고서	2000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215	“한국어 교사 자격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적 연구” 사업 보고서	2000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216	“한국어 교육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 사업 보고서	2000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217	“한국어 중급 교재 교수 요목 개발” 사업 보고서	2000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218	“한국어 초급(쓰기·읽기)교사용 지침서 및 학습자용 워크북 개발” 사업 보고서	2000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219	“한국어” 초급(말하기·듣기)교재 개발 사업 보고서 1	2000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220	“한국어” 초급(말하기·듣기)교재 개발 사업 보고서 2	2000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221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2000	문화관광부
222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2000	문화관광부
223	(21세기 세종계획)국어 기초 자료 구축	2000	문화관광부
224	(21세기 세종계획)국어 기초 자료 구축 분과·특수자료구축 소분과	2000	문화관광부
225	(21세기 세종계획)말뭉치 통합 응용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2000	문화관광부
226	(로마자표기법) 왜 개정해야 하나	2000	국립국어연구원
227	(로마자표기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0	국립국어연구원
228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국어문화학교(정확한 문장 쓰기 / 바른 어휘 쓰기)	2000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229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I	2000	국립국어연구원
23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II	2000	국립국어연구원
231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백서	2000	국립국어연구원
232	2000년 신어	2000	국립국어연구원
233	20세기 전반기 어휘 조사(1)	2000	국립국어연구원
234	21세기 정보 이행 및 표현 능력 제고 방안 연구	2000	문화관광부
235	(국어 정책에 관한 학술회의) 21세기의 국어 정책	2000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236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2	2000	국립국어연구원
237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3	2000	국립국어연구원
238	교과서 어휘의 조사단위 연구 -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2000	국립국어연구원
239	국립국어연구원 10년사	2000	국립국어연구원
240	국립국어연구원 요약	2000	국립국어연구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241	국어 순화 자료집	2000	국립국어연구원
242	국어문화학교(국어반): 간략판	2000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243	국어문화학교(국어반)	2000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244	국어문화학교(국어반)	2000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245	국어문화학교	2000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246	국어문화학교(번역반)	2000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진흥회
247	국어순화 자료집	2000	국립국어연구원
24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설명회	2000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24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	2000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25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광주광역시)	2000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25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대구광역시)	2000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25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대전광역시)	2000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25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제주시)	2000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25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개 토론회(춘천시)	2000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255	국어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2000	대우정보시스템
256	국어정보화 연구 인력 양성	2000	문화관광부
257	국어학 연감	2000	국립국어연구원
258	국제 문자 코드 한자 Super CJK 연구	2000	국립국어연구원
259	글꼴 2000	2000	문화관광부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260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	2000	국립국어연구원
261	바람직한 통신언어 확립을 위한 기초 연구	2000	문화관광부
262	방송 언어 오용 실태 조사	2000	국립국어연구원
263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	2000	국립국어연구원
264	비표준문자등록센터 사업 보고서	2000	문화관광부
265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3)	2000	국립국어연구원
266	서과 유희 선생의 학문과 인간	2000	국립국어연구원
267	세계의 문장상당소 운영 상황 조사 연구	2000	문화관광부
268	어문 규범 준수 실태조사 I	2000	국립국어연구원
269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2000	국립국어연구원
270	옥외광고물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연구	2000	국립국어연구원
271	외국어관 한국어 초급(읽기·쓰기)교재 개발 사업 보고서	2000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272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초급 한국어 사전 개발	2000	문화관광부
273	전문용어센터 운영	2000	문화관광부
274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2000	국립국어연구원
275	한국 문화 기초 용어	2000	국립국어연구원
276	한국어 말뭉치의 활용	2000	문화관광부
277	한국어 문형 사전의 개발 사업 보고서	2000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278	한국어 연수 교재	2000	국립국어연구원
279	The revised Romanization of Korea	2000	국립국어연구원
280	국어문화학교 (국어반)	2000	국립국어연구원
281	한국어 초급(말하기·듣기) 교사용 지침서 개발	2001	문화관광부
282	한국어 초급(읽기·쓰기) 실물 교재 개발	2001	문화관광부
283	한국어 초급(읽기·쓰기)실물 교재 개발	2001	문화관광부
284	한국어 초급(읽기·쓰기)실물 교재 개발	2001	문화관광부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285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2001	문화관광부
286	(21세기 세종계획)결과물보급관리센터	2001	문화관광부
287	(21세기 세종계획)구문태그 부착 말뭉치 구축 도구 사용자 설명서	2001	문화관광부
288	(21세기 세종계획)국어 기초 자료 구축	2001	문화관광부
289	(21세기 세종계획)국어 특수 자료 구축	2001	문화관광부
290	(21세기 세종계획)국어 특수 자료 구축 -프로그램 매뉴얼-	2001	문화관광부
291	(21세기 세종계획)옛 문헌 한글 글꼴 발굴·복원 연구(글꼴개발보급센터 사업 보고서)	2001	문화관광부
292	(21세기 세종계획)전문용어의 정비	2001	문화관광부
293	(21세기 세종계획)전자사전 개발 분과	2001	문화관광부
294	2001년 신어	2001	국립국어연구원
295	2001년 표준국어대사전 보완작업	2001	국립국어연구원
296	2001년도 한국어 세계화 포탈 사이트 개발 및 구축	2001	문화관광부
297	20세기 전반기 어휘조사(2)	2001	국립국어연구원
298	가나다 전화 상담원 지침서	2001	국립국어연구원
299	국립국어연구원 요람	2001	국립국어연구원
300	국어 교사의 표준어 사용 실태 조사(Ⅱ)	2001	국립국어연구원
301	국어 사용 실태 지수 개발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2001	문화관광부
302	국어 순화 자료집	2001	국립국어연구원
303	국어 음성 자료의 구축 현황과 전망(학술회의)	2001	국립국어연구원
304	국어연구원에 물어보았어요(일반용)	2001	국립국어연구원
305	국어연구원에 물어보았어요(초등용)	2001	국립국어연구원
306	국어학 연감	2001	국립국어연구원
307	국제 문자 코드계의 한자 표준화에 대한 연구	2001	문화관광부
308	글꼴 2001	2001	문화관광부
309	남한정착 북한출신 주민의 언어적응 실태 조사연구	2001	문화관광부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310	도로명의 사이시옷 표기, 성씨의 로마자 표기 공개 토론회	2001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311	바른국어생활	2001	국립국어연구원
312	바른국어생활	2001	국립국어연구원
313	바른국어생활	2001	국립국어연구원
314	바른국어생활	2001	국립국어연구원
315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2001	국립국어연구원
316	북한 시나리오 어휘 조사 연구	2001	국립국어연구원
317	북한 영화 어휘 조사 연구	2001	국립국어연구원
318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	2001	국립국어연구원
319	비표준문자등록센터 사업 보고서	200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비표준문자등 록센터
320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IV)	2001	국립국어연구원
321	설총 선생과 국어	2001	국립국어연구원
322	아름답고 정겨운 우리말	2001	문화관광부
323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I	2001	국립국어연구원
324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파생접사 연구	2001	국립국어연구원
325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2001)	2001	국립국어연구원
32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개발	2001	문화관광부
327	외래어 발음 실태조사	2001	국립국어연구원
328	외래어 표기 용례집	2001	국립국어연구원
329	우리 문화 길라잡이(한글판,영문판)	2001	학교재
330	운동 경기 용어 순화집	2001	문화관광부
331	제2회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개최	2001	문화관광부
332	주요 어휘 용례 수집 및 정리-형용사 편-	2001	국립국어연구원
333	표준국어대사전 보완작업	2001	국립국어연구원
334	통신언어 어휘집	2001	문화관광부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335	한국 어문 규정집	2001	국립국어연구원
336	한국어 교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교과 과정 및 교수 요목 개발	2001	문화관광부
337	한국어 교원 자격 인증 제도 시행 방안 개발	2001	문화관광부
338	한국어 교육 총서1 “한국어 발음 교육” 개발	2001	문화관광부
339	한국어 문형 사전의 개발	2001	문화관광부
340	한국어 세계화 국제 학술 대회 개최	2001	문화관광부
341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	2001	문화관광부
342	한국어 연수 교재	2001	국립국어연구원
343	한글 옛 문헌 정보 조사 연구	2001	문화관광부
344	(21세기 세종계획)결과물보급관리센터	2002	문화관광부
345	(21세기 세종계획)국어 기초 자료 구축	2002	문화관광부
346	(21세기 세종계획)국어 특수 자료 구축	2002	문화관광부
347	(21세기 세종계획)국어정보화 연구인력 양성	2002	문화관광부
348	(21세기 세종계획)반자동 구문분석 말뭉치 구축도구 사용자 설명서	2002	문화관광부
349	(21세기 세종계획)비표준문자등록센터 운영	2002	문화관광부
350	(21세기 세종계획)옛 문헌 한글 글꼴 발굴·복원연구	2002	문화관광부
351	(21세기 세종계획)전문용어의 정비	2002	문화관광부
352	(21세기 세종계획)전자사전 개발 분과	2002	문화관광부
353	(21세기 세종계획)전자사전개발	2002	문화관광부
354	(21세기 세종계획)한민족 언어 정보화	2002	문화관광부
355	(21세기 세종계획)한민족 언어 정보화-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2002	문화관광부
356	(21세기 세종계획)한영 병렬 말뭉치 용례검색 시스템(HepMan 2.0)	2002	문화관광부
357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집 발간을 위한 기초 연구	2002	국립국어연구원
358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2002	국립국어연구원
359	2002년 신어	2002	국립국어연구원
360	공무원 국어 시험을 위한 제안 -문제유형을 중심으로-	2002	국립국어연구원
361	구어 자료 문장 사용 실태	2002	국립국어연구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362	국립국어연구원 요람	2002	국립국어연구원
363	국어 순화 자료집	2002	국립국어연구원
364	국어 연구 논저 목록 1(1991~2001)	2002	국립국어연구원
365	국어 연구 자료 구축 1	2002	국립국어연구원
366	국어 정책 자료집	2002	문화관광부
367	국어학 연감	2002	국립국어연구원
368	국제 문자 코드계의 한자 표준화에 대한 연구	2002	문화관광부
369	글꼴 2002	2002	문화관광부
370	기본 어휘 선정 및 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	2002	국립국어연구원
371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2002	국립국어연구원
37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1 - 남과 북이 서로 같게 순화한 용어를 중심으로 -	2002	국립국어연구원
373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2002	문화관광부
374	로마자 표기법 홍보 및 보급	2002	국립국어연구원
375	문장 부호 세척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2	국립국어연구원
376	미주 한인들을 위한 English 올바른 한글표기	2002	중앙일보 미주본사 문화관광부
377	바른국어생활	2002	국립국어연구원
378	바른국어생활	2002	국립국어연구원
379	바른국어생활	2002	국립국어연구원
380	바른국어생활	2002	국립국어연구원
381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2002	국립국어연구원
382	북한 방송 용어 조사 연구	2002	국립국어연구원
383	북한 신문 용어 조사 연구	2002	국립국어연구원
384	북한의 '조선말사전(학생용)' 분석	2002	국립국어연구원
385	신속주의 학문과 인간	2002	국립국어연구원
386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Ⅲ	2002	국립국어연구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387	어문 규범의 단계적 개발을 위한 초등학교의 글쓰기 분석 -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2002	국립국어연구원
388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2002	국립국어연구원
389	외래어 표기 용례집(인명)	2002	국립국어연구원
390	외래어 표기 용례집(일반용어)	2002	국립국어연구원
391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	2002	국립국어연구원
392	우리 문화 길라잡이	2002	학교재
393	제품 설명서의 문장 실태 연구1	2002	국립국어연구원
394	주요 어휘 용례집-동사 편(상 ㄱ~ㄴ)-	2002	국립국어연구원
395	주요 어휘 용례집-동사 편(하 ㄷ~ㅎ)-	2002	국립국어연구원
396	표준 발음 실태 조사	2002	국립국어연구원
397	한국 한자 이체자 조사	2002	국립국어연구원
398	한국어 연수 교재	2002	국립국어연구원
399	한국어 연수 교재II	2002	국립국어연구원
400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2002	문화관광부
401	한국어와 언어학 관련 사이트 자료집	2002	국립국어연구원
4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2002	국립국어연구원
403	현진건의 20세기 전반기 단편소설 어휘 조사	2002	국립국어연구원
404	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culture	2002	학교재
405	LA지역의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 연구	2002	문화관광부
406	(21세기 세종계획)구문분석말뭉치 종합 관리 도구	2003	문화관광부
407	(21세기 세종계획)국어 기초 자료 구축	2003	문화관광부
408	(21세기 세종계획)국어 특수 자료 구축	2003	문화관광부
409	(21세기 세종계획)국어정보화 연구인력 양성	2003	문화관광부
410	(21세기 세종계획)말뭉치 활용 방안	2003	문화관광부
411	(21세기 세종계획)문자코드 표준화 연구	2003	문화관광부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412	(21세기 세종계획)옛 문헌 한글 글꼴 발굴·복원 연구	2003	문화관광부
413	(21세기 세종계획)전문용어의 정비	2003	문화관광부
414	(21세기 세종계획)전자사전 개발	2003	문화관광부
415	(21세기 세종계획)한민족 언어 정보화	2003	문화관광부
416	(557돌 한글날 기념)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대회	2003	국립국어연구원
417	2003년 신어	2003	국립국어연구원
418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회의	2003	국립국어연구원
419	국어 교과서의 문장 실태 연구 - 국정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	2003	국립국어연구원
420	국어 문화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원로 초청 강연회	2003	국립국어연구원
421	국어 순화 자료집	2003	국립국어연구원
422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2003	국립국어연구원
42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시디롬	2003	국립국어연구원
424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2003	국립국어연구원
425	국어 순화 실태 지수 개발	2003	문화관광부
426	국어 연구 논저 목록 II	2003	국립국어연구원
427	국어학 연감	2003	국립국어연구원
428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2003	국립국어연구원
429	국정 연설문의 실태	2003	국립국어연구원
430	국제문자 코드계의 Ext.B 등재 한자의 비교연구	2003	문화관광부
431	글꼴 2003	2003	문화관광부
432	남북 언어 순화 자료 협의를 위한 기초 연구	2003	국립국어연구원
433	문화 행정 지식 포털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1)	2003	국립국어연구원
434	문화 행정 지식 포털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2)	2003	국립국어연구원
435	바른국어생활	2003	국립국어연구원
436	바른국어생활	2003	국립국어연구원
437	바른국어생활	2003	국립국어연구원
438	바른국어생활	2003	국립국어연구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439	북남 대역 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2003	국립국어연구원
440	북한 사전 미등재어 조사 연구	2003	국립국어연구원
441	북한의 우리말 의미 연구 자료집	2003	국립국어연구원
442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2003	국립국어연구원
443	신문 문장 분석 -사설, 칼럼을 중심으로-	2003	국립국어연구원
444	실용문 실태 연구	2003	국립국어연구원
445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V	2003	국립국어연구원
446	어휘별 규범 해설 -상권-(ㄱ~ㄴ)	2003	국립국어연구원
447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2003	국립국어연구원
448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언어실태와 문제점	2003	문화관광부
449	월명의 삶과 문학	2003	국립국어연구원
450	제2차 남북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2003	국립국어연구원
451	제품 설명서의 문장 실태 연구2	2003	국립국어연구원
452	주요 어휘 용례집 - 부사/관형사/대명사/수사/감탄사/의존 명사 편	2003	국립국어연구원
453	주요 어휘 용례집-명사 편(상 ㄱ~ㄴ)-	2003	국립국어연구원
454	주요 어휘 용례집-명사 편(중ㄴ~ㅇ)-	2003	국립국어연구원
455	주요 어휘 용례집-명사 편(하ㅈ~ㅎ)-	2003	국립국어연구원
456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2003	국립국어연구원
457	초등학생의 글쓰기 실태 조사와 능력 신장 방안 연구	2003	국립국어연구원
458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	2003	국립국어연구원
459	표준국어대사전 정오표	2003	국립국어연구원
460	한국 점자 규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2003	문화관광부
461	한국 현대 소설의 어휘 조사 연구	2003	국립국어연구원
462	한국어 연수 교재	2003	국립국어연구원
463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및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결과 보고서 (1992~2002)	2003	국립국어연구원
464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2003	국립국어연구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465	현대 국어의 준말 목록	2003	국립국어연구원
466	(21세기 세종계획)국어 기초 자료 구축	2004	문화관광부
467	(21세기 세종계획)국어 정보 관리 센터 운영	2004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468	(21세기 세종계획)국어 특수자료 구축	2004	문화관광부
469	(21세기 세종계획)문자코드 표준화 연구	2004	문화관광부
470	(21세기 세종계획)성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2004	문화관광부
471	(21세기 세종계획)전문용어 정비	2004	문화관광부
472	(21세기 세종계획)전자사전개발	2004	문화관광부
473	(21세기 세종계획)한민족 언어 정보화	2004	문화관광부
474	2004년 신어	2004	국립국어원
475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 개선 방안 연구	2004	국립국어원
476	국립국어연구원 요람	2004	국립국어연구원
477	국어 연구 논저 목록 III (1971~2003)	2004	국립국어원
478	국어능력검정 시행 방안 연구	2004	국립국어원
479	국어학 고유어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2004	국립국어연구원
480	국어학 연감	2004	국립국어원
481	국외 한국어 교사 초청 교육 교재	2004	국립국어연구원
482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	2004	국립국어연구원
483	국제 표준코드 한자 Ext.B의 한자 표준음 연구	2004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484	글꼴 2004	2004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485	남북 문자코드 변환 시스템 개발	2004	국립국어원
486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2004	국립국어원
487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2004)	2004	국립국어원
488	바른국어생활	2004	국립국어연구원
489	바른국어생활	2004	국립국어연구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490	바른국어생활	2004	국립국어연구원
491	북한의 국어 연구 자료 구축 1 (1946~2000) (시디롬)	2004	국립국어원
492	안전 설명문의 실태 연구	2004	국립국어원
493	어문규범 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 연구	2004	국립국어원
494	어휘별 규범 해설	2004	국립국어연구원
495	언어 실태 조사 장기 계획	2004	국립국어원
496	연극·영화용어 순화자료집	2004	문화관광부
497	제3차 남북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2004	국립국어연구원
498	제5회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기본 & 일반 강좌 강의자료집	2004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499	주요 어휘 용례집-부사/관형사/대명사/수사/감탄사/의존명사 편-	2004	국립국어연구원
500	주요국가의 사회언어학 연구동향	2004	국립국어원
501	중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2004	국립국어원
502	지역어 음성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연구	2004	국립국어원
503	초등학생용 글쓰기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004	국립국어원
504	최항 선생의 학문과 인간	2004	국립국어연구원
505	표준 발음 실태 조사 3	2004	국립국어연구원
506	표준국어대사전 정오표	2004	국립국어연구원
507	韓國文化向導	2004	학교재
508	현행 표기법에 따른 도로표지판, 광고물의 바른 표기	2004	국립국어연구원
509	Workshop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in Southeast Asia & Vision Group for Promotion of Korean Studies in Southeast Asia	2004	UNIVERSITY OF MALAYA,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 KOREA-AUSTRALASIA RESEARCH CENTRE
510	국외 한국어 교사 초청 교육 교재	2004	국립국어원
511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블라디보스토크)	2004	국립국어원
512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모스크바)	2004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513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사할린)	2004	국립국어원
514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카자흐스탄)	2004	국립국어원
515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중국 요령성 지역)	2004	국립국어원
516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하바로프스크 지역)	2004	국립국어원
517	(2006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 국제 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통일의 조건, 민족문화 동질성	2005	한국국학진흥원
518	(21세기 세종계획) 지능형 구문 분석 도구 사용자 설명서	2005	국립국어원
519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2005	국립국어원
520	(21세기 세종계획)국어 기초 자료 구축	2005	국립국어원
521	(21세기 세종계획)국어 정보 관리 센터 운영	2005	국립국어원
522	(21세기 세종계획)국어 특수자료 구축	2005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523	(21세기 세종계획)문자코드 표준화 연구	2005	국립국어원
524	(21세기 세종계획)성과물정제	2005	국립국어원
525	(21세기 세종계획)전문용어의 정비	2005	국립국어원
526	(21세기 세종계획)전자사전 개발	2005	국립국어원
527	(21세기 세종계획)한민족 언어 정보화	2005	국립국어원
528	(제1회 국립국어원·MBC문화방송 공동연구)방송 보도문 개선을 위한 연구	2005	국립국어원 문화방송
529	2004년 국립국어원 연보	2005	국립국어원
530	2005년 국민의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2005	국립국어원
531	2005년 신어	2005	국립국어원
532	2005년도 국어능력검정 모의시험 결과 보고서	2005	한국언어문화연구원
533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1)	2005	국립국어원
534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7)	2005	국립국어원
535	경북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5-6)	2005	국립국어원
536	국립국어원 요람	2005	국립국어원
537	국민의 국어능력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2005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538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연구 (연구보고서)	2005	국립국어원
539	국어 사용 환경 조사(2005)	2005	국립국어원
540	국어 연감	2005	국립국어원
541	국어 연감(국어학 동향)	2005	국립국어원
542	국어 연구 논저 목록 4(1946~2004)	2005	국립국어원
543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2005	국립국어원
544	국어기본법 후속 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5	국립국어원
545	국외 한국어 교사 초청 교육 교재	2005	국립국어원
54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전라북도 임실군	2005	국립국어원
547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2005	국립국어원
548	로마자 표기법 개정 및 보급	2005	국립국어원
549	바른국어생활	2005	국립국어원
550	바른국어생활	2005	국립국어원
551	바른국어생활	2005	국립국어연구원
552	바른국어생활	2005	국립국어연구원
553	바른 국어생활	2005	국립국어연구원
554	법령문 바로 쓰기 연찬 교재	2005	국립국어원
555	북한 국어 연구 논저 목록 2(1946~2004)	2005	국립국어원
556	북한 국어학 용어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2005	국립국어원
557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2005	국립국어원
558	어문규범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2005	현대리서치연구소
559	언어정책 집중 토론회 자료집	2005	국립국어원
560	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외)	2005	국립국어원
561	우리말 다듬기 자료집	2005	국립국어원
562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	2005	국립국어원
563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5)	2005	국립국어원
564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1)	2005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565	제5차 남북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5)	2005	국립국어원
566	제6회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기본 & 일반 강좌 강의자료집	2005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567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8)	2005	국립국어원
568	좋은 글의 요건-실용문을 중심으로-	2005	국립국어원
569	중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2005	국립국어원
570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	2005	국립국어원
571	청소년 언어생활 실태 연구 -고등학교 2학년 서울, 대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2005	국립국어원
572	초등학생용 학년별 글쓰기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005	국립국어원
573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5-3)	2005	국립국어원
574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2)	2005	국립국어원
575	표준어 사정 심의 위원회 회의 자료(2003~2004)	2005	국립국어원
576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2005	국립국어원
577	한중일 한자어 대조 연구	2005	국립국어원
578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2005	국립국어원
579	국외 한국어 교사 초청 교육 교재	2005	국립국어원
580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우크라이나)	2005	국립국어원
581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베트남)	2005	국립국어원
582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베트남 호찌민))	2005	국립국어원
583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우즈베키스탄)	2005	국립국어원
584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키르기스스탄)	2005	국립국어원
585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러시아 모스크바)	2005	국립국어원
586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태국)	2005	국립국어원
587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 활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006	국립국어원
588	(21세기 세종계획)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 관리·보급 및 정제·보완 지원	2006	국립국어원
589	(21세기 세종계획)국어 기초 자료 구축	2006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590	(21세기 세종계획)국어 특수 자료 구축	2006	국립국어원
591	(21세기 세종계획)문자 코드 표준화 연구	2006	국립국어원
592	(21세기 세종계획)전문 용어의 정비	2006	국립국어원
593	(21세기 세종계획)전자사전 개발	2006	국립국어원
594	(21세기 세종계획)한민족 언어 정보화	2006	국립국어원
595	(21세기 세종계획)현대국어 기초 말뭉치 활용 시스템 개발 사용자 설명서	2006	국립국어원
596	2006년도 국어능력검정시험 결과 보고서	2006	국립국어원
597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5-2)	2006	국립국어원
598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1)	2006	국립국어원
599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5-7)	2006	국립국어원
600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6)	2006	국립국어원
601	공공기관 누리집의 언어 사용 실태	2006	국립국어원
602	국어 연감(국어 동향)	2006	국립국어원
603	국어 연감(인명록)	2006	국립국어원
604	국어능력 조사 방법 연구 1	2006	국립국어원
605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 최종 보고서	2006	국립국어원
606	디지털 한글박물관 구축 사업	2006	국립국어원
607	말하기능력 측정 도구 개발 1	2006	국립국어원
608	바른국어생활	2006	국립국어원
609	바른국어생활	2006	국립국어원
610	바른국어생활 (2006-1)	2006	국립국어원
611	바른국어생활 (2006-2)	2006	국립국어원
612	바른소리(일본어판)	2006	국립국어원
613	방송언어의 경어법 개선을 위한 연구(제1회 국립국어원 SBS 방송 언어 공동 연구)	2006	국립국어원
614	방송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법과 교재 개발	2006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615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2006	국립국어원
616	신나는 점자놀이/점자놀이 학습 자료	2006	국립국어원
617	언어 경관 조성 장기 계획 연구	2006	국립국어원
618	언어와 문화 교류를 위한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2006	국립국어원
619	언어정책 토론회 자료집	2006	국립국어원
620	연령별 계층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1	2006	국립국어원
621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최종 보고서	2006	국립국어원
622	외래어 및 외국어 인지도 조사 보고서	2006	국립국어원
623	우리말 다듬기 자료집	2006	국립국어원
624	李衡祥의 ‘字學提綱’譯註	2006	국립국어원
625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5)	2006	국립국어원
626	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006	국립국어원
627	전문 용어 지원 시스템 구축	2006	국립국어원
628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1)	2006	국립국어원
629	점사랑	2006	국립국어원
630	정부·언론 표준어 사정 심의회 논의 자료(2003~2006)	2006	국립국어원
631	제6회 KBS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분석 연구(2006. 10. 15. 한국방송 주관 제6회 KBS 한국어능력시험)	2006	국립국어원
632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8)	2006	국립국어원
633	지역어 조사 질문지 (분책)	2006	국립국어원
634	지역어 조사 질문지	2006	국립국어원
635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2006	국립국어원
636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3)	2006	국립국어원
637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2)	2006	국립국어원
638	특수 부호 예제와 점역 원칙 연구	2006	국립국어원
639	판각 복원 “용비어천가”	2006	국립국어원
640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결과 보고서(2003~2006)	2006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64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제1회) 문항출제 및 선제 최종 보고서	2006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64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제1회) 실시 최종 보고서	2006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643	한글 3종 약자	2006	국립국어원
644	한글 이미지화 및 산업화 전략	2006	국립국어원
645	한류 상품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드라마로 배우는 생생 한국어 (영어판)	2006	국립국어원
646	한류 상품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드라마로 배우는 생생 한국어 (일본어판)	2006	국립국어원
647	한류 상품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드라마로 배우는 생생 한국어 (중국어판)	2006	국립국어원
648	전문용어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최종 보고서	2006	국립국어원
649	한국어(한국문화) 독본 교재 개발	2006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650	국외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아르헨티나)	2006	국립국어원
651	(한국어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한 2006년도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 중국 자치주 동포 대상 한국어 진흥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사업 최종 보고서	2006	국립국어원
652	한국어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2006	국립국어원
653	(2007년 제1회)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결과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654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 결과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655	유비쿼터스 시대의 디지털 세종학당 학술회의	2007	국립국어원
656	(문화 창조 역량 강화와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국어발전기본계획	2007	국립국어원
657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 현지화 최종 보고서(중국)	2007	국립국어원
658	한국어 초급 듣기 교재 현지화 최종 보고서(중국)	2007	국립국어원
659	한국어 초급 읽기 교재 현지화 최종 보고서(중국)	2007	국립국어원
660	한국어 초급 쓰기 교재 현지화 최종 보고서(중국)	2007	국립국어원
661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 현지화 최종 보고서(베트남)	2007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662	한국어 초급 듣기 교재 현지화 최종 보고서(베트남)	2007	국립국어원
663	한국어 초급 읽기 교재 현지화 최종 보고서(베트남)	2007	국립국어원
664	한국어 초급 쓰기 교재 현지화 최종 보고서(베트남)	2007	국립국어원
665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 현지화 최종 보고서(필리핀)	2007	국립국어원
666	한국어 초급 듣기 교재 현지화 최종 보고서(필리핀)	2007	국립국어원
667	한국어 초급 읽기 교재 현지화 최종 보고서(필리핀)	2007	국립국어원
668	한국어 초급 쓰기 교재 현지화 최종 보고서(필리핀)	2007	국립국어원
669	국립국어원 (한국어)	2007	국립국어원
670	국립국어원 (러시아어)	2007	국립국어원
671	국립국어원 (태국어)	2007	국립국어원
672	국립국어원 (중국어)	2007	국립국어원
673	국립국어원 (일본어)	2007	국립국어원
674	국립국어원 (영어)	2007	국립국어원
675	재중 동포대상 문예작품 공모전 결과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676	외국인 대상 로마자 표기법 반응 조사 결과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677	바른국어생활 - 교사직무연수교재	2007	국립국어원
678	바른국어생활 - 국립국어원과 SBS가 함께하는 우리말 교실 교재	2007	국립국어원
679	한국어 어휘의미망 구축과 사전 편찬 학술회의	2007	국립국어원
680	바른국어생활 (국어문화학교 교재)	2007	국립국어원
681	바른국어생활 (상)	2007	국립국어원
682	바른국어생활 (하)	2007	국립국어원
683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2007	국립국어원
684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2007	국립국어원
685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2007	여성가족부
686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2007	KBS
687	세종학당 운영길잡이	2007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688	세종학당 백서	2007	국립국어원
689	국의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	2007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690	세종학당 파견 한국어 교원 교육	2007	국립국어원
691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 발표회 자료집	2007	국립국어원
692	21세기 세종계획 백서	2007	국립국어원
693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2007	국립국어원
694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기초 연구 - 공청회 -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어원
695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기초 연구 - 결과 보고서 -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어원
696	언어청정구역 조성시범 사업연구	2007	국립국어원
697	로마자 표기에 대한 외국인 발음 분석	2007	국립국어원
69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007	국립국어원
699	컴퓨터 키보드의 한글배열 연구	2007	국립국어원
700	2006년도 표준 한국어 교육 과정 모형 구축 사업 최종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701	柳僖의 '諺文志' 譯註	2007	국립국어원
702	국립국어원 온라인 강의 체계 구축 중장기 방향 수립 연구	2007	국립국어원, CREDU
703	한국어 어휘의미망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2007	국립국어원
704	로마자 표기 현황 실태 분석	2007	국립국어원
705	국어사용 실태 조사 중장기 계획 (2008년~2017년)	2007	국립국어원
706	외래어·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	2007	국립국어원
707	영화 및 게임물 언어 사용 실태 조사	2007	국립국어원
708	'언어 자원의 다원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표준어, 지역어, 사회 방언의 공존 모색-	2007	국립국어원
709	곱고 바른 활자꼴 개발의 필요성 연구	2007	국립국어원
710	방송 프로그램 제목 언어사용 실태 조사	2007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711	세계의 언어정책기관 조사	2007	국립국어원
712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2007	국립국어원
713	전문용어 표준화 관련 어문규정 지침(내부용)	2007	국립국어원
714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및 한국어진흥재단 설립방안	2007	국립국어원
715	교과서 표기 감수 지침(시안)	2007	국립국어원
716	아시아권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 분석 연구	2007	국립국어원
717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07	국립국어원
718	민족생활어 조사 증장기 계획 (2008~2016)	2007	국립국어원
719	(21세기 세종계획)국어 기초 자료 구축 별도: 중간 보고서 1부	2007	국립국어원
720	(21세기 세종계획)국어 특수 자료 구축	2007	국립국어원
721	(21세기 세종계획)문자 코드 표준화 연구	2007	국립국어원
722	(21세기 세종계획)전자사전 개발	2007	국립국어원
723	(21세기 세종계획)한민족 언어 정보화 별도: 중간 보고서 1부	2007	국립국어원
724	(21세기 세종계획)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 관리 및 배포 지원	2007	국립국어원
725	소멸 위기의 늪지 생태계 언어 조사 -우포늪-	2007	국립국어원
726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재 개발	2007	국립국어원
727	(한국수화사전 별책 1) 일상생활수화(1)	2007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728	(한국수화사전 별책 2) 법률수화	2007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729	(한국수화사전 별책 3) 교통수화(3)	2007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730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7	국립국어원
731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2007	국립국어원
732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	2007	국립국어원
733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2	2007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734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3	2007	국립국어원
735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4	2007	국립국어원
736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2007	국립국어원
737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6	2007	국립국어원
738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7	2007	국립국어원
739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8	2007	국립국어원
740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9	2007	국립국어원
741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0	2007	국립국어원
742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07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43	(2007년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744	(2007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745	(2007년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746	(2007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747	(2007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748	(2007년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749	(2007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750	(2007년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751	(2007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752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점자촉각 낱말카드 개발 보고서	2007	국립국어원 (사)한국시각장애인예 술험협회
753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재(초급) 편집본	2007	국립국어원
754	(2007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1) - 중국 길림성 훈춘시 경신진 회룡봉촌	2007	국립국어원
755	(2007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2) - 카자흐스탄 알마티	2007	국립국어원
756	지역어 조사 질문지 (그림책)	2007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757	외래어 인지도 · 이해도 · 사용도 및 태도 조사	2007	국립국어원
758	제8회 KBS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분석 연구 (2007. 8. 5. 시행) - 국어 기본법 시행에 의거하여 -	2007	국립국어원
759	2007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 최종 보고서 (조사 어휘 통합 편)	2007	국립국어원 한남대학교
760	POST MODERN 2007 겨울	2007	포스트모던
761	세종학당 교재 개발 연구	2007	국립국어원
762	(제2회 국립국어원·SBS 방송언어 공동 연구)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언어	2007	국립국어원·SBS
763	(제3회 국립국어원·MBC 방송언어 공동 연구) 구어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2007	국립국어원·MBC
764	국어능력검정시험 결과 보고서	2007	한국언어문화연구원
765	바른국어생활 - 교사 직무 연수 교재 -	2007	국립국어원
766	국의 한국어 교원 초청 교육	2007	한글학회
767	전문 용어 통합 관리 및 심의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최종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768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어 방문교육 교재 개발 연구	2008	국립국어원, 대교
76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 교육실태 및 방문교육 방안 연구	2008	국립국어원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770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한국어 방문교육 교재개발 연구	2008	국립국어원 웅진씽크빅
771	즐거운 한국어 - 2단계 일요일에 한 일 -	2008	국립국어원
772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콘텐츠 완료 보고서	2008	CREDU
773	국어능력검정모의시험 방법 연구	2008	국립국어원
774	다중의 시대, 언어 소통 기획 -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	2008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775	다중의 시대, 언어 소통 기획 -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	2008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776	국의 한국어 교육,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세종대왕 탄신 611돌 기념 학술회의 -	2008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777	수화로 하는 애국가, 국기에 대한 맹세, 한글날 노래	2008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778	한국수화 1	2008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779	국내외 한국어 교재 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2008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780	한국어 교육 관련 국내외 웹사이트 현황 조사	2008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781	한국어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2008	국립국어원
782	국의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강의 자료집 - 러시아 사할린 지역 -	2008	국립국어원
783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2008	국립국어원
784	건국 60년 우리말이 걸어온 길	2008	국립국어원
785	한국어-미국수화사전	2008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78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8차 국제 학술 대회)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87	The 1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v.1	2008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788	The 1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v.2	2008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789	2008년 전북 민속문화의 해 기념 전국 학술 대회 자료집	2008	전주대학교 한국어문 회원
790	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 학술 대회	2008	한국어학회
791	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 학술 대회(토론집)	2008	한국어학회
792	한글 피어나다 - 문화의 옷을 입은 한글	2008	국립국어원
793	(표준국어대사전의 현재와 미래)표준국어대사전, 날개를 달다	2008	국립국어원
794	한국 어문 규정집	2008	국립국어원
795	중증·중복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촉진 도구 개발 연구	2008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796	중증·중복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촉진 도구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797	2008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2008	국립국어원
798	건국60주년기념 국어사랑큰잔치 행사 결과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799	방송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2008	국립국어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00	(제3회 국립국어원·SBS 방송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 방송언어의 품격 향상을 위한 아나운서 국어 사용 연구	2008	국립국어원·SBS
801	08년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운영 자료집	2008	국립국어원
802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2008	국립국어원
803	신출 한자 국제 표준화 연구	2008	국립국어원 문자코드연구센터
804	신출 한자 국제 표준화 연구	2008	국립국어원 문자코드연구센터
805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2008	국립국어원
806	한국어 어휘의미 체계 기반 입체적 기본 어휘사전 구축 연구	2008	국립국어원
807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 댓글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	2008	국립국어원
8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2008	국립국어원
809	소멸 위기의 늪지 생태계 언어 조사 -낙동강-	2008	국립국어원
810	80-90년대 북한 지역어 자료 디지털화	2008	국립국어원
811	국군 장병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2008	국립국어원
812	2008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813	(2008년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814	(2008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815	(2008년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816	(2008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817	(2008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818	(2008년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819	(2008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820	(2008년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821	(2008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822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 (구덕, 차룡)	2008	국립국어원 한남대학교
823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2 (안동포)	2008	국립국어원 한남대학교
824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3 (단청장)	2008	국립국어원 한남대학교
825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4 (모필)	2008	국립국어원 한남대학교
826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두석장)	2008	국립국어원 한남대학교
827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6 (시장)	2008	국립국어원 한남대학교
828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7 (사찰생활)	2008	국립국어원 한남대학교
829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8 (남사당놀이)	2008	국립국어원 한남대학교
830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9 (초고장, 승무)	2008	국립국어원 한남대학교
831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0 (나주소반장)	2008	국립국어원 한남대학교
832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1 (김치)	2008	국립국어원 한남대학교
833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	200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34	제주 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835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개발 및 교안 제작 - 새터민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 -	2008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836	다문화가정 대상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세명대 한국학센터
837	국어정보화 2단계 사업 계획 수립	2008	국립국어원
838	교과서 표기 감수 지침(시안) 2	2008	국립국어원
839	한글 고전 주석 정리 사업 - 제2차년도(2008): 15세기 한글 고전 문헌 -	2008	국립국어원
840	역주 '구황촬요'	2008	국립국어원
841	디지털 언어 지도 시스템 개발	2008	국립국어원
842	전국국어문화원 2008년도 상담백서	2008	국립국어원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843	전국국어문화원 2008년도 사업백서	2008	국립국어원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844	한국수화연구 제1집	2008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845	(2008년 국회 정책토론회) 지역어 보전과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2008	주최: 강창일 의원실 주관: 국립국어원
846	한글 피어나다 - 짧은 상상, 그리고 이야기	2008	주최: 한국 문화체육 관광부, 주관: 한글학 회
847	나라사랑 2008년 제114집	2008	외솔회
84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2008	국립국어원
849	한말글 문화지도 만들기 사업 결과 자료집	2008	한글학회
850	제1차 한중일 언어문화 교류 확산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	2008	주최:(사)동북아공동 체연구회
851	2007년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2008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85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08	국립국어원
853	2008 세종학당·한국문화원 한국어 성적 우수 학습자 초청 교육	2008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854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베트남어본)	2008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855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몽골어본)	2008	국립국어원
856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중국어본)	2008	국립국어원
857	제30, 31, 32회 국어능력인증시험 결과 분석 보고서	2008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858	2007, 2008 국어능력인증시험을 기준으로 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추이 보고서	2008	국립국어원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859	국어연감	2008	국립국어원
860	사이버세상 댓글 날다	2008	국립국어원
861	사이버세상 언어 여행	2008	국립국어원
862	바람직한 통신언어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 활동 자료집	2008	국립국어원
863	2008 해외 웹사이트 및 교과서 상의 한글 오류 분석 및 다국어 한글 바로 알리기 웹 사이트 제작	2008	국립국어원
864	바른국어생활: 국어문화학교	2008	국립국어원
865	해외 웹 사이트와 교과서 상의 한글 오류 분석 및 다국어 한글 바로 알리기 웹사이트 제작	2008	국립국어원, 반크
866	2008 사회인을 위한 효과적 의사소통 교육 연구	2008	국립국어원, MBC
867	한글문화관 구상안	2009	문화체육관광부
868	(부부공동학습교재) 알콩달콩 한국어 - 중국어판 -	2009	국립국어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869	(부부공동학습교재) 알콩달콩 한국어 - 베트남어판 -	2009	국립국어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870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2009	국립국어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7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사 교육용 교재	2009	국립국어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72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사 교육용 교육과정	2009	국립국어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73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1	2009	국립국어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87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2	2009	국립국어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75	전문용어 정비 지원 사업 최종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876	전문용어 정비 지원 사업 최종 보고서, 최종 작업 결과물	2009	국립국어원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877	(한국수화사전 별책5) 정보통신수화	2009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878	한국수화 2	2009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879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	2009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880	(한국수화사전 별책4) 의학수화	2009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881	(한국수화사전 별책1) 일상생활수화 2	2009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882	성씨 로마자 표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9	주최:문화체육관광부 주관:국립국어원
883	국립국어원 한국어 중급 1 -몽골어판 -	2009	국립국어원 이중언어학회
884	국립국어원 한국어 중급 1 -영어판 -	2009	국립국어원 이중언어학회
885	국립국어원 한국어 중급 1 -중국어판 -	2009	국립국어원 이중언어학회
886	국립국어원 한국어 중급 1 -타갈로그어판 -	2009	국립국어원 이중언어학회
887	국립국어원 한국어 중급 1 -베트남어판 -	2009	국립국어원 이중언어학회
888	국립국어원 한국어 중급 1 교재 개발 보고서 - 한국어판-	2009	국립국어원 이중언어학회
889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 지침서	2009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890	한국어교육 자원봉사자 인증시험 모형개발 사업 최종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891	제1차 한중일 언어문화 교류 확산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 결과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892	2008년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2009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893	한글포럼 발기인 모임 결과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894	2008년도 한국어 학습자용 어휘 대조 자료집 발간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2009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895	2008년도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대조 자료집 (명사편)	2009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896	바른국어생활 - 찾아가는 문화학교 -	2009	국립국어원
897	바른국어생활 - 교사 직무 연수 교재 -	2009	국립국어원
898	바른국어생활 - 교사 직무 연수 강의 자료집 -	2009	국립국어원
899	바른국어생활 - 국어문화학교 -	2009	국립국어원
900	바른국어생활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	2009	국립국어원
901	바른국어생활 - 국어문화학교 강의 자료집 -	2009	국립국어원
902	바른국어생활 - 원내 국어문화학교 교재 -	2009	국립국어원
903	2008년 신어 자료집	2009	국립국어원
904	(2009 정기국회 보고자료)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 보고서	2009	문화체육관광부
905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2009	국립국어원
906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2	2009	국립국어원
907	세종학당 평가 사업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908	(200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발표 자료집	2009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909	(200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참가자 자료 모음집	2009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910	전문용어 정비 지원 사업 최종 작업 결과물 1	2009	국립국어원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911	전문용어 정비 지원 사업 최종 작업 결과물 2	2009	국립국어원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912	전문용어 정비 지원 사업 최종 작업 결과물 3	2009	국립국어원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913	전문용어 정비 지원 사업 최종 작업 결과물 4	2009	국립국어원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914	2009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 발표 자료집 - 말뭉치 분석 및 활용 소프트웨어 -	2009	국립국어원
915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	2009	국립국어원
916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4	2009	국립국어원
917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교재) 바르고 쉬운 공공 언어	2009	국립국어원
918	교정 교열의 원칙과 실제	2009	국립국어원
919	(문장 교본) 고마운 문장	2009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운동본부
920	이런 말에 그런 뜻이?	2009	국립국어원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921	한글학회 100년사	2009	한글학회
922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 개발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923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교재 1	2009	국립국어원
924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교재 2	2009	국립국어원
925	인명용 한자 국가/국제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 보고서	2009	문화체육관광부
926	인명용 한자 국가/국제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 보고서 (부록포함)	2009	문화체육관광부
927	국어연감 2009	2009	국립국어원
928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2009	국립국어원
929	세종학당 및 한국문화원 한국어 우수학습자 초청 교육 실적 보고서	2009	한국어세계화재단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930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2009	국립국어원
931	(부부 공동 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 중국어 편	2009	국립국어원
932	표준국어대사전 보완을 위한 어휘 사용 실태조사	2009	국립국어원
933	바른국어생활: 교사 직무 연수 교재	2009	국립국어원
934	방송에서의 외래어 . 외국어 사용실태 연구	2009	국립국어원, SBS
935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	2009	국립국어원
936	교사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2009	국립국어원
937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2009	국립국어원
938	국어 정책 통계 지표 개발 및 조사 수행	2009	국립국어원
939	중급 한국어 1: 교원용 지침서 개발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940	어휘의미 체계 기반 입체적 국어사전 확장	2009	국립국어원
941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1: 교원용 지침서	2009	국립국어원
942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2: 교원용 지침서	2009	국립국어원
943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구축 세부 실행 계획	2009	국립국어원
944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구축	2009	국립국어원
945	2009년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946	2009년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947	2009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948	2009년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949	2009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950	2009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951	2009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952	2009년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953	2009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09	국립국어원
954	2009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2009	국립국어원
955	2009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2009	국립국어원
956	방언 경연 대회를 통한 지역 방언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957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2009	국립국어원
958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 [호상옷]	2009	국립국어원
959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2 [경북 북부 지역 토속 음식]	2009	국립국어원
960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3 [남원목기]	2009	국립국어원
961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4 [장 담그기]	2009	국립국어원
962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임신 출산]	2009	국립국어원
963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6 [배첩장]	2009	국립국어원
964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7 [한지 공예]	2009	국립국어원
965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8 [도검]	2009	국립국어원
966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9 [북 배우기]	2009	국립국어원
967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0 [한과]	2009	국립국어원
968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II [떡]	2009	국립국어원
969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	2009	(재)한국어 세계화재단
970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지역 민족 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 연구	2009	국립국어원
971	표기, 표현 기초 조사 지침	2009	국립국어원
972	중급 한국어 2: 현지화 및 번역 사업 결과 보고서	2010	국립국어원
973	중급 한국어 2: 중국어	2010	국립국어원
974	중급 한국어 2: 영어	2010	국립국어원
975	중급 한국어 2: 타갈로그어	2010	국립국어원
976	중급 한국어 2: 베트남어	2010	국립국어원
977	중급 한국어 2: 몽골어	2010	국립국어원
978	듣기 말하기 통합 평가 시행 및 언어 능력과의 상관 분석	2010	국립국어원 KBS한국방송
979	2009년 국어능력검정 국고 보조 사업 결과 보고	2010	국립국어원 KBS한국방송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980	(MBC 한글날 특별기획) 말의 힘	2010	국립국어원 방송문화진흥회
981	부부 공동 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 베트남어 편	2010	국립국어원
982	국외 한국어 교원 초청 연수 백서	2010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983	바른 국어 생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2010	국립국어원
984	천주교수화 -한국수화사전 별책VII-	2010	한국농아인협회
985	일상생활수화(3) - 한국수화사전 별책 I -	2010	한국농아인협회
986	불교수화 -한국수화사전 별책 VI-	2010	한국농아인협회
987	기독교수화 - 한국수화사전별책 VIII -	2010	한국농아인협회
988	한국수화 3	2010	한국농아인협회
989	한국수화연구 제2집	2010	한국농아인협회
990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법 교육	2010	한국농아인협회
991	2009년도 국어능력검정 국고보조사업 결과 보고	2010	한국언어문화 연구원
992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2010	한국언어문화 연구원
993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교재) 바르고 쉬운 공공 언어	2010	국립국어원
994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	2010	국립국어원
995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선수명 한글 표기 자료집	2010	국립국어원
996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2010	국립국어원
997	국외 한국어교원 (재)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10	국립국어원
998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교원용 지침서	2010	국립국어원
999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2: 교원용 지침서	2010	국립국어원
1000	중급 한국어 1: 교원용 지침서	2010	국립국어원
1001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	2010	국립국어원
1002	계약서, 약관 등의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2010	국립국어원
1003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재	2010	국립국어원

번호	자료명	발행년	발행처
1004	새터민 언어 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교사 연수 자료집	2010	국립국어원
1005	한국어 전문가 국외 과건 교육 강의 -러시아 모스크바-	2010	국립국어원
1006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	2010	국립국어원
1007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4	2010	국립국어원
1008	방송 언어와 국어 교육: 제5회 국립국어원 SBS 방송 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 자료집	2010	국립국어원
100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010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교재	2010	한글학회
1010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본 방송 언어 연구	2010	국립국어원
1011	알기 쉬운 신문 언어 환경 조성	2010	국립국어원
1012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조사	2010	국립국어원
1013	계약서, 약관 등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2010	국립국어원
1014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2010	국립국어원
1015	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에 물어보았어요	2010	국립국어원
1016	숫자로 알아보는 우리말	2010	국립국어원
1017	우리말의 이모저모	2010	국립국어원
1018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the Korean Language	2010	국립국어원
1019	The Korean Alphabet, Hangeul	2010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20년사 편찬 위원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박창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희진 (국어생활연구원장)
조남호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최용기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정희창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원, 간사)

국립국어원 20년사

인 쇄 2011년 1월 21일
발 행 2011년 1월 21일

펴 낸 이 권 재 일
펴 낸 곳 국립국어원
주소: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77
누리집: www.korean.go.kr

인 쇄 처 크리홍보(주)
